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매월 거래 실적의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에 드립니다.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품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12월 11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가정이나 학교 등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활동의 일차적인 수단은 말(語)이다.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인 말에 대해 최근 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가 교육적 잣대를 들이댔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경어를 쓰기로 하자는 것이다. 교사가 사용하는 말에서부터 교육적 의미를 생각하자는 것이다. 교육을 차곡차곡 시작하자는 이 취지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수용될지 더 지켜보아야 하지만, 말에 부대끼는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짚어볼 일이다. 〈편집자 주〉

거친 말을 멀리 여의라

추한 말을 멀리 여의라. 추한 말은 자기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를 입히므로 피차가 다 해로운 것이다. 그러나 착한 말을 닦아 익히면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로워서 피차가 다 이로운 것이다. 〈무량수경〉

마땅히 거친 말을 하지 말지니, 말을 할 때는 마땅히 보(報)를 무서워해야 한다. 악이 가면 화가 와서 도장(刀杖)이 몸에 들어 온다. 말을 하게 되면 선하게 하여 종소리가 울리는 것 같이 하라. 〈법구경〉

부처님의 가르침을 '선설(善說)'이라는 이유는 첫째 그 말이 청정하고 아름답기 때문이며 둘째 그 내용이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경〉

사람이 세상에서 앞으로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입 지키기를 사나운 불 지키는 것보다도 더욱 조심해서 해야 한다. 사나운 불꽃은 세상의 재물을 태우되 나쁜 말의 불꽃은 일곱가지 성스러운 재물을 태우는 까닭이다. 이같이 온갖 중생의 재앙은 다 입에서 나오는 터이므로 입이야말로 몸을 해치는 도끼요, 몸을 죽이는 칼날이니라. 〈보은경〉

소때가 강물을 건너갈 때 길잡이소가 길을 바로 가지 못하면 뒤따르는 소들이 물에 빠지나니 이는 길잡이 소가 길을 잘못 선택한 때문이다. 중생도 이와 같아서 지도자가 법답지 못하면 아랫사람들도 모두 법답지 못하게 된다. 〈중일아함경〉

소위 해치는 말이나 거친 말, 남을 괴롭히는 말, 남으로 하여금 원한을 품게 하는 말, 저속하고 나쁜 말, 용렬하고 천한 말, 이런 말들을 다 버리고 늘 정다운 말, 부드러운 말, 듣기를 원하는 말, 듣는 사람이 기뻐하는 말, 멋지고 도리에 맞는 뜰을 하며 항상 시의적절한 말, 분명한 말, 진실한 말, 정법을 설하는 말, 때에 따라 헤아려 결정한 말 뜰을 즐겨 생각해야 한다. 보살은 웃을 때라도 늘 자세히 생각하거니 하물며 굳이 어지러운 말을 함부로 하겠는가. 〈화엄경〉

관련기사 2면

팔만대장경 석굴암 세계유산 등재 1년

훼손 무방비 '보존절실'

해인사, 심포지엄등 '기념주간' 행사 마련

성보 해인사 팔만대장경(국보32)과 판전(국보52호), 불국사(국보20호) 석굴암(국보27호)이 종묘(사적125호)와 함께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지 6일로 1주년이다. 세계문화유산은 인류 공통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지니는 귀중한 문화재로 팔만대장경과 석굴암 보존에 세계인이 나서게 된 것이다. 한국불교 1천여년 유산이 세계유산에 지정된 그자체로 불교계는 물론이고 국민적 자긍심으로 밤이 들여졌다.

그러나 세계문화유산지정에 곧이어 발생한 해인골프장 건설 추진으로 팔만대장경은 현재 훼손위기에 처해있다. 또한 석굴암 외각에 균열이 생기고 심지어 본존불에까지 금이 가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세계유산지정과 맞물려 문화유산 관리에 문제점이 들출된 것이다. 그동안 지자제 실시와 개발논리에 밀려있던 문화재와 환경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인식이 드러났다는 분석도 나왔다. 결국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문화재 정책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불교계를 비롯한 환경단 및 시민단체들은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문화재에 대한 홍보보다는 제대로 보존하는 감시에 뒤쫓기 바빴다는 평이다.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집회를 갖는 등 문화유산과 환경보존을 위해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심지어 환경문제를 두고 불과 3개월만에 1백만의 국민이 서명하고 청와대에 탄원서를 내는 일도 있었다. 아직 해인골프장 건설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남겨놓은 시점이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1년을 맞아 해인골프장 건설 반대 해인총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동운스님)와 범국민대책위원회(위원장 최열)는 7일 부터 오는 15일까지 1주일간을 '세계문화유산 등재 1주년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기념법회 등 대규모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도표 참조〉

불교계는 이 주간을 계기로 세계유산을 비롯한 사찰환경보존에 인식과 각성을 새롭게 해야한다는 여론이다.

◇팔만대장경 세계유산등재 기념 행사

행사	일시 · 장소	내용
ICOMOS 사무총장 초청 강연 · 기자회견	8일 오전8시 9일 오전10시 세종문화회관	팔만대장경 및 골프장 예정지 답사 '위기에 처한 팔만대장경' 주제 강연, 기자회견
세계유산 지정 1주년 기념법회	10일 오후1시 해인사	기념법회, 팔만대장경 정대 풀사
팔만대장경 관각및 인경(印經) 재연행사	7~15일 해인사 구광루	대장경 연구논문가와 대장경 연구소의 고증으로 판각 및 인경 재연. 일반인이 직접 판각과 인경에 참여할 수 있다.
문화 · 생태기행	14~15일 가야산 일대	
불교지도자 환경워크숍	13~14일 해인사 보경당	
가야산 야생동물 겨울철 먹이주기	11일 12시 가야산일대	해인사 대중스님과 해인초등학교 교사 어린이 2백여명 참석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 결성

실태조사 · 분쟁해결 … 13~14일 '환경워크숍'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이 지난 11월 22일 사찰환경보존과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전국 본말사주지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데 이어 사찰환경보존위원회를 결성 13일 이잔에 출범한다.

총무원은 오는 13~14일 양일간 해인사에서 '불교지도자 환경워크숍'개최에 앞서 사찰환경보존위를 가동시킨다는 계획아래 문화환경 전문가 및 종사자들 대상으로 위원선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찰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환경, 종교(수행)환경보존을 위해 결성되는 사찰환경보존위는 산하에 50명이내의 자문,전문,실무위원을 두어 전국사찰의 환경실태조사는 물론 사찰환경분쟁을 조정하고 법적 행정적 대응방안을 세우는 등의 사업을 펼친다.

한편 사찰환경보존 위원으로 △환경전문:박윤흔(전 환경처장관) 최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언론계:공종원(조선일보 논설위원) △학계:황수영(학술원 회원) △시민단체:김준배(참여연대 공동대표) △법조계:양영태(조계종 고문변호사) △스님:여연(조계종 종회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자문위원으로 박준수(관사) 안동일(변호사) 황규선(국회의원) 추미애(국회의원) 신영훈(사찰건축)씨와 전문위원에 연기영(동대 교수) 유정길(불교환경교육원)씨 등을 교섭중이다.

'전통사찰' 수행목적 농지취득 가능

정각회, 불교관계법 개정 의원 발의

정각회(회장 서석재)는 지난 5일 불교관계법 개정을위한 간담회를 갖고 "전통사찰도 불교고유의 수행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수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의원발의키로 합의했다.

조계종 총무원과 문체부실무자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정각회는 불교계가 요구하고있는 '농지의 사찰명의등록'에 대해 "무소유정신을 원칙으로 하는 불교의 특성을 고려해 신도가 시주하거나 토지교환, 수용당한 토지를 사찰명의로 할수있도록하는 농지법을 개정해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각회는 "헌법에 농지소유는 경작자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법률검토와 자구수정이 요구된다"며 빠른시일내에 최종안을 만들기로 결의했다.

정각회는 또한 조계종과 문체부가 합의한 전통사찰보존법,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이들 법안을 농지법개정안과 함께 이달중으로 의원발의하기로 했다. 의원발의하기로 한 전사법 개정안은 △전통사찰의 경내지와 보호구역확정 △전사법에 종단대표자규정 삽입 △전통사찰의 건축법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한편 정각회는 지난 11월 20일 국민회의 연등회가 발의한 불교관계법 개정안을 수정보완해 정각회차원에서 다시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불국사 · 석굴암등 한국문화 상징물로"

문체부, 해외집중 소개

불국사-석굴암이 한복, 한글, 김치-불고기, 태권도 등과 함께 세계인들에게 한국문화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한국문화 CI(Corporate Identity 통합이미지)'의 대상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CI는 연차적으로 한두개씩 디자인과 로고작업을 거쳐 해외에 집중 소개된다.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21세기 한국불교계를 이끌어갈 젊은 일꾼을 찾습니다.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 세계화의 견인차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현대불교신문은 한국불교의 새장을 함께 열 새 인재를 모집합니다.

직 종	인 원	응시 자격
경력기자 수습기자	0명 0명	· 불교신자 · 4년제 대학졸업 · 예정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 · 면접
단, 경력기자는 1차와 면접에 한함
▲제출서류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 이력서(명함판 사진 2매), 자기 소개서(원고지 5매 분량)
▲접수 및 문의 : 1996년 12월 24일(화)까지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총무국 전화(02)737-8881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 1996년 12월 28일(토) 오후2시 본사 사옥
· 인터넷 부다피아 검색 가능 (http://www.buddhapia.co.kr)
· 우편접수는 마감당일 도착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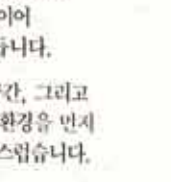
대생용 미륵반가상 중 · 고교에 보냅시다

동참해주신 분

△만엽 보림사스님(함양): 용인군 원삼중 원삼초교(2구좌)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 경북 달성군내 중 · 고교(10구좌) △임효점(경불련 협력위원장): 종립학교(1구좌)

(12월 5일 현재 총 543구좌 접수)

◇구좌단위로 참여합니다 (1구좌 10만원)



◇김의정씨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25-0007-617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사

고속철 경주역사 '건교부안' 확정적 15면
한국불교 동남아 문맹퇴치 앞장 14면
16일 새 찬불동요 30곡 발표 13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最大의 민영제철소


연말 완공을 눈앞에 둔 당진제철소 B지구


북한경유, 중국에 첫 수출된 한보의 핫코일

당진제철소내 건설될 무공해 부생가스 발전소

한보의 신기술이 만든 민영 최대의 당진제철소!
21세기를 여는 '꿈의 제철소'완공을 눈앞에 두고있습니다.

最大의 제철소 단일 민영 제철소로는 최대인 110만평 규모의 당진제철소는 본격적인 철강의 서해안 시대를 연 차세대 제철소입니다.

最初의 수출 국내 최초로 북한 나진항을 통해 중국에 핫코일을 수출한 한보철강은 이미 동남아를 비롯, 이란 등 전세계로 수출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最尖端 기술 국내최초로 최첨단 전기로 열연코일 생산에 이어 코렉스공법으로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철강을 만듭니다.

最高의 환경 집진시설과 녹지공간, 그리고 무공해 발전소 등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만들었기에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자랑스럽습니다.

한보

사 설

'사찰환경지킴이' 역할

조계종 총무원이 전문위원 실무위원 등 50여명으로 '사찰환경보존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환경지킴이 활동을 펴겠다고 선포했다. 사찰환경보존을 위해 종단 차원으로 결성된 첫 기구라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일을 해나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한편 기대에 앞서 사찰환경문제는 올해 교계의 가장 큰 관심사였으며, 따라서 위원회까지 구성하기에 이르렀는지 자괴심을 감출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기도 하다.

'인간은 환경으로부터 탄생하고 환경은 인간이 만들거나 다듬는다'고 말할 수가 있다. 근자에 와서 환경문제와 연관하여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런 갈등도 근원적으로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치된 목표 때문에 일어난다. 이제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문화환경 심지어 사찰주변까지 개발이란 이름아래 무참히 파괴되고 있는 것을 더이상 괄짱을 끼고 남의 일처럼 쳐다보기만 해서는 안될 시점에 이르렀다.

왜 이토록 무지한 소용돌이 속으로 우리들이 내몰려졌을까를 다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들에겐 내것만 있어왔지 우리들의 것이 없는 상황속에서 오래 살아온 것도 이유라면 이유가 되겠다. 내것이 아니면 모두 나와는 상관없는 타인의 것이란 공간개념은 결국 자신과 환경과의 직결된 연관을 인식하지 못하는 미숙성에 기인한다. 가령 자연환경이 파괴되면 이런 환경에 적응하여 살던 모든 생물체가 멸종을 하게 되고 생물이 멸종하는 환경이라면 인간의 생명도 온전하지 못하리라는 인과를 직시하지 못하는 미숙성이다.

자연환경과 문화환경 그리고 종교적으로 사찰환경이 극심한 훼손상태에 이르러서야 이제 겨우 위기감이 결집되기 시작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다.

지난 11월22일 전국의 3,000여명 조계종 스님들이 결집하여 '환경보존과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전국 본말사 주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결의문을 채택한 일은 매우 다행스럽고 고무적인 일이다. 과다한 욕심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면 거기에서 오는 재앙은 대대손손 돌이킬 수 없으며 인간과 자연은 하나임으로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제 환경위의 가동으로 모처럼 불붙기 시작한 올바른 외침으로 메아리쳐 잠자던 시민정신이 활활 타올랐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되지면 모처럼의 외침이 일과성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일이 성사될때까지 주장을 늦추지 말아야 하며 결집된 힘을 모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천적으로 활동해야 할 것이다.

환경은 일단 파괴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 지금부터라도 사찰환경파괴 실태의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사전예방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진행되고 있는 환경파괴의 반대운동은 이미 늦은 것이다. 해인골프장과 관련해서는 국립공원내 사유지의 국유화를 추진해 국립공원과 사찰환경을 동시에 지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이 어느 한 사람의 것이 아니려니와 더욱이 문화유산들이 하루아침에 이룬 결과가 아니란 것을 깊이 통찰한다면 이젠 누구도 양심을 잠재우고만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개발과 보존은 언제나 상충되긴 하겠지만 보존을 전제로한 조화로운 개발에 관심을 둔다면 그 상충성은 영원한 평행선만은 아닐 것이다. 이번 기회에 관심과 의욕적인 참여 그리고 지속적인 실천을 성스럽게 보여주자.

열린마당

교육과 체벌

지난 11월27일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김종서)는 6개 분야별 개혁방안을 담은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개혁안 가운데 교사의 체벌금지와 존대말 수업 의무화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학자의 진단과 종립학교 교법사,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는다. 〈편집자 주〉

경어사용·체벌금지등 의무화 곤란

박영동 〈교법사·서울 동대부고〉

학생들의 독단성과 폭력성, 이념과 가치관의 혼란 등을 바로잡기 위해 학교교육의 변혁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민주교육을 앞세워 서구식 교육방법만을 고집하고 우리 교육현장에 실험적으로 투입하려 해서는 안된다. 물론 교사가 학생을 대함에 있어 체벌하지 않고 경어를 사용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개혁을 핑계삼아 교육의 수단까지 법제화하고 의무화한다는 것은 교사의 지도방법에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교육현실을 무시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불교교육의 이상적 인간상이 '지혜롭고 자비로운 주체적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라면 교육의 방법은 당연히 지혜롭고 자비로워야 한다. 스승과 제자가 둘이 아닌 하나라는 상호 신뢰 속에 때로는 따뜻하게(慈), 때로는 엄격하게(悲) 학생의 수준과 처한 상황에 따라서 교육의 방법은 달리 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스승이 제자를 경책할 때 미워서만 때리겠는가?

이번 교개위 개혁안의 근본 취지는 찬성하나, 구체적으로 교사의 체벌금지와 존대말 사용 등을 법제화하는 일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사랑의 매'도 안되면 교권 위축 우려

이학송 〈교법사·의정부 광동여고〉

교개위의 이번 방안은 정부에서 민주적인 교육대책 마련보다는 학생들의 방종과 교권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제도다. 우리교육이 민주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가정과 사회 학교가 높은 의식수준에 올라갈 때 가능하다. 모든 것을 학교에서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이다. 교사들도 관심이 있으면 간섭하게 되고 애정이 있다보면 최후의 교육수단으로 회초리를 드는 것이다. 교사들의 경어사용도 단체와 개인을 구분하여 가려서 쓰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최근 영국에서 87년 공립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시킨 이후 오히려 부활해야한다는 국민이 3명중 2명꼴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미국식 제도를 따를 뿐 현직교사의 앙케이트나 실사를 거치지도 않는 것은 교육계의 파란을 예고하는 것으로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무관심 무간섭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칭찬과 회초리 조화이뤄야 참교육

장보리행 〈학부모·경기도 고양시〉

교육의 현장에서 사랑의 매를 없애려는 움직임에 절대 반대한다.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치고 어찌 자녀가 남에게 매맞는 것을 좋아하겠는가만은 사랑의 매는 제외되어야 한다. 칭찬과 회초리는 교육을 이끌고 있는 두 바퀴와 같기 때문이다. 결코 칭찬만으로 우리의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된다고 볼 수 없다.

부모들 또한 학창시절이 있었다. 당시를 회고해 볼때 마음을 울리는 따끔한 회초리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었던 이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교사가 존대말만 쓰고 회초리를 버렸을 때를 생각해보라. 철없는 아이들, 아직 자기주관이 성립되지 않은 아이들, 제멋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려는 아이들이 어떤 일을 궐칠지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는가.

체벌논란에 앞서 사회가 믿음이 없어진 것을 우려해야 한다. 자녀를 교사에게 맡겼을 때는 학교와 교사를 믿어야 한다. 학교와 교사를 믿는 풍조가 회복되었을때 감정적인 회초리가 사랑의 매로 바뀔 것이다.

감정치우친 체벌 학생반감 부추겨

이준호 〈서울 심목중 1학년〉

체벌금지에 대한 교육개혁위의 교육개혁안을 환영한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우리 또래라면 잘못이 있든 없든간에 체육시간에 선생님의 발에 차이고 밟히는 수난을 겪은 경험이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동안 학교에서는 체벌의 정도를 벗어나 감정에 치우친 비인격적인 체벌이 비일비재하게 있어 왔던게 사실이다.

중고등학교에 다닐 정도의 나이라면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때다. 그럴때 선생님들의 모욕적 체벌은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준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폭력에 길들여지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때문에 체벌금지 조치를 환영한다. 지나친 체벌은 학생들로 하여금 교사에 대한 존경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비과학적인 처사일 뿐이다.

체벌이 아닌 교사와 학생간의 대화와 두터운 신뢰아래 학생을 동등한 인격체와 교육주체로 인정하는 길이 이상적인 교육문화를 형성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전문가 진단

박선영 〈동국대 교수·교육학〉



동서를 막론하고 매는 전통적으로 교육의 필수적인 도구이었다. 서양의 원죄설은 교육자체를 금욕적인 성격의 것으로 보게 하여 교육에서의 감시와 체벌은 단순한 관행의 수준을 넘는 것이었다. 동양에서는 가르치는 행위를 뜻하는 '교(敎)' 자체가 손에 막대기를 들고 어린이에게 타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교육에 임하는 것을 '교편(敎鞭)'을 잡는다 하고, 이때 '편(鞭)'은 매를 뜻하고 있다. 한국어의 '가르치다'에서 '치다'는 세게 자극을 주거나 때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근대 이래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민주시민교육이 뿌리내리면서 선진 민주국가의 교육현장에서는 체벌이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한국은 일제에 의한 민족차별의 가혹한 모멸과 체벌의 식민지교육을 받아왔다. 과거의 체벌전통이 오히려 더욱 강화된 셈이다.

"교사교육 선행돼야한다"

불법(佛法)에는 체벌이 없다. 물론 불교에도 선가(禪家)에는 방(棒)이라는 것이 있으나, 이는 체벌로서가 아니라 언어도단(言語道斷)의 격외(格外)이다. 누구나 다 미완성의 부처님이다. 그래서 조선시대 보우스님은 유교적인 표현을 빌려 사람이 곧 하늘이라 했다. 이 사상은 천도교에 의해 '사람이 하늘이니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하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천도교는 김기전과 방정환을 중심으로 어린이를 하늘같이 존경하고 경어를 쓰게 하는 운동을 일으킨 바 있다.

불교의 관점에서 학교에서의 체벌금지와 경어사용에 대해 근본적으로는 대찬성이다. 하지만 획일화하여 강제하는 것에는 선뜻 동의하기가 망설여진다. 교직은 어떤 형식에 의하든 학생의 인격에 간섭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교육에서의 체벌은 교사와 학생이라는 독특한 인간관계에서의 특수한 인격적 교섭형식이다. 교사에 일임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정도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진정한 교육애의 철학과 소신을 지니게 하는 철저한 교사교육이 전제된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현대만평

박구원



다함께 보호해야…

목어

부처님 제자인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여러 마을을 행각하다 큰 비를 만났다. 두 사람은 급히 길옆의 기와굽는 가마속으로 들어가 비를 피했다. 그 가마속에는 소치는 여인이 먼저 들어와 있었다. 소치는 여인은 두 존자의 잘생긴 용모에 마음이 들떠 부정한 생각을 일으켰다. 비가 멈춰 세 사람이 가마에서 나왔을 때 마침 관상쟁이 구가리가 그곳을 지나게 됐다. 구가리는 소치는 여인의 얼굴에 음욕이 가득한 것을 보고는 비구들에게 소문을 퍼뜨렸다.

"사리불과 목련이 소치는 여인과 정을 통했다." 비구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럴때마다 구가리는 못마땅하여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다.

투서·음해의 과보

사리불과 목련의 설법을 듣고 깨달아 천상에 태어난 바가범이 스승을 비방하는 것을 보고 즉시 하늘에서 내려와 구가리앞에 섰다.

"당신이 사리불존자와 목련존자를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 바가범이 세번이나 타일렀으나 구가리는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오히려 바가범을 나무랐다.

그때 구가리의 몸에는 머리에서 발끝에 이르기까지 종알만한 종기가 돋아났다.

구가리는 화를 못이겨 부처님을 찾아갔다. "사리불과 목련이 소치는 여인과 정을 통하다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타이르셨으나 구가리는 더욱 화를 냈다. 이상한 것은 구가리가 화를 내면 낼수록 종기는 자꾸 커졌다. 능금만 하다가 주먹만 하게 되고 다시 호리병만해졌다. 구가리는 몸이 달아올라 견딜 수 없어 연못속으로 들어갔다. 연못물이 금새 끓어 올랐다. 구가리는 종기가 터지면서 지옥에 떨어졌다.

요즘 남을 음해하는 투서가 판을 친다고 한다. 남의 뒤통수를 치는 투서는 불안하고 병든사회에서 자신이 없거나 속이 빈 사람 또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승가에서도 투서가 심심찮게 나돌고 있다니 구가리와 같은 과보를 받아도 좋단 말인가.

새싹불자를 위한 부처님 말씀

아는 것으로 남 업신여기면

아는 것이 조금 있다하여 스스로 뽐내면서 남을 업신여기면 마치 장님이 촛불을 든 것과 같아 남은 비추지만 자기를 밝히지는 못한다.
〈법구비유경〉

협찬 수국사
주지 자용
TEL.(02)356-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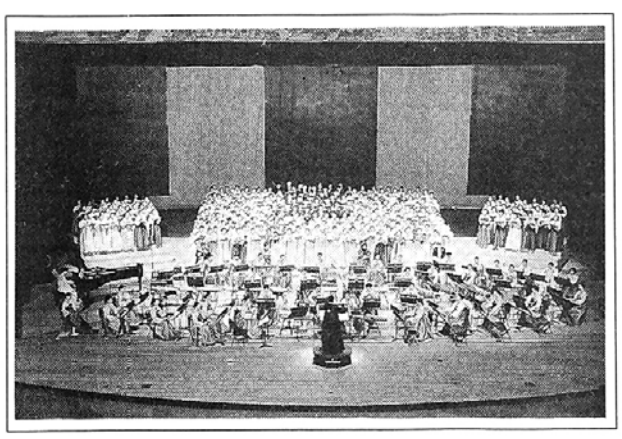
연말 불우 이웃 돕기

'96 광주 불교 합창 예술제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웃에게 전하는 마음으로 광주지역 5개 사찰 합창단이 한자리에 모여 음성 공양을 올립니다. 불자님의 가슴에 불음을 전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는 화합의 장으로 모십니다.

주최 : 광주불교 사암연합회
협찬 : 현대불교신문 광주 전남지사
후원 : 향림사, 증심사, 화엄사, 선덕사, 한마음선원
문의 : 광주불교사암연합회 376-3223~4
현대불교신문 광주지사 375-9986

일시 : 1996년 12월 17일(화) 오후 7시
장소 : 남도예술회관(도청앞)



▣ 행사에 도움을 주신 분들

동부요업(주)	대표 박문환	TEL : 0664-781-0987
김천유기상회	대표 김영호	TEL : 062-369-4848
2·7 자동차종합백화점	대표 성홍기	TEL : 062-371-2745
화신두루마기집	대표 이진우	TEL : 062-223-8910
범표신성기업	대표 김형수	TEL : 062-571-5566
일식전문 금송	대표 이금지	TEL : 062-222-0408
세화당한약방	대표 정갑봉	TEL : 062-225-3355
우신건축사무소	대표 문 근	TEL : 062-525-3130
현신종합건설(주)	대표 김완수	TEL : 062-941-3795
선덕사유치원	주지 행 법	TEL : 062-263-4160
천 종 사	대표 송창일	TEL : 0342-719-2253
LG프라자(신세계북구대리점)	대표 박상호	TEL : 062-525-7300
영 도(주)	대표 박원재	TEL : 062-651-5156

연 말 불 우 이웃 돕 기 '96 광 주 불 교 합 창 예 술 제

개별단체 '자율성 보장' 새 쟁점

조계종 신도회 활성화 세미나

조계종총무원은 내년 초파일 전까지 중앙신도회를 창립한다는 목표로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5일 현재 8개 교구신도회가 구성되었으며, 늦어도 올해 안에 15개 교구신도회를 구성해 중앙신도회 창립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이후 직장·직능 및 개별신도단체의 가입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0일 조계종 각급 신도회 구성추진실무단이 주최해 열린 신도회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별신도단체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종단체제에 편입시키느냐가 새로운 과제로 제기됐다.

현행신도법 개정요구에 추진단 '不可' 입장

중앙신도회 이탈땐 불자 역량 분산될 수도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조계종 각급신도회 구성추진실무단(단장 혜창·총무부장)이 주최한 '신도회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가 종단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조계종단 신도조직의 결성 원칙과 방향'(박희승·추진실무단 실무위원) '금강정사 신도회 현황과 활동사례'(이종현·금강정사 사무장) '신행단체의 결집방향과 과제'(최연·재가불자연합 집행위원장)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신도회 구성 경과를 알리고 신도단체들의 여론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계종 기획국장 황면스님, 이묘주 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재일 동산반야회장, 김동흔 경불련운영위원장, 이근식 삼보법회 회장, 조계사신도회 김재식 부회장, 정웅정 대불청 사무총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세미나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개별 신도단체들의 자율성보장을 위한 신도법 개정. 현행 신도법에 따르면 개별신도단체들은 모두 말사에, 지역조직은 교구본사에 소속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지스님의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다. 10개 지부 이상의 전국조직은 중앙신도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신도단체 대표자들은 한결같이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나아가 중앙신도회가 왜 필요하고, 개별신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은 무엇이냐며 근본적인 문제까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최연 재가불자연합 집행위원장은 '신행단체의 결집방향과 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개별신도단체를 단위사찰로, 지역단위 신도단체는 교구에 준하는 단체로 인정하고 종단에서 인정하는 포교사를 지도법사로 임명하여 법회 및 조직이 관리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신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단체의 전통과 특수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신행단체 대표자들의 지지를 얻었다.

이에 대해 추진실무단은 신도법 개정을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신도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얼마든지 개별신도단체의 자율성 보장과 중앙신도회 참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재와 같이 개별신도단체의 종단과 무관한 운영으로는 종단의 체계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후 개별 신도단체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면서도 조직의 체계성을 갖춘 중앙신도회 결성이 최대의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현행 신도법에 의해 개별단체의 사찰등록이 강행된다면 조계종 중앙신도회로부터의 이탈 또는 형식적 사찰등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불자들의 힘을 결집시킨다는 중앙신도회 구성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결과도 예상된다.

정성운 기자

"신도에 혜택주는 전략세우자"

조계종 본·말사 주지연수 '신도조직 활성화' 특강

사찰환경훼손 막기위해 '불교실천규범 사회화' 급선무



◇지광스님

조계종 교육원(원장 원산)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김천 직지사에서 개최한 전국본말사주지연수회에서 '신도조직 활성화 방안'과 '불교계 사찰환경보존대책'에 대한 강연이 곁들여져 주목을 받았다.

도심포교의 신화로 불리는 능인선원 주지 지광스님은 "현대는 시스템, 조직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찰은 조직이 전무한 상태로 조직에 관한 관념도 제대로 확립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땅을 불국토로 만들기 위해 먼저 신도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신도조직을 위한 전략으로 기업에서 쓰는 판매촉진전략 가운데 광고중심형 풀전략(Pull strategy·광고를 통해 물건을 사가도록하는 소극적전략)이 아닌 신도들에게 혜택을 주는 적극적인 푸쉬전략(Push strategy)을 제시했다.

스님은 또 "외형적 신도들을 엄격히 제도화된 조직에 흡수해 실질적 개념의 신도로 전환시키는 조직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조직의 형태로 '중앙최고-중간관리-실무소조직'을 제안했다.

끝으로 스님은 "세계적인 조직경영학자 빌 크리치가 주장한 조직구축을 위한 네가지 수칙은 곧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상구보리 하화중생'과 일치한다"며 이 수칙을 소개했다.

△조직구성원 모두에게 나의 현재에 대해 투철한 파악을 하게 한다 △자신의 약점과 단점에 대한 보완을 하게 한다 △그 같은 과정을 통해 터득된 것을 주변에 전달한다 △그 주변인들의 마음 가운데 한 식구라는 공동체 의식의 불꽃을 당긴다.

이어 '사찰환경훼손과 불교대책'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이영경교수(동국대 조경학과)는 "불교환경훼손은 개발 등 외부주체에 의한 훼손뿐아니라 각종불사에 따른 내부훼손도 무시할 수 없다"며 사찰에 의한 대표적인 환경훼손으로 산림파괴, 수질오염,사찰경관훼손을 들었다. 이교수는 내부훼손의 주요요인은 "불교자체가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과 자비를 바탕으로 하고 무소유적인 삶과 발우공양, 분소의 등의 친환경적 생활을 강조하는 종교임에도 불구하고,불교적 가치관이 실천규범으로 사회화하지 못했으며 불교계에서조차 불교적 환경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영경교수

이교수는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등 주요 사찰 강수의 산성도가 평균 5.6PH를 넘고 있어 이미 사찰의 대기오염이 시작됐다"며 "국내 석조유물의 95%를 차지하는 사찰의 화강암류 석조문화재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대웅전의 소음도 주거지역 환경기준치인 50d(A)를 초과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청정한 수행공간은 옛말이 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찰환경훼손에 대한 대책으로 이교수는 사찰별로 "대기보전 및 소음대책으로 유류를 이용한 난방보다는 전기나 가스 등을 이용하고 사찰내 자동차 출입제한과 경건한 사찰참배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사찰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처리를 위한 간이 정화시설 설치, 쇠망으로 음식찌꺼기 걸러내기, 쓰레기 퇴비화, 분뇨 정화 등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엽 기자

시론

아버지의 유산



정 준
〈소설가〉

지금부터 30여년 전.

필자가 중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의 이야기이다. 3월 어느 날에 수업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아버지의 급한 부탁을 받았다. 그때 아버지는 부산의 구덕산 자락 아래인 대신동 전차종점 부근에서 조그만 나전칠기 공방을 하고 계셨다. 교복을 입은 채로 공방으로 들어서던 나를 반갑게 맞으신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근처에 있는 빵집으로 들어 가셨다.

중년가장의 무거운 어깨

잠시 후. 탁자 위의 빵들이 거의 다 없어질 때쯤에야 비로소 아버지는 심중의 이야기를 나지막한 음성으로 차근차근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준아! 이제 너도 중학생이 되었으니 아버지의 이야기를 잘 새겨듣도록 해라."

그날 아버지의 모습에서는 유순하고 자상하시던 충청도 출신의 평소 태도와는 사뭇 다른 엄숙한 분위기가 잔뜩 배어 있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 역시 조금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준아! 네가 알다시피 아버지는 혈압이 몹시 높았다. 대전에 사시던 네 할아버지도 고혈압으로 쓰러져 많은 고생을 하다가 돌아가시지 않았니…."

그렇다. 아버지는 고혈압으로 4년 전에도 한 번 쓰러져 중풍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너는 우리 집의 장남이니, 만약 아버지가 잘못되면 네가 나머지 식구들을 보살펴야 한다. 아버지가 매일 새벽마다 국민학교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어린 너를 데리고 구덕산 숲속에서 무술을 가르쳤던 것도, 장남인 너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였단다."

나는 지난 7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아버지의 깍짓손에 이끌려 아직 어둠한 구덕산의 넓은 숲속에서 뛰고 굴리며 전통무술을 열심히 수련해야 했었다. "그러니 내일부터는 학교가 끝나는 대로 아버지 공방에 나와서 나전칠기 기술을 배우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나는 그 다음날부터 방과후에 공방의 어두운 뒷방에 쪼그려 앉아 나전칠기를 배우게 되었다.

그로부터 1년후 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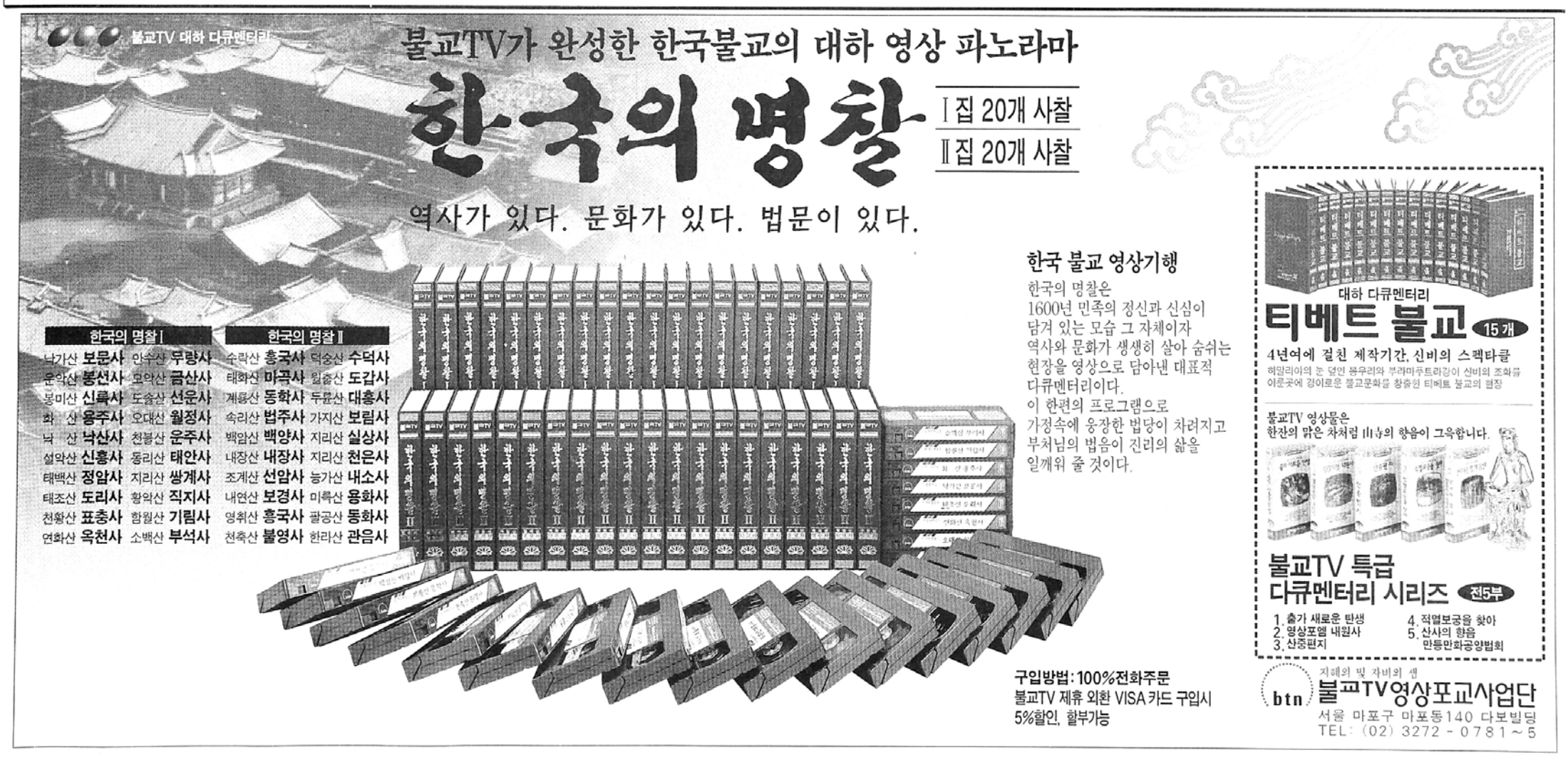
그 무덥던 염천 더위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다.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이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1주일 후에 아버지는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셨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느닷없는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었다. 왜냐하면 나전칠기 공방은 남의 빚을 얻어 꾸려나갔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는 재산은 커녕 오히려 많은 부채를 유산으로 상속받았기 때문이었다. 야속한 채권자들은 매일같이 우리 집으로 몰려와 전세방을 빼서라도 한시바삐 빚을 갚으라는 닥달을 계속했다. 설상가상으로 나는 몸을 장티푸스에 걸려 아버지의 싸늘한 시신 옆에 파리한 모습으로 맥없이 누워 있어야 했다. 본래 지병이 있었던 어머니는 아버지의 표연한 죽음으로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고, 국민학교 4학년과 1학년인 두 남동생과 이제 겨우 두 살 박이인 막내 여동생은 겁에 잔뜩질려 울부짖기만 했다. 초라한 장례식을 끝내고 간신히 정신을 추스린 나는 중학교를 중퇴하고 아버지의 당부대로 식구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소년 가장이 되어야 했다. 거센 폭풍우가 쉬지않고 몰아치던 지난 30여년을 보내면서 돈없는 설움에, 배고픈 설움에, 아버지 없는 설움에 눈물도 많이 흘렸다. 그러나 그 모진 세월동안 사회의 거센 탁류 속에서도 휩쓸려 없어지지 않고 나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빛나는 유산 덕분이다.

근면·건강·용기 '큰 재산'

종달새처럼 새벽 일찍 일어나는 근면성. 언제나 내 건강을 지켜준 전통무술. 마음에 쌓인 세속의 홍진을 훌훌 털면서 새로운 용기를 얻게해 준 등산.

마치 거대한 산처럼 내 앞길을 염려하고 지켜봐 주신 아버지로부터 나는 물질적인 유산보다 더욱 귀중한 정신적 유산을 물려받았다. 나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이 유산들을 대물림하기 위해 오늘 새벽에도 아직 초등학생인 두 아이들의 손을 잡고 관악산을 오른다. 요즘 한국 중년가장들의 어깨가 더없이 무겁다. 그러나 나는 굳게 믿는다. 내가 그랬듯이, 이 아이들도 내가 물려주는 유산으로 앞으로의 세상을 더욱 힘차게 헤쳐나갈 것을….



법회 안내

불심정사(02)977-0108

거사림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기초교리 매주 수 오전10시
금강경강의 매주 금 오전11시
참선 월~금요일 오후1시30분

혜진선원(032)693-3326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30분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30분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합창단법회 매주 화·금·토

예천포교원(0584)654-6788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중고생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청년회법회 매주 수 오후8시

영덕사(032)712-1765

석불회법회 1·3주 일 오전10시
청년회법회 매주 일 오후2시
학생회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연화어린이회 매주 일 오후2시

해동용궁사(0523)362-7744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0시

덕명사(062)365-0367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9시30분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후1시
청년부법회 1·3주 일 오후4시

법림사(062)234-2207

신중기도 매월 1일(음) 오전10시
미타법회 매월 7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참선정진법회
매월 첫째주 토 오후8시

천명사(062)234-6203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자비정사(062)234-0879

참회기도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거사림법회 첫째주 일 오전9시

대광사(062)222-4613

정기법회 매월 3일(음) 오전10시
중고생법회 매주 일 오전9시

마하연포교당(032)523-9911

가족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유마거사법회 매주 수 오후7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원각사(0394)523-9911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일반신도법회 일 오전10시30분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4월경 종정추대…종단조직 강화 힘쓸 터"

일붕선교종 4대 총무원장 무 찰 스님



"종단의 기틀을 다져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일붕선교종 제4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무찰스님(62·인천 동함사 주지)은 "비구·비구니단을 설립하고 선원 강원과 대중이 공부할 수 있는 교육도량을 마련하라는 일붕 서경보스님의 유지를 받들겠다"고 밝혔다.

서경보스님이후 공석이된 종정추대와 관련해 "63분의 종단 원로스님중에서 모신다는 것이 지난 11월 임시종회 결의였다"며 "내년 4월 종정스님을 추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스님은 종단의 내분과 관련해"앞으로 전국 17개교구를 중심으로 종단조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찰스님은 서울 성문사에서 찬우스님을 은사로 득도하여 법상종 총무원장 일붕문도회회장 인천불교연합회회장 일붕선교종 승정원장을 역임했다.

김원우 기자

"군 수행풍토 조성 청사진 기대하세요"

제23대 군승단장 취임 이 치 영 법사



"재임기간중 포교와 수행하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11월29일 제28주년 군승의 날 제23대 군승단장으로 취임한 이치영단장(대령·대전 교육사령부 법사)은 "법사단이 포교와 수행에 전념하도록하는 동시에 불타의 이념을 널리펴는데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이치영법사는 군불교진흥회와 힘을 합쳐 군법사 지원 및 군법당 건립에 최선을 다할 뿐아니라 수행풍토를 조성키위해 군승교육과 수련회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107개 군법당을 기초로 전국적인 조직을 굳건히해 군법사단의 활동을 강화하고 교계에서의 지위확보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내년 3월 군불교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겠다는 이치영법사는 1973년 공주 마곡사에서 진경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육군사관학교 3군사령부 국방부법사를 거쳤다. 이법사는 현재 교육사령부 법사로 있으며 95년 대령으로 진급했다. 〈원〉

게시판

모집 자원봉사=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97년 1월 11~13일 2박3일동안 수행과 자원봉사를 겸하게 되는 이번 봉사단은 선착순 1백40명이 정원이며 참가비는 2만원이다. (051)464-2020

간병인 및 호스피스=바라밀간병인협회(원장 효종스님)는 주부 및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간병인 및 호스피스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60명. (051)633-6412

화엄학림=실상사(주지 도법스님) 화엄학림은 오는 2월 25일까지 비구로서 기본교육기관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제3기 학인을 모집한다. 교과목은 화엄학개론, 화엄현담, 화엄본경, 화엄사상사 등이며, 전형일시는 1997년 3월 5일 오후1시 실상사. (0671)34-3860

후원자=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후스님)은 생활고로 힘들어 하는 무의탁독거노인에게 연탄, 기름, 가스 등을 지원키로 하고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참여방법은 1구좌에 5,000원. (02)852-0525

장애아동=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지하스님)은 내년 1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 주간보호센터의 장애아동을 모집한다. 대상은 취학전 장애아동이면 누구나 가능. 이용시간은 월~금 오전9시~오후6시 (02)928-0750

강좌 기초교리·문화=조계사(주지 현근)는 문화강좌를 개설, 수강생을 모집한다. 기초교리반은 1월 11일 개강하며 매주 목·금요일 주간 2시~3시30분, 야간 7시~8시30분 실시된다. 문화강좌로는 불교그리기 서예 다도 수지침 등 12개 강좌가 개설된다. 1월 6일 개강. (02)720-1390

송년모임 조계종총무원=문화사회부와 복지재단은 오는 22일 오후6시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불교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위안의 밤을 개최한다. (02)737-9684

대불련총동문회=대불(회장 명호근)은 오는 16일 오전10시 조계종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송년법회를 봉행한다. (02)723-9811

중리종합사회복지관=마산 중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흥)은 오는 27일 오후6시 사보 이호텔에서 후원의 밤을 갖는다. (0551)32-8017

세계자원봉사자의 날 대통령·장관표창



장 기 백(50·위) 권대자(53)씨가 지난 5일 농협협동조합중앙회에서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회장 강영훈)가 개최한 세계자원봉사자의날 행사에서 대통령표창과 내무부장관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불자 장기백·권대자씨는 전국 교도소 재소자 교화위원회 교화위원으로 재소들의 수감생활을 보살필 뿐만아니라 출소후 계도하고 지원해 건전한 시민으로 정착하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공로가 인정됐다.

교차로

조선족돕기 모금운동 선포



월주 조계종총무원장은 지난 4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가 펼치는 '조선족사기피해자보상을 위한 범국민운동' 선포식을 갖고, 성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원효 '법화경 종요' 강의



운제 원효연구원장스님은 오는 14일부터 1년동안 매월 둘째·셋째 주 토요일 오후3시부터 원효스님의 〈법화경종요〉를 원효연구원 (02-723-0425)에서 강의한다.

인도네팔 8대 성지순례

홍파 관음종 총무원장은 지난 3일 총무원 문화사회부장 등 32명과 불교 8대 성지 순례차 인도와 네팔을 방문하고 오는 17일 귀국할 예정이다.



가릉빈가 합창단 10돌 공연



성관 수원포교당주지(조계종 총무원 문화사회부장)는 지난 3일 경기문화예술회관에서 가릉빈가 합창단 창단 10주년 기념공연을 펼쳤다. 이날 공연에서는 창작국악교성곡 '불밭에 피는 꽃'이 공연됐다.

동해시 번영회서 법문

원행 삼화사주지(조계종 종회의원)는 지난 5일 동해시 국빈호텔에서 개최된 동해시 번영회 연말 정기총회에 초청돼 '환경보존과 민족문화수호'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인천불교련 회장 피선



도해 능해 정사주지는 지난 11월 30일 제20회 인천불교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새 회장으로 선출됐다.

마하사 1돌기념 초청강연



증월 마하사주지는 마하사 개원 1주년을 맞아 오는 15일과 22일 오전10시 지관 가산불교 문화원장 스님과 송석구 동국대 총장을 초청, 기념법회를 갖는다. 지관스님은 '대승불교와 보살사상' 송총장은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불교사상'을 주제로 각각 강연한다. (0344)912-5108

사찰음식짜 개원4돌 법회

적문 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 소장스님은 연구소 개원 4주년을 맞아 지난 6일 금륜정사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해인총림대책위 집행위장

동운 해인강원 사교반 스님은 지난 11월 25일 해인강원 졸업을 앞둔 지산스님 후임으로 해인골프장건설저지 해인총림대책위 신임집행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부산여대총장 취임

김용태 부산여대 국문과 교수는 지난 5일 부산여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김교수는 불교문인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화엄사상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자원봉사 축제서 봉사상

김향화 부산대각불교청년회장은 지난 5일 중앙일보와 KBS가 공동주최한 제3회 부산자원봉사축제에서 부산지역 대표로 봉사상을 수상했다. 김씨는 지난 10년간 천마재활원 원생들의 생일잔치를 마련해 왔다.

한국시문학상 시조 대상

이혜옥 설법연구원 편집부장은 지난 8일 노산문학회·월간 한국시사가 주관하는 '제7회 한국시 문학상' 시조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남자 최우수선수 선정

후루오카마라톤을 제대한 불자 이봉주선수가 지난 2일 체육기자연맹이 선정한 올해의 체육대상 남자최우수선수로 뽑혔다.



◇좌로부터 홍윤식 조해형 송석구씨 월주 인곡 태응스님

종단협 '한중일대회' 감사패 증정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는 지난 4일 조계종 총무원장실에서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서울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따른 감사패와 공로패 증정식을 가졌다.

이날 종단협은 동국대 송석구총장과 btn사장 태응스님, BBS 조해형사장에게 감사패를, 홍윤식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장에게 공로패를 각각 증정했다.



덕숭총림 수덕사 승가대학 현판식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법장)는 지난 11월 30일 승가대학 현판식을 봉행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방장 원담, 화계사 조실 숭산, 조계종 종회의장 설정, 수덕사주지 법장스님 등이 참석했다. 초대학장 법장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수덕사가 명실상부한 총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미·사미니를 통합한 종합교육도량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안사암련 불자장병 수계식

천안시 불교사암연합회(회장 대원)는 지난 1일 육군 제5291 부대에서 불자장병합동 수계식을 봉행했다.

60여명의 불자장병이 5계를 수지한 이날 법회에서 대원스님은 "계행을 지키는 것은 부처님의 행이요 깨달음의 행을 닦아가는 것이니 부처님공덕을 마음에서 이뤄 바른 수행을 해 나가라"고 격려했다.



구미불교신행단체 송년의 밤 행사

구미불교신행단체 송년의 밤이 지난 4일 구미관광호텔 연회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법등스님(구미사암연합회장 직지사기획실장)을 비롯 정휴스님 최용현 총장(구미금오공대) 문대식회장(구미신도회) 남효채부시장 이진택교육장 구교찬경찰서장 등 사부대중 2백50여명이 참석했다.

小說

彼岸에의 길

마침내 빠져들고야 마는
화엄의 세계

미녀가 부르는 유혹의 노래는
욕정으로 중생을 물들이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열반의 꽃!
당신은 과연 진정한
불자인가? 탕자인가?
이 책을 보신 후 느껴보십시오.

만다라
曼 茶 羅
전 6권

대하드라마 전6권
절찬 판매중

태초 불교의 원류로부터
참된 종교, 참된 인생의 길을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
진정한 生의 의미를 던져주는
불교 소설의 쾌거!!

한국 문단의 중견작가
권오석 선생 최고의 역작!

1 색즉시공 色卽是空
2 공즉시색 空卽是色
3 진공묘유 眞空妙有
4 일체법공 一切法空
5 반야대오 般若大悟
6 대도무문 大道無門



權五奭 著/ 신국판/ 전6권/ 값 각 5,000원

明文堂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8
TEL : 733-3039 FAX : 734-9209

大河佛敎歷史小說

공허한 구름

전 5권

혼돈과 절규속에 펼쳐지는 중국의 근대사,
허운 노화상! 그는 누구인가?

중생을 구제하는 진정한 구도자인가?
시대를 창조하는 개혁의 선구자인가?

불교소설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이 소설은
진정한 진리와 종교철학의 최고의 경지를 느끼게 합니다.
과연 불교의 참진리는 무엇이며 또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뒤돌아 보게하는 시대를 반영한 철학적 불교소설!!



허운 노화상!

그는 이 시대의 보잘것 없는 인물이며, 그는 시대를 벗어날 수 없었고
시대를 초월할 수도 없었으며 시대의 창조자 역시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사악한 시대의 격류에 굴복하지 않았고 영원히 하나의 강한 의지로
진리를 추구하였으며 영원히 꾸준하게 힘을 다하여 정의를 지켰고
인류의 숭고한 이상을 발양시켰다.

馮馮 著/曾誠佑 譯/ 신국판/ 값 각 6,000원

明文堂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8
TEL : 733-3039 FAX : 734-9209

"車정비·마음정비 둘이 아니죠"

산문밖의 禪

자동차정비 20년 김 태 준 씨



아무리 복잡해도 구조알면 쉽게고쳐
'기름쟁이' 냉대 아랑곳 공구와 씨름
칭찬에 빠지지않고 '최고' 향해 정진
진정한 신사는 직업에 충실한 사람
"절망 순간마다 인내가 힘이고 희망"

"자동차를 정비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자동차는 현대인의 다리이기 때문에 정비를 잘못하면 인간의 활동을 묶거나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고장난 차를 정확히 진단하고 하나씩 풀어 정비할때는 모든 잡념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자동차의 구조는 복잡할 뿐만 아니라 섬세해서 인체에 비유할 만합니다. 나사를 느슨하게 조인다거나 빠뜨리는 것은 수술을 잘못하는 의사와 같은 것입니다."

자동차 정비분야에 대해 이렇다할 체계와 이론이 없었던 시절, 여러 공업사를 전전하며 어깨너머로 실무를 배워 이제는 자동차정비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김태준씨(41·한일자동차 공업사 공장장).

김씨는 1975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자동차 정비업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 당시만 해도 기능인들을 '공돌이' '기름쟁이'로 냉대했던 시절이다. 하지만 그는 자동차정비업이 가장 장래성이 밝고 노력의 대가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주위에 평탄하게 밟고 지날길이 많은데 하필이면 그 길만을 고집하느냐"며 손내밀어 주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동차정비만이 운명인듯 묵묵히 험한 길을 택했다. 그가 택한 길은 여느길처럼 깨끗하게 닦여있지도 전망이 좋지도 않았다. 그가 지났기에 비로소 길이 되어버린 아주 척박한 땅이었을 뿐이다.

자동차정비사가 되기 위한 첫 관문은 공구들과의 씨름이다. 수십종의 공구 이름과 사이즈를 외우는 일은 예삿일이 아니었다. 대부분 처음보는 공구이고 모양도 비슷비슷해 눈대중으로 쉽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구의 이름을 외우는 것은 갓난아이가 말을 배우는 것처럼 정비업계에서 일을 하려면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는 선배의 꽁무니를 쫄쫄 따라다니며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우려면 '연장 심부름'이라도 척척할 줄 알아야 했다. 이같은 견습생활을 1년이상 겪어야 비로소 자동차에 손을 댈 수 있었다.

"공구통을 놓고 처음 차를 만지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대수롭지 않은 고장이었는데 막상 차를 정비해 보니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더군요. 하루종일 차와 씨름했지요. 하지만 햇병아리 정비사시절 자동차를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보람은 무엇과도 바꿀수 없었습니다."

불품없었던 그의 길은 웬만큼 모습이 갖춰졌고 하나둘 뒤따르는 이가 생겨나자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훌륭하다고 칭찬을 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환대에 안주하지 않았다. 김씨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박수와 칭찬이 아니라 자동차정비업계에서는 '최고'가 되는 길이였으므로 헤픈 찬사나 도움의 손길을 받으면서 안주할 수는 없었다.

"처음 자동차정비업계에 입문할때만해도 포니, 브리샤 등을 비롯 몇 종류 안됐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하루가 멀다하고 신종차들이 쏟아져 나와 자동차구조는 복잡해지고 부품도 세밀화돼 하루라도 공부를 안하면 정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김씨는 새 차종이 나올때마다 자동차의 구조를 익힌다. 이러한 과정은 그의 삶이 되었고 철학이 되었다.

공장장 김태진. 이 직함은 지난 20년간 기름때 묻은 의지에서 잠을 설치며 살아왔던 고단한 삶에 대해 이 사회가 주는 유일한 선물이다. 하지만 자동차정비업계에 입문해 공장장이 되기까지 그의 삶에는 기쁨보다 절망의 순간이 더 많았다. 그때마다 김씨는 어금니를 악물고 "이런 정도는 참을 수 있다"며 과정보다 결과를 향해 매진해왔다. 또한 김씨가 절망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의 영향도 컸다. "불법을 알게되면서 인내를 배웠습니다. 마음과 정비는 둘이 아니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마음이 안정될때는 자동차와 무언의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마음이 불안할때에는 자동차가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도저히 알 수 없더라구요."

한 사람이 자기분야에서 '최고'라는 직함을 얻는다는 것은 더이상 바랄것이 없을것이다. 하지만 김씨의 심정은 여전히 담담하기만 하다.

"후배들을 보면 부끄럽습니다. 먼저 이 길을 지나온 선배로서 후배들을 위해 좀더 나은 토양을 다져 놓아야 하는데 기능인을 푸대접하는 사회분위기는 여전하더군요. 중요한 것은 우리 같은 기름쟁이들이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지요."

김씨에게는 요즈음 또다른 철학이 생겼다. 기술력과 서비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물론 뚜렷한 기술력과 함께 철저한 서비스정신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고 서비스가 훌륭하다고 해도 순수한 마음이 없다면 모두 물거품이고 허깨비와 같다는 것이다. 감사의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

"단순히 업소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손님을 대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우매한 행동"이라고 말하는 김씨는 손님을 도반처럼 터 놓고 지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자동차를 정비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자동차를 인간을 위한 하나의 도구나 쇠붙이로 생각하지 말고 아내보다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비로소 프로 정비사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그는 믿고 있다.

김씨는 정비사로서의 책임감과 함께 자존심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동차는 첨단 메카니즘의 결정체다. 현대과학문명의 총아인 자동차를 고치는 정비사는 최고급기술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스스로의 긍지를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름묻은 작업복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넥타이를 맨 사람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진짜 신사는 넥타이를 맨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과 직업에 충실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김중근 기자

놓고가면 참선도 필요없는지…

문 제 나름대로 10년 가까이 불법공부를 해왔습니다. 어느 때는 산에 가서 며칠씩 참선도 해보았고 혼자서 철야정진도 했습니다. 스님께서는 놓고가는 공부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참선을 하지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황한태·서울 서초구 서초동〉

답 누가 참선을 하지말라, 해서는 안된다 하던가요. 사람들은 참선을 한다면서 그저 몸을 도사리고 앉아 있는데 참선이란 몸수행이 아니라 마음수행입니다. 사찰에서 참선을 가르치는 걸 틀리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참선이 앉는 자세를 가르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그냥 자리를 고 앉았는 것을 참선으로 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면 선은 끊어지는게 되겠지요. 참선이란 앉았는 것도 섰는 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마조도일선사와 남악회향선사가 기왓장 가는 얘기를 나눈 예를 아실 것입니다. 부처를 이루려고 앉아 있노라 하니까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말아야 선이 끊어지지 않지 밥먹느라 일어나고 소변보느라고 일어나면 부처는 되다마느냐고 했답니다.

부처님께서나 역대조사님들이 가르치고자 하신 것은 마음 본바탕을 밝혀 자신을 알라고 한 것이지 어떤 방법을 강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하고, 물락 놓으라고 하는 것은 진짜 참선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분은 산에 가야 공부가 된다고 하는데 산골에만 부처가 있고 산골에서 나오면 부처가 없습니까? 자기 마음을 깨달아야 부처마음을 압니다.

불교와 기독교, 무엇이 다른지요

문 저는 기독교도 조금 알고 불교도 조금 압니다. 제가 아는 바로 말씀드리자면 기독교는 하느님의 구원을 받는 사상이고 불교는 자아완성에 이르는 과정을 깨쳐서 해탈의 경지로 나아가는 가르침이다, 그렇게 봅니다. 결국 가고자하는 목적지는 같은데 방법상에서 하나는 위에서부터, 하나는 아래서부터 다가가는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김구상·부산시 남구 대연동〉

답 누구나 다 불성을 지녔다는 가르침은 잘 아실 것입니다. 자아완성이란 나 자신부터 알라는 것이고 나를 알므로써 광대무변한 제법의 실상을 알게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대상에 의지하고 거기에다 모든 걸 밀어 놓고, 자기가 죄를 지었어도 그냥 '하느님 아버지'에다 밀어 놓고 산다면 마음이 편안할지는 모르지만 자기를 발견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편안은 얻을 수 있어도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 왜냐?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지 누가 대신해 주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쉽게 자력종교다 타력종교다 말하지만 그 차이가, 그 백지한장 같은 차이가 천지간으로 벌어집니다. 근본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자기가 한 일, 자기가 아는 것은 우주법계에서 다 알고 있으니 속일 수도 감출 수도 없습니다. 남에게 전가할 수도 없고…. 우주와 내가 직결이 되어있는데 떠넘길 곳이 어디 있어서 떠넘기겠습니까. 내가 내 죄를 고한다 하면 그로인해 내 마음이 편해질지는 모르지요. 그러나 그것도 내가 짓는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자기부터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알면 그냥 마음가는대로 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공이지요. 여러가지로 공부하는 방법을 죽- 벌여놓긴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기위해 세워놓으신 것도 하나도 세울게 없다, 그게 부처님법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 마음공부라는 것은 지름길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이 마음 빼어놓고는 달리 길이 없다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교란 사람이 세상에 나고나서 생긴 것이고, 사람들이 좀 더 사람답게 되라고,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해서 가르치고자 생긴 것인데 사람이 되기는 커녕 종교를 가지고 서로 패를 가르지 않나 전쟁을 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 종교란 있으나마나가 되는 경우도 많고 때로는 더 해를 끼치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종교가 옳으냐, 어느게 우수하냐는 것을 떠나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먼저 마음의 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보는 피할 수 없습니까

문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재난을 겪게 되는 것은 결국 스스로 깨우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보는 피해갈 수 없다고 했으니 정면으로 맞닥트리는게 바른 자세가 아닌지요.〈호경문·인천 남동구 고잔동〉

답 과거에 내가 짓고 입력해 놓은 것은 몽땅 현재의 내 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비문서를 짊어지고 나왔다고 합니다만 그게 현재 내 마음의 컴퓨터에 모조리 입력되어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입력된 위에 다시 새 것을 입력하면 어떻게 되겠느냐하는 점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과거에 지은 것은 지은대로 나오겠지만 나오는 것은 몽땅 다시 내 마음의 용광로에 쓸어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쇠로 넣으면 무쇠로 재생이 되어 나올 것이고 금으로 바꿔 넣으면 금으로 재생이 되어 나오겠지요? 부처님께서 말로 가르치고 경전으로 남겨져 글로 가르치게 된 것은 다 되넣는 공부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상상담 —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하이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청소년 심성교육을 위해 집집마다

자비동자모시기 운동

(청소년 회관건립기금)



※ 전화주문시 우편배달해 드립니다.
각 은행 농협 우체국
지로번호 7626665 바라밀

청소년은 나라의 보배, 청소년은 우리들의 후계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밝고 맑은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멋스러운 심성을 갖도록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책상, 응접실 벽에 걸린 한 점의 자비동자를 보고 사랑의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갖고 사회를 위해 자비를 포용할 수 있는 불교청소년이 되어 사회가 필요한 일꾼을 만드는 것이 좋은 가정을 꾸밈이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끄는 가정보살은 부모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훌륭한 청소년을 키우는데 바치기위해 **효종스님**(바라밀포교원장) 온갖 정성을 다하여 그린 자비동자를 가정마다 애기동자모시기 운동을 벌여 청소년들의 심성교육에 앞장서기로 했으며, 여기서 모여진 성금은 전액 **청소년회관건립기금**으로 사용되게 원을 세웠습니다.
성장하는 아들, 딸들에게 밝은 얼굴, 밝은 모습, 아름다운 마음,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성원하오니 자비동자 한 점씩 모시기 운동에 꼭 동참을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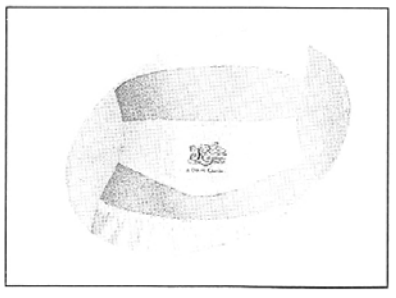
불자간병인을 원하십니까?

유료간병인을 쓰실분은 대한불교 바라밀 간병인협회로 연락주십시오.
고통받는 환자를 부처님 공경하듯 정성껏 간호해 드리겠습니다.

■ 주 최 : 대한불교 청소년 교화연합회 부설 : 바라밀간병인 협회
■ 자비동자 한점 20,000원
■ 부산지부 : (051)633-6412~3 FAX : (051)631-3884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 두통·생리 (송파구 이 남 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차 아는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팩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日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로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



◇ '일제 지정문화재 재평가작업'을 결산하는 세미나가 지난 3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렸다.

日 약탈문화재 70% 불교유산

일제문화재정책 평가 세미나

사찰문화재를 비롯해 일제는 우리 문화재를 어떻게 얼마나 약탈하고 파괴했는가. 지난 3일 문화재관리국 주최로 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일제 지정문화재 재평가작업'을 결산하는 '일제의 문화재정책 평가 세미나'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이들 약탈 문화재중 70%이상이 불교 문화재. 우선 일제의 대량도굴로 석굴암 주존여래불과 그 연화대좌의 파괴, 굴내에서의 대리석오층석탑 밀반출 사실이 제시됐다. 또 불국사 고려사리탑과 다보탑석사자 밀반출 등 일제초기의 불법약탈행위는 모두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 황수영 박사의 설명이다.

일제는 1911년 사찰령을 공포하고 본격적인 문화재침탈을 시작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악랄한 행위는 1943년 합천 해인사사명대사석장비, 고성 건봉사사명대사기적비 등 20여건의 사적비를 '반시국적 고적'이라고 하여 파괴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사찰 전적(典籍)과 회화의 유출 역시 엄청나다. 고려초조대장경과 속장경을 비롯해 대반야경 등의 불서 사급(賜給)과 열가로 무차별 수집행위를 자행했다. 회화는 이보다 더욱 심각하다. 전세계에 산재해 있는 고려불화 1백40점중 110점이 현재 일본에 있을 정도로 고려불화에 대한 일제의 수탈은 철저했다. 또 조선전기 불화로 일본에 전해지고 있는 것은 69점 정도로 집계된 적이 있으나, 전문가들은 실제로 3백여점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사적 파괴 지시 총독부 문서 최초 공개

석불훼손·전적·불화 수탈유출도 밝혀

"자기수행공덕 이웃위해 회향"

교수불자련 '깨달음의 사회화 어떻게…'

조계종(총무원장 월주) 개혁종단은 2년전 출범하면서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이하 깨사운동)'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깨사운동은 아직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아 운동의 주체와 객체, 내용과 방향 등이 뚜렷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중성 조직성 지속성의 문제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 10일 동국대 학술문화관에서는 이러한 깨사운동의 교리사상·사회과학·복지정책·실천운동적 측면에서 이론적인 지침을 제시한 학술대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연기영교수


◇박경준교수


◇류승무교수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오상환 인하대교수)가 주최한 '깨달음의 사회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란 주제의 학술대회에는 종단차원의 불교운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열띤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박선영(동국대)교수의 '깨달음의 사회화의 과제'란 기조발제를 비롯 박경준(동국대) 류승무(승가대) 황진수(한성대) 연기영(동국대)교수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주제발표 끝에는 곽만연(동아대)교수 효림(보광사 주지) 성관(조계종 문화사회부장) 법륜(한국JTS대표)스님이 각각 토론자로 나섰다.

기조발제에서 박선영교수는 깨사운동을 한마디로 '회향(廻向)사상의 사회적 구현'이라고 정의, 단순한 사회운동의 차원을 넘어서서 불교적 종교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깨사운동'의 불교 교학적 근거로 회자향타(廻自向他·자신의 수행이나 공덕을 다른 중생을 위해 회향하는 것) 회소향타(廻少向他·되도록이면 많은 중생에게 회향하려고 하는 것) 회자인행향타인행(廻自因行向他因行·자기의 인행을 다른 중생의 인행으로 회향하는 것)을 열거하고 이는 곧 '불교의 사회적 환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경준교수는 교리사상적 측면에서 소승·대승경전 속에서 깨사운동의 이념과 사상적 근거를 불교의 평등·자비·복지·평화사상 등으로 보았다.

류승무교수와 황진수교수는 사회과학·복지정책적 측면에서 각각 조명했다. 류교수는 깨사운동이 위로부터의 운동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전제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물적 토대 확보와 정치적 역량, 대중적인 참여 유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교수는 불교의 대자대비사상을 중심으로 불교복지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깨사운동을 통한 의식혁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연기영교수는 실천운동적 측면에서 깨사운동을 다뤘다. 연교수는 "부처님은 자유와 평등에 바탕을 둔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의 선구자였다"며 깨사운동의 맥이 인간의 고통과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불교운동으로 유지되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아시아 각국의 참여·실천불교의 현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한국 근·현대사로 전개되어 온 불교운동의 흐름을 깨사운동적 측면에서 조명, 깨사운동의 생활화 대중화를 강조하는 실천적 과제를 제시했다.

김재경 기자

"부처님은 자유·평화 바탕 '깨·사운동' 선구자"

국민참여 유도 강화로 불법 생활화·대중화

美 버클리大 '한국학자료 산실'

서지학회, 희귀전적·탁본 4천1백여점 찾아내

인각사보각국사정조탑비(麟角寺普覺國師精照塔碑) 등 국내에는 없거나 희귀한 탁본 등의 방대한 분량의 한국학 연구자료를 미국 샌프란시스코 버클리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서지학회는 지난 95년 7월부터 한달동안 조사를 실시, 이 대학 동아세아도서관 아사미(淺見)문고에서 전적 837종 4011책, 탁본 155종 등 희귀자료를 찾아내고 최근 '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이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출간하면서 이를 공개했다.

이 조사에서 확인된 자료중 삼국 및 고려시대의 초기 탁본을 비롯한 고탁본 155점은 우리나라 금석학과 역사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또 인조실록자본(仁祖實錄字本) 등 249종의 활자는 조선시대의 인쇄문화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사미 문고에는 조선시대의 치산치수 정책, 당쟁사, 풍속사, 법제사 등의 자료가 폭넓게 산재해 있으며, 이들 자료들은 버클리대학이 50년 일본 미쓰이(三井) 물산에서 구입한 것들이다.

막스베버 불교연구 오류는 무엇인가

"대승불교 신비주의로 잘못해석"

류승무교수 '학문적 비판' …분석 능력 부족 지적


◇막스 베버

서구의 사회과학계에서 동양종교에 관한 가장 뛰어난 연구업적을 자랑하는 막스 베버(독일·1864~1920)는 불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불교에 관한 그의 연구의 오류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베버의 대승불교 연구에 관한 국내의 학문적 비판과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류승무교수(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가 '중앙승가대학 교수논문집' 제5집에 기고한 논문 '베버의 대승불교 해석에 관한 비판적 이해'는 베버의 대승불교 연구에 대한 한계점을 명확히 지적한 것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을 만하다.

류교수가 설명한 바에 의하면 베버는 첫째, 사회구조적 조건에 따른 대승불교의 적응과정을 △세속에서의 경제적 생존조건에 대한 적응 △고난에서 구세주를 바라는 평신도들의 욕구에 대한 적응 △지식인 계층의 신학적 사변적 욕구에 대한 적응으로 보고 있다.

둘째로는 신학적 기초에서 유식이론의 발달을 지적하고, 여기에 보살의 개념이나 부처의 초자연적 성격이 결합하는 등 대승불교의 이념구조가 신비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셋째는 대승불교가 이러한 신비주의적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속을 '마술의 정원'으로 만들고, 세속 내에서의 합리적인 생활양식을 발전시키는 윤리로 작용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베버의 대승불교연구는 불교사상이 사회구조적 조건에 따라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철저하게 분석, 치밀함과 설득력을 보이고 있음에도 동양문명에 관한 부정적 문화관이 전제되는 등의 일정한 제한성을 지닐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유교수의 주장이다.

류교수는 먼저 베버의 불교관에 대한 오류 몇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베버의 동양사회론이 오늘날처럼 경제발전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데 난점을 지니고 있고, 둘째는 '업사상'을 인간의 노력에 의해 극복되는 것이 아닌 자연주의적 결정성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셋째 세간과 출세간을 단절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는 대승불교, 특히 구원론을 일반과의 단절적 관계로 보고 있다는 점 등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승불교에 관한 베버의 오류로는 △보살사상으로부터 부처가 초자연적이고 비인격적인 신의 승화로 보고 있고 △세속을 초월하거나 세속과 대립하는 윤리를 신비적이거나 주술적으로 간주하고 △동아시아 각 나라에 정착된 대승불교가 저마다 약간의 차이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이를 단일한 모습으로 보는 명확한 역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우〉

불상조성기 새긴 신라금석문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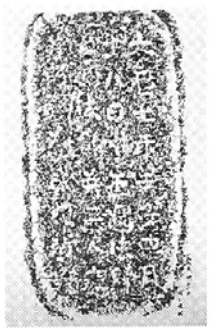
하일식씨 창녕 관룡사서

8세기 후반 경남 창녕지역에서 미륵불상을 만든 뒤 그 내용을 기록한 금석문(불상조성기)이 새로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일식씨(연세대 강사)는 최근 창녕읍 소재 관룡사 약사전 안에 있는 석불 대좌의 중대석(中臺石) 안상(眼象·코끼리 눈의 장식 모양)안에 새겨져 있는 불상조성기를 지난 4월 발견, 네차례의 정밀조사를 거친 끝에 26자를 판독해 냈다고 밝혔다.

총 32글자가 새겨져 있는 불상조성기(13×26㎝)중 하씨가 판독해 낸 것은 모두 26자. 하씨는 이를 '대력칠년임자사월(大曆七年壬子四月) 십팔일중불환법사(十八日中不還法師) □□법사병이인응(法師幷二人應) □□□□성내미륵(成內彌勒)'으로 판독하고 '대력 7년 4월18일 불환법사와 □□법사 모두 2인이 …에 따라 미륵을 이루었다'고 해석했다.

여기에는 불상조성 연도가 '대력7년임자'(大曆七年壬子·신라 혜공왕 8년에 해당)로 명확히 밝혀져 있다. 또 이 자료는 우리말 어순에 따라 이두문으로 작성된 것으로 '성내'(成內)는 '이루다' '만들다'라는 뜻으로 흔히 사용된 이두식 표현이다.


◇발견된 8세기 금석문

이번에 발견된 미륵불상조성기는 같은 시대인 8세기대의 불상조성기중 학계에 보고된 것이 5편 내외일 정도로 가치가 있고, 비록 글자수가 32자에 불과하지만 신라 이두문에 대한 또하나의 사료를 보탰다는 점과, 현재의 창녕에서 두 명의 승려에 의해 미륵불상이 만들어진 사실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논문집 '불교와 사회복지' 창간

중앙승가대 불교사회복지硏

중앙승가대 불교사회복지연구소(소장 보각)가 최근 논문집 '불교와 사회복지' 창간호를 펴냈다.

노인복지에 관한 논문 9편이 실린 이번 논문집에서 권경임씨(승가대 사회복지학 강사)는 논문 '불교의 노인복지사상 일고찰(一考察)'에서 인간 욕망의 지속적인 충족을 목표로 하는 일반 사회복지와는 달리 불교의 사회복지는 내적 갈등이나 욕망으로부터의 해탈을 목표로 하는 정신적 복지까지도 강조하는 근원적 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노인문제에 대한 인식 역시 이같은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권씨는 특히 불교의 효사상 이야말로 현대사회에 맞는 새로운 '효' 개념을 정립함에 있어 가장 적절한 것이며, 노인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인복지사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혜도스님(승가대 사회복지학 교수)은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관념과 호스피스 환자들의 태도유형 고찰'에서 한국 호스피스운동에 불교가 공헌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 자비사상을 실천할 수 있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21세기를 • 이끌어갈 • 선재를 • 찾습니다

1997학년도 법사원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모집인원 : 불교과 ○○명(통신과정 2년제)
2. 입학자격 : 불교과 - 고졸이상의 학력자, 동등 학력자
3.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6년 11월 20일부터 1997년 2월 25일 18:00까지
4. 전형방법 : 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지) 전형료: 20,000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본대학 소정양식)
   주민등록등본 1통
   최종학력증명서 1통
   반명함사진 5매
6. 등 록 금 : 학기당 350,000원(교과서, 강의테이프 각 과목당 5개씩 고급케이스 우송료 포함)

■특전
1)불교과 졸업후 법사고시 합격자에 한해 법사증 수여
2)각종 장학제도 마련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는 장학금을 지급함.
3)사찰 및 포교당 개설시에 행정지원, 법사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대학 교육부에 문의바람.

본 불교대학은 통신과정으로 직장인 및 거리상의 문제로 공부를 미루어 온 여러분께 희소식인 통신과정 불교대학입니다. 본 대학 교육과정은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교수님들이 불교학의 정수를 가려 뽑은 교재를 만들어 최신 기기로 녹음하여 수학의 성취를 높히고 있습니다.

△ 교계 정예포교 지도자 양성목적으로 설립함.
△ 대중불교운동과 포교능력배양을 위한 최고의 교과 과정과 강사진
△ 저렴한 학비로 信·解·行과 복덕이 원만한 지도자 배양

교육과정 및 과목

1학년

	과목	교수
1학기	불타의생애	목정배(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종교학	강한배(동국대교수)
	인도문학(철학)	신성현(동국대강사)
	불교개론	해주스님(동국대교수)
	법구경	목정배(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42장경	목정배(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2학기	불전개설	목정배(동국대불교대학원 원장)
	인도불교사	전세성(한국불교대 교수)
	한국불교사회학	이동준(전 동국대 강사, 출가)
	중국철학사상	차차석(동국대 강사)
	유마경	목정배(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금강경	목정배(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2학년

	과목	교수
1학기	원시불교개설	조용길(동국대 교수)
	대승불교개설	권기승(동국대 교수)
	불교와사회	박경준(동국대 교수)
	한국불교사상개설	목정배(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법화경	목정배(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승만경	목정배(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육조단경	목정배(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2학기	중국불교사	차차석(동국대 강사)
	불교계율사상	목정배(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불교포교학	김호성(동국대 강사)
	대승불교보살사상	계한스님 (동국대 교수)
	원각경	목정배(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화엄경	목정배(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범망경	목정배(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1,2학년 공동 특강	반야심경	목정배(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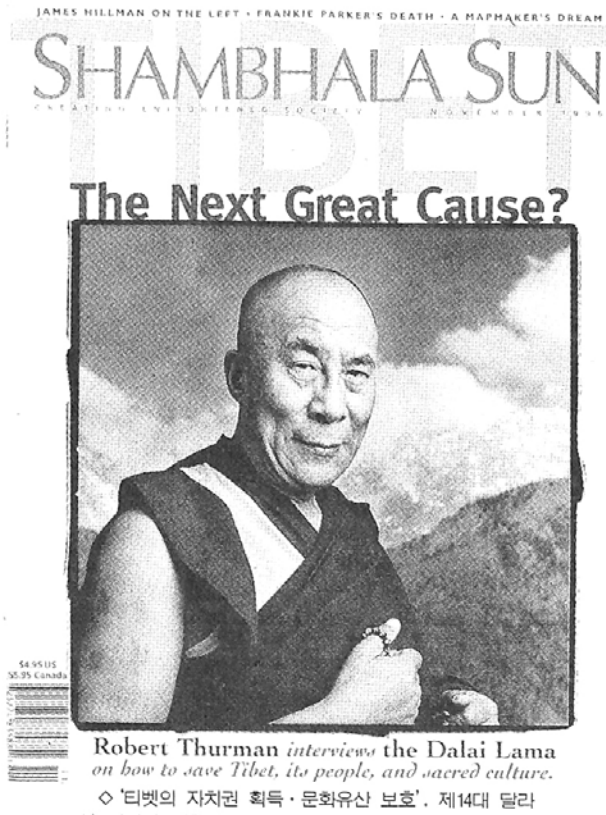
정기법회 및 강좌안내

요일	장소	일시	법회내용	시간	법사
일요일	법사도량	매주	일요정기법회	오전 10:30~12:00	목정배
수요일	법사도량	매주	원각경	오후 18:30~20:00	목정배
목요일	법사도량	매주	명심보감	오전 10:30~12:30	심재동
			원각경	오후 14:00~16:00	목정배
			명심보감	오후 18:30~20:30	심재동
토요일	법사도량	매주	불교교리강좌	오후 15:00~17:00	목정배

사단법인 대한불교법사회 법사원불교대학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188-6 뉴장충빌딩 1층
전화 : (02)266-1827,264-1827 팩스 : (02)279-3427

지구촌 **실천불교 운동가** 〈3〉 티벳 달라이 라마



◇ '티벳의 자치권 획득·문화유산 보호', 제14대 달라이 라마가 미국의 불교 시사잡지 〈삼발라선〉(최근호)의 커버스토리를 장식했다.

"가난·인권말살등 세계평화 위기 동체대비 형제애 내면 해결됩니다"

약 력

- 1935 티벳 타크처에서 출생.
- 1936 제 13대 달라이 라마 툽텐 갸초의 환생지로 확인
- 1938 제14대 달라이 라마로 추대.
- 1950 중국의 침공을 받고 티벳 대변.
- 1959 노불링카 폭격 직전 라사 탈출
- 1959 인도 담살라 임시정부 수립
- 1961 유엔총회에 티벳문제 상정해 결의문 채택
- 1989 노벨평화상 수상

저서에는 〈티벳, 나의 조국이여〉(My Land and My people) 외 다수.

티벳독립등 비폭력운동 헌신

나의 믿음은 "자비정신으로 인류교화 가능하다"

노벨평화상 수상…'무기 수출윤리강령' 유엔 제공

달라이 라마는 1935년 티벳 동북지방의 타크처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두 살 때에 제13대 달라 라마 툽텐 갸초의 환생자로 관명되 제14대 달라이 라마로 추대됐다. '달라이'는 몽고어로 '큰 바다'라는 뜻이고 라마는 티벳어로 '스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1950년에 이르러 중국이 티벳을 침략하면서 달라이 라마는 종교지도자로서 사원수행보다는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티벳망명정부의 수장으로서, 비폭력을 신봉하는 종교적 지도자로서 변모해 갔다.

중국침략 당시 19세였던 달라이 라마는 티벳자치권을 보장받기 위해 북경에서 모택동(중국공산당주석)과 회담을 개최하는 등 중국과의 화해를 다각적으로 시도했으나 모든 것이 허사로 끝났다. 그러자 달라이 라마는 "우리 온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도이며 무자비하고 잔악한 학살의 즉각적인 종식이 시급하다"며 당시 유엔사무총장인 다그 하마숄드에게 서안을 보내 국제적인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노력은 1959년에 이르러 "유엔헌장과 국제인권선언 원칙의 존중이 법의 통치에 기초를 둔 평화적인 세계 질서의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확인하며, 티벳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그들의 독특한 문화의 종교적인 생활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라는 유엔총회 결의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1959년 티벳의 독립투쟁이 더욱 번져나가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갔다. 마침내 달라이 라마는 1959년 노블링카 폭격 직전 인도 다람살라로 망명했다.

이후 달라이 라마의 활동은 국제무대로 옮겨지고 티벳독립 뿐만 아니라 인권·평화·비폭력 등의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인도에서 티벳 망명정부와 달라이 라마는 국제기구로하여금 티벳독립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리게 하는데 성공해 1961년 제16차 유엔본회의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티벳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의 금지를 다시 한 번 엄숙하게 요청하며 회원국들은 이 결의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다짐한다"는 결의향을 다시금 채택했다. 그러나 1980년대말 티벳에서 대규모 유혈시위가 벌어지고 1만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달라이 라마는 독립에서 '완전한 자치' 쟁취로 선회했다.

한편 달라이 라마는 '존경받는 종교지도자이며 인권운동가'라는 국제적 평가에 힘입어 198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달라이 라마는 노벨상 수상식에서 "세계는 폭력·기아·가난 등으로 고통당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동체대비의 형제애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 모든 종교인은 이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가르쳐야 한다"고 달해 세계평화를 위한 종교인의 이해를 요구했다. 또한 "티벳인은 라사에서 평화를 맞이할 것"이라며 티벳독립을 거듭 천명했다.

이후 달라이 라마는 1993년 '세계종교회의'에 참석해 "우리는 번번히 종교지도인들이 침략과 광신, 증오, 외국인 혐오 등을 선동하고 심지어는 폭력과 유혈분쟁을 조장, 합법화하고 있는 사태를 개탄한다"며 다원화되어가고 있는 세계종교계의 화해와 우호를 천명하기도 했다.

또 "수지 여사가 아직까지도 미얀마 군사통치기구인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SLORC)에 의해 구금돼 있고 그녀의 기본권이 거부되고 있어 유감을 표시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995년에는 중국의 반체제인사인 위경생 등의 석방을 촉구하는 등 국제적인 인권운동가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또 1995년 "전쟁도발국·인권탄압독재정권·비민주선거국가에 대한 무기수출 전면금지"를 주요골자로 한 '윤리강령'을 제정한 달라이 라마는 이를 유엔에 제출했다.

90년대에 접어들이 달라이 라마는 해외순방외교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1994년 미국과 영국을 방문한 달라이 라마는 "티벳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지지해 줄것"을 호소하고 "중국은 한족을 무더기 이주시켜 티벳에 대한 인종청소를 자행하고 있어 조만간 티벳은 거대한 차이나 타운이 될 것"이라고 말해 중국정부에 압력을 넣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독일,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를 순방한 뒤 바티칸을 찾아가 교황을 만났다. 이 해외순방은 '등소평의 사망에 따른 정치적 공백을 티벳독립운동의 고리로 활용하려는 측면'이라고 세계정계의 분석이 회자되기도 해 티벳독립을 위한 그의 종교적·문화적 노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노력까지 엿보이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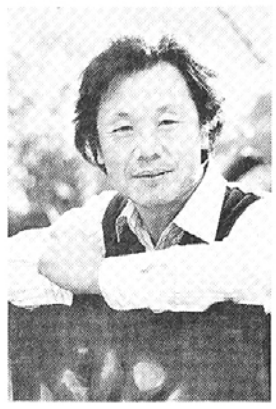
달라이 라마는 최근 '마틴기어의 귀향'을 제작해 널리 알려진 장 클로우드(영화감독, 佛)와의 인터뷰에서 "나의 믿음은 확고하다. 우리는 반드시 숭고한 영성(靈性)을 찾을 것이며 이러한 新개념을 종교와 나란히 고양시킬 것이다. 또 바로 이 길에는 모든 인류의 선한 마음이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지난 3월 런던과 뉴욕의 인권단체들이 "티벳의 수도 라사에 계엄령이 내려진 직후인 지난 90년 69명에 이어 93년 2백89명, 94년엔 2백31명이 각각 체포됐다"라며 티벳인에 대한 중국의 탄압이 더욱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중국은 최근 티벳 분리·독립세력과 달라이 라마의 영향력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한 '15년계획'을 세웠다.

오종욱 기자

나의 수행일기

강대철 〈조각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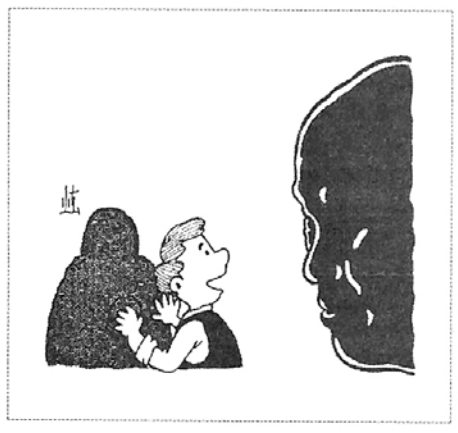
성철스님 존상제작 '고마운 인연'

"검소하게 자기 다스린 가르침 얻는 계기됐어요"

모든 인연은 필연이라고 한다. 우연이란 없다는 것이 인연의 법칙이고 보면, 나 같은 평범한 조각가가 이 시대에 가장 높은 정신세계에 이르신 어른으로 존경받는 성철스님의 존상(尊像)을 제작하게 된 것을 보면 전생에 조금은 복을 지어놓은 바가 있기는 한 모양이다.

내 인생에 있어서 성철스님의 존상제작은 개인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고마운 인연이다. 정식으로 제작의뢰가 없었더라도 나는 스님의 사상과 정신세계에 깊이 경도되어 있었다. 때문에 스님 열반 이후 개인적으로 그분의 사상과 모습을 나의 작품세계에 연결시켜보고 싶었던 터였다. 그래서 지난 일년 남짓한 존상제작 기간은 내 나름대로 스님으로부터 법문을 들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분이 도달하신 깨달음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조금이나마 그 세계에 가까이 다가서야만 형상으로 드러나는 존상의 모습 속에서 스님의 체취가 전달되리라 싶어 꽤나 조바심을 치며 애를 쓴 시간들이었다. 그러나 욕심으로 다가서면 설수록 스님의 이미지를 찾아내는 일이 힘들다는 것을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깨닫게 되었다.



인간사 모든 일을 탐진치(貪瞋癡)에 걸려서 한다면 결코 지혜와 연결될 수 없다는 평범한 이치를 알면서도, 스님의 존상을 제작하는 마음자세가 욕심에 빠져있었던 것이다.

몇달 동안의 욕심속에서의 몸부림을 벗어난 것은, 스스로의 재주에 실망을 느끼고 '이젠 스님한테 매달려 부탁드려보면서 제작하는 수 밖에 없구나' 하는 마음을 가진 후 부터였다.

점토 한 조각 한 조각을 깎고 붙여가면서 이렇게 되뇌었다. "스님 도와주세요. 제가 만들고 있는 스님상은 제 작품이 아닙니다. 이건 스님몫입니다. 스님께서 이 존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하화중생(下化衆生)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스님 스스로 이 흙과 쇠 속에 생명의 기운을 넣어 주셔야 합니다. 어디 이 일이 제 일입니까. 이건 중생 모두의 일입니다. 그러니 스님께서 알아서 해주시지 않으면 전 책임을 못집니다. 스님이 육체를 버리셨으니까 전 스님한테 손만 빌려드리는 겁니다."

때를 쓰듯 스님한테 무조건 매달리는 마음으로 제작을 하면서 작업진행이 순조로워진 것은 분명 스님의 보살핌이 있음이었다. 간절히 기구하는데 어찌 스님께서 나 몰라라 하시겠는가. 그렇게 제작하는 마음자세가 기도하는 마음자리로 자리잡혔을 때 한점 한점 붙여지는 점토조각은 스님의 가피를 받으며 나의 두꺼운 업장을 한점한점 떼어내는 일이기도 했다.

불교의 이치를 나의 인생속에 깊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몇번의 종교편력을 거치고 나서였다. 지식으로 풀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종교일 수 밖에 없을 것이기에 이 종교 저 종교를 기웃거리게 되었던 것인데, 어느 곳에서도 방황하는 내인생을 안주시키지 못했었다. 그러다가 불혹(不惑)의 나이에 이르러서야 불교의 이치를 만나게 된 것인데, 그 만남은 내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정리시키게 되는 큰 계기가 되기도 했다.

내 작품세계의 화두처럼 되어버린 생명에 관한 주제가 불교의 이치를 만나면서 구체성을 갖게 되었고, 내 인생과 작품속의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정신적인 조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된 셈이다.

작업이 뜻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을때 스님께서 평생을 자리하고 계시던 백련암을 다녀오기도 했다. 그렇게도 검소하게 자신을 다스리시며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지혜를 전해 주시려던 그 자리에 서면 스님의 기운이 느껴지곤 했다. 그렇게 스님의 기운을 더불어 함께한 지난 일년여의 시간이 내 인생에서 한걸음 더 진리로 다가서는 계기가 되었기에 스님에게 감사하는 마음뿐이다.

옷을 만드는 일에는 '정성'이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사람은 왜 옷을 입는가'라는 질문으로
어느새 30년의 세월이 흐른다'

입어서 자연스러운 옷을 만들기 위해
첫인상 따라 색상, 디자인을 결정하고
컴퓨터로 재확인 한다

예복이란
매우 특별한 날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입는 옷

- 세계적인 이태리 원단 사용
- 95% 이상을 수작업으로 진행
- 맞춤복과 큰 차이가 없는 가격
- 컴퓨터를 통한 색상과 디자인 샘플링 작업
- 고객 자신이 미리 자신의 착용 모습 컴퓨터로 확인



예복의 집 SUN-SHINE 권오수 합장

"혼이 깃든 예복 장인 30년"

몸보다 마음에 맞는 옷 만들기

■본 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5-11 삼마B/D 1F
TEL : 514-1118/9
■공항터미널점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6
TEL : 551-0833

사회자와 주례사 그리고 양가의 부모님들까지도 신랑 신부와 어울릴 수 있게 격의를 살린 예복을 갖춰야 합니다.

다시 푸는 경서

虛雲和尙의 참선요지 ㉔

到那時架子也不擺了 威風也不逞了
도나시가자야불과료 위풍야불령료
路也跑得了 肚子也餓得了 菜根也喫
로야궤득료 두자아아득료 채근야끽
得了
득료
爲甚麼他這樣放得下
위심마타저양방득하
因爲聯軍根要他的命他一心想逃命呀
인위연군상요타적명타일심상도명아
可是後來議和 御駕回京
가시후래의호화 어가회경

그러나 이때에 이르러 가마도 꾸리지 못하고 위풍도 드날리지 못하고
길을 걸어야 했으며 배는 곯아야 했고 풀뿌리라도 먹어야 했으니
어찌 저런 모양이 되고 말았던가.
연합군이 황제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줄 알고 일심으로 도망칠 생각만 하지 않았던가.
그후 강화가 이루어져 어가는 다시 북경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架子又擺起來了 威風又逞起來了
가자우파기대료 위풍우령기래료
路又跑不得了 肚子餓不得了
諸位同參呀 無常殺鬼 正時刻要我們
제위동참아 무상살귀 정시각요아문
的命
적명
他永不肯同我們「議·和」的呀
타영불긍동아문 의 화 적아
快發菩提心就此 來了生脫死吧
쾌발개장원절심 래료생탈사읍

가령 황제가 늘 도망칠 때의 심정으로 일을 처리한다면 어떤 일인들 못해내랴.
그러나 애석하게도 장원심이 없었기에 순경계를 만나자 옛날 태도가 다시 싹트게 되었다.
그대들은 내 말에 동조하는가. 무상이라는 살귀가 바로 이 시각에 우리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고
그 살귀들은 영원히 우리들과 강화할 뜻이 없음이라.
흔쾌히 장원심을 내고 간절한 마음일으켜 생사해탈을 마쳐야 하느니라.

"천길 우물바닥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듯 참선함에 끝내 딴 생각이 없어야 한다"

로우궤부득료 두자아부득료
有不高興的東西 也要不下咽了
초불고흥적동서 야요불하인료
爲甚他那時又放不下了
위심마타나시우방불하료
因爲聯軍已不要他的命 他已沒有逃命
인위연군이불요타적명 타이몰유도명
的心呀
적심아

가마도 잘 꾸리게 되었고 위풍도 떨치게 되었고
길을 걷지 않아도 되고 배를 곯치도 않게 되었다.
그러자 차차 맛없는 음식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게 되니
어째서 이때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연합군이 그의 목숨을 이미 노리지 않게 되니 황제는 이미 도망칠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假使他時常將逃命時的心腸來聯道 還
가사타시상장도명시적심장래관도 환
有甚麼不了
유심마불료
可惜沒個長遠心 遇着順境 故態復萌
가석몰개장원심 우착순경 고태부맹

千思想 萬思想 單單是個求出之心
천사상 만사상 단단시개구출지심
究竟決無二念
구경결무이념
誠能如是施功 或三日 或五日 或七日
성능여시시공 혹삼일 혹오일 혹칠일
若不徹去
약불철거
高奉今日犯大妄語 永墮拔舌泥犁
고봉금일범대망어 영타발설니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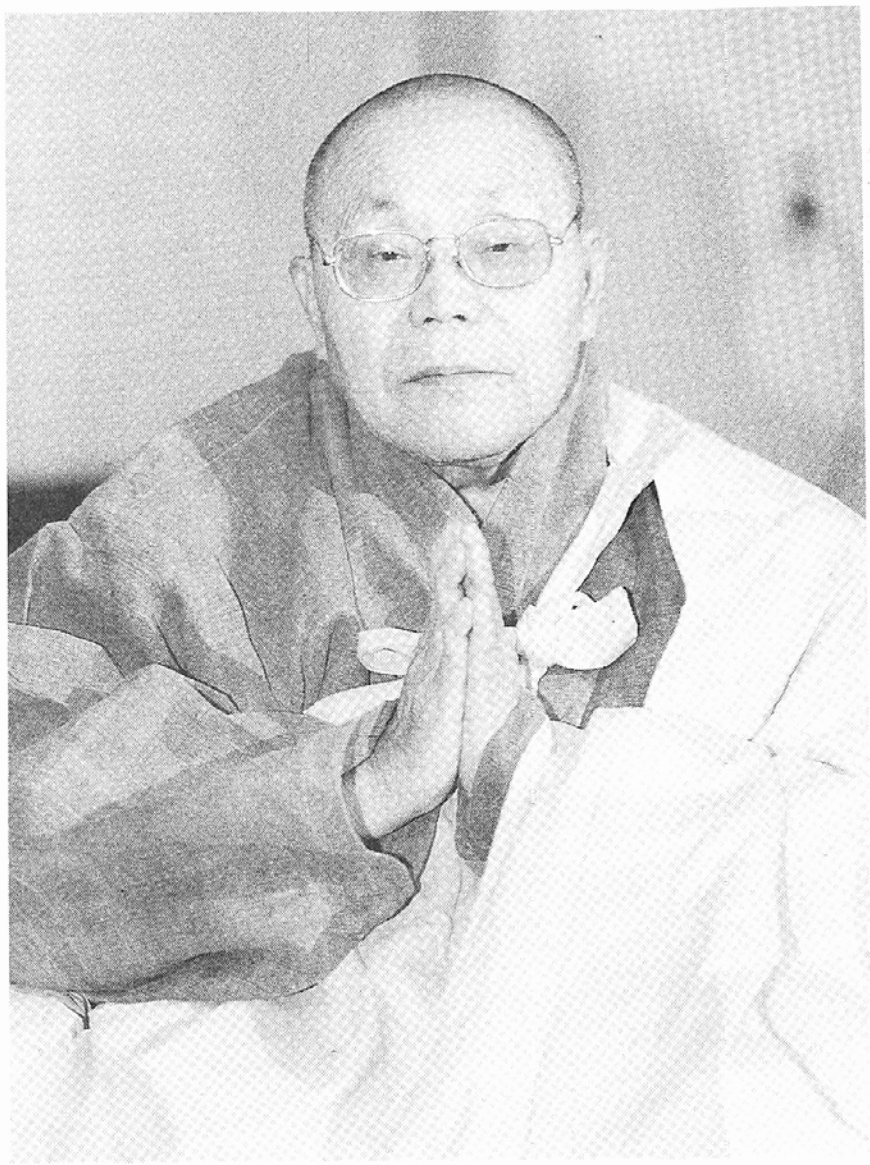
고봉원묘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선을 함에 있어 날짜를 새겨 공을 이루고자 한다면
마치 천길 우물 바닥에 떨어진 것과 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시 저녁에서 아침까지 천가지 만가지 생각마다 오로지 우물에서 벗어나겠다는 마음이어야 하며
끝내도록에 결코 딴 생각이 없어야한다 하셨다.
선사께서는 지성으로 이와같이 공을 들이고도 혹은 삼일, 오일, 칠일에도 만약 사무치지 않는다면 고봉은 오늘 큰 망언을 한 것이니 영원히 혀를 뽑아 발갈이하는 지옥에 떨어지리라 하셨다.

龍眼

★ 지상법석

"지금 이순간 이자리

묘련스님 〈묘현사 주지〉



약력
- 1924년 전남 장성 生
- 1946년 서울 안양암에서 출가후 해인사서 효봉스님 문하에서 공부
- 강원선방을 다니며 납자의 길을 걷다가 묘현사 창건
- 1일1식을 철저히 지키며 출가후 한번도 양말을 안 신는 고행으로 일관해 오며 〈법화경〉 공부에 매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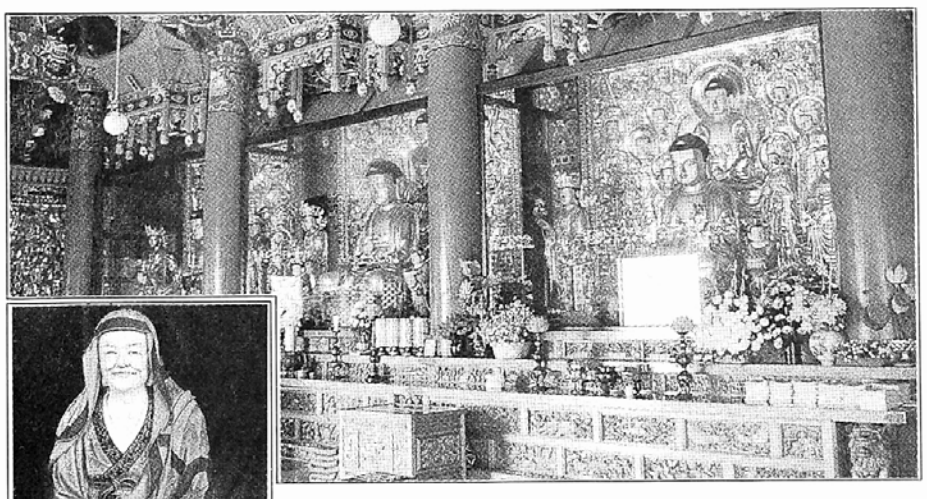
오늘은 수자영가(낙태영가)를 천도하는 법회이니 여기에 맞는 이야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들 인간은 금생에만 사는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락(涅槃樂)을 얻으시고, 해탈열반을 하셨기에 불생불멸의 대원각심인 법신(法身)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수천억만년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수억만년을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해탈하기 전에는 윤회보(輪廻報)를 면치 못하는 것이지요.
그럼 왜 윤회보를 면치 못하느냐. 그것은 무명(無明)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때문에 그 무명에 얽혀 있는가. 그 이유는 일종의 집착이예요.
말하자면 사방이 어두컴컴하면 아무것도 분별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세속적인 여러가지 지식이 높거나 심리학을 전공하였다거나 또 대학자가 된 사람들 조차도 무명의 업장(業障)을 소멸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체를 하지만 세속적인 지식으로는 무명의 업장을 소멸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윤회보를 받게 되느냐하면 그것은 집착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얽히고 저기 얽히고 하면서 집착하고

"우리가 아는체 하지만
세속적인 지식으로는
업장 소멸할 수 없어요
오직 부처님 가르침따라
행할때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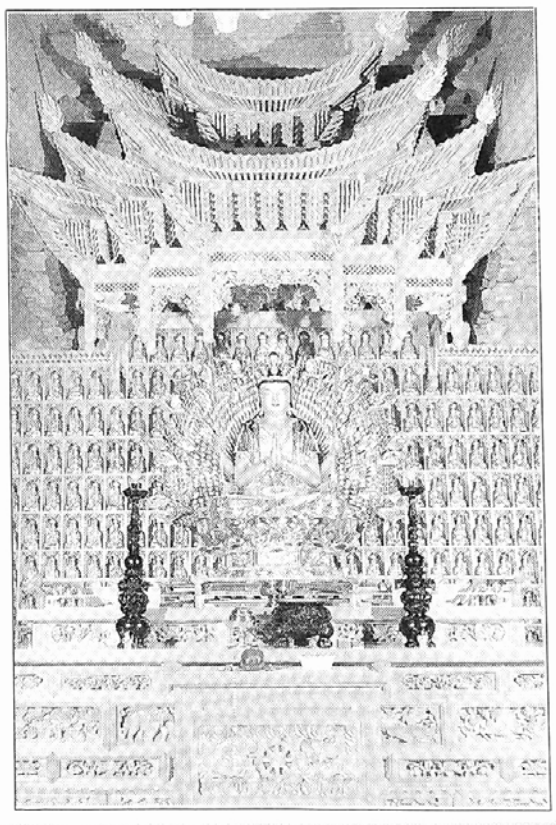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람만 그러하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컨데 모든 짐승들, 날아다니는 새와 기어다니는 짐승들, 그리고 어류들도 다 자기들 세계가 있습니다. 이 방안만 하더라도 무수억의 세계가 있습니다. 〈화엄경〉에 일미진중 함시방(一微塵中 咸十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티끌하나 가운데도 동서남북이 있고 온세계가 다 들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천상계(天上界)에도 무수억의 세계가 있습니다. 대범천왕과 제석천왕을 비롯하여 하느님도 수억만명이 있어요. 우리 범부들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어렵게 생각할 것도 아니예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분별심(分別心)을 일으키고, 얼마나 시시각각으로 윤회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무수억천만번의 윤회보를 받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 생멸업(生滅業)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못하는 것이예요.
그리고 물질로 이루어진 우리 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윤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안으로는 그러려니 하고 윤회보를 안 받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시야가 좁고 얕기 때문에 그래요. 눈을 크게 뜨고 시야를 넓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70이 넘은 이 사람이 몸은 비록 늙었지만 마음은 20대 어린애 같아요. 늙으면 어린애 마음이 된다더니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이 윤회보인 것이예요.
이 법문은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수자영가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법문할 때 떠들거나 소란스러우면 영가들이 신경질내게 되고 그러면 제도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수자영가 천도를 위해 참석하신 불자님들께서는 조용히 참회하십시오. 이 수자영가들도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을 누리고 살았어야 할 터인데, 이 식신이 무엇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게 다 욕망 때문입니다. 이 영혼들이 잘못된 욕망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런 아버지 어머니에게 가서 의탁하게 되었는가 하면 다 그 업보 때문이예요.
살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세에 그 영혼들도 그와 같은 살생을 했기 때문이라고 부처님께서 〈인과경(因果經)〉에 말씀해 놓았습니다. 〈아함경(阿含經)〉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 열애에 빠진 어떤 젊은 남녀가 부모의 반대로 임신한 애를 낳을 수도 키울 수도 없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냥 어린애를 낳았다가는 사회적 지위와 재산까지 모두 잃게 될 판이라, 부모의 말을 따라 어느 의사에게 가서 낙태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과보로 인해 자기도 수자령이 되는 과보를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과를 모르는 무지로 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과 관계를 알았다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과보를 받지 않았을 것이며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태가 문제가 아니예요. 그 영혼이 무량무변(無量無邊)의 고통을 받는다고 하니, 이게 문제입니다.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불교 목공예품~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사 무 실 (02) 738-8447~8
■공 장 (051) 804-8907
■부산사무실 (051) 556-0541~3
대표 이 진 형 합장

지상법석

윤회업보 받고 있어요"

"낙태등 한번 지은죄 뿌리채 뽑아 다시는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인간들이 밝혀낸 모든 의학지식으론 부처님 말씀의 백만분지 일도 미치지 못합니다. 의학박사가 알고 있는 의학지식이란 배워서 알고 있는 상식에 지나지 않을 뿐이어서 부처님께서 뚜렷하게 밝히신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인과로 본다면 보잘것 없는 것입니다.

임산부가 찬물을 먹는다거나 더운물을 먹는다거나 또 짠것을 마시고 고추가루같이 매운 것을 먹으면 아기에게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겨준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임산부가 찬물을 먹는 경우 뱃속 아기는 마치 냉동실 처럼 추위를 느끼게 되고, 뜨거운 물을 마실 경우에는 한증막처럼 더위를 느낀다고 하니, 이런 경우를 살피더라도 현미경이나, 출산기기도 없던 시대에 그런 고통을 살피셨다니 얼마나 밝은 지혜이며, 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부처님이 수자령을 데려다가 감로수를 주어서 기른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런데 그 죄를 누가 받겠습니까. 낙태를 시킨 그 죄를 누가 받겠어요. 낙태를 시킨 그 부부가 받지요. 그래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반윤리적인 행동이 횡행하는 것입니다. 〈법화경〉 한 구절만 읽어도 그 복은 아간지옥에 간 중생들도 다 제도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감로수병을 들고 있는 관세음보살님의 존상을 기억하시죠. 보름달처럼 둥그런 원속에서 아기가 똑똑 떨어지는 감로수를 받아 먹고 있는 탱화가 있습니다. 이 아기가 누구냐 하면 바로 낙태아인 수자령입니다.

부처님께서 수자령을 기르신다고 해요. 그 얼마나 자비스러운 일이며, 얼마나 거룩한 일이며, 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부처님이 수자령을 데려다가 감로수를 주어서 기른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런데 그 죄를 누가 받겠어요. 낙태를 시킨 그 부부가 받지요. 그래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반윤리적인 행동이 횡행하는 것입니다. 〈법화경〉 한 구절만 읽어도 그 복은 아서는 안되고 선을 해야 도를 얻을 수 있다며 문자는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디 문자가 따로 있고 참선이 따로 있습니까. 그리고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개구즉착(開口卽錯)이라고, 말을 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왜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합니까. 실상의 자리라는 것은 문자다 문자가 아니다, 언어다, 물질이다, 정신이다, 공이다 등 그러한 문자까지도 떠난 자리입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말을 하자니까 말을 빌어서 하는 것이지요.

문자를 쓰지 말라 하면서 어째서 문자로 법문을 합니까. 그러니까 문자도 진리를 떠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러한 이치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 16의 계송 일부 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부처님은 스스로 부처님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누가 만든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본래 부처가 되어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화부처님이에요. 본화사상이 아니고서는 이데올로기도 깨뜨리지 못하고, 인종차별도 없애지 못합니다. 또한 사상의 분열도 막지 못합니다. 모든 중생들이 삶을 편안하게 영위하려면 〈법화경〉의 회삼귀일 정신과 일불승사상, 수자의사상(隨自意思想), 묘각, 본화불 사상이 아니고서는 성불하지 못합니다. 내가 스스로 부처가 되어 왔다. 곧 내가 부처님이다, 이것이 본화불 사상입니다.

오늘부터 수자영가에 대한 집착을 버리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정말 천도가 되겠나 안 되겠나 하고 분별을 일으키면 거기에 재앙의 씨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죄를 저지른 것은 싹 뽑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지나간 일을 앞으로 다시는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으로 될까, 어쩔까 하고 망상을 피면 다시 뿌리가 내립니다. 괜히 사량분별 망상을 일으켜서 지옥을 형성하지 마십시오.

살인사건등 사회죄악 낙태시킨 죄 쌓인 까닭

"生滅業 어렵지만 법화 가르침따라 '길' 닦자"

게 내다보셨는지 놀라운 사실이 아닐수 없습니다.

부부간에 싸움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는 어느 사람은 부부간에 싸움을 하다가 칼질로 부인의 배를 찼는데, 그 결과로 애가 불구자가 되어 나왔습니다.

또 어느 사람은 부부 싸움을 많이 해도 아이가 정상일 뿐 아니라 잘생기고 영리하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게 다 어리석은 생각이예요. 무지몽매(無知蒙昧)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이가 아무렇지도 않고 부모속을 안 썩인다고 해서 보복을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다 보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보다 먼저 죽는 수가 있어요. 전쟁터에 가서 죽는다던지, 목매달아 죽는다던지, 물에 빠져 죽는다던지, 이런 식으로 보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속을 썩이는 것이지 뭡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무리 하여도 소승(小乘)의 견해라든지, 권대승(權大乘)의 견해를 가지고는 해탈할 수 없느니라. 〈법화경〉에 의지해야만 비로소 해탈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하니 수자영혼들도 이 법화경 법문을 듣게되면 다 이고득락할 뿐 아니라, 무라한을 성취한 것보다 낫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법화경〉을 회상에서 잠시만 듣는다고 하여도 제석천왕인 욕황상제가 되거나 전륜성왕이 됩니다. 한국이나 미국의 대통령 정도가 아닙니다. 천상의 왕이 된다는 말입니다. 항차 수지독송하고 여설수행하면 성불을 보장하리라고 하셨어요.

더구나 〈법화경〉에서는 색심실상(色心實相)이라고하여 물질과 정신을 하나로 보려는 깊은 뜻이 내포돼 있습니다.

또한 문저비침(文底祕沈)이라. 〈법화경〉 글씨 안에는 부처님의 오묘한 뜻 중생들의 참부처님 밝히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 이를 읽음으로 해서 해탈의 길에 빨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법화경〉 가르침으로 수자영가들을 제도하게 되면 이들 영가들이 틀림없이 이고득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믿지 않고 의심을 일으키면 곧 악도에 떨어진다고 〈법화경〉 종지용출품에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심으로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열반한 어느 큰 스님이란 분은 〈법화경〉 법문을 하다가 결국은 참선을 해야한다고 결론을 내린적이 있습니다. 〈법화경〉을 해

> '스스로 부처가 되었다'
> 본화불사상 아니고서는
> 이데올로기도 깨뜨리지 못하고
> 인종차별도 없애지 못합니다

스스로 내가 성불한 때부터
지내온 바 많은 겁 수는
한량없는 백천만억
나유타 아승기 겁이니라.

항상 설법하여 무수억의
중생들을 교화해서
불도에 들게 한 지가
한량없는 겁이 지났느니라.
자아득불래(自我得佛來) 소경제겁수(所經諸劫數)

무량백천만(無量百千萬) 억재아승기(億載阿僧祇)

상설법교화(常設法敎化) 무수억중생(無數億衆生)
영입어불도(令入於佛道)
이래무량겁(爾來無量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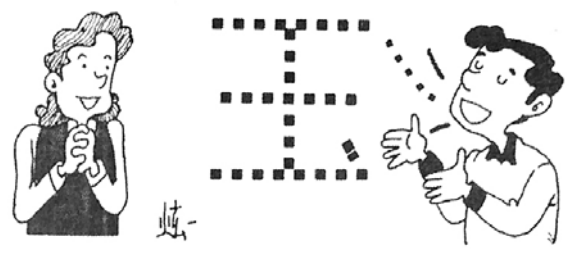
〈묘법연화경〉 여래수량품(如來壽量品)

중생이 겁이 다해서
큰 불이 탈 때에도
나의 이 땅은 편안하여
천인이 항상 가득하니라.

중생견겁진(衆生見劫盡) 대화소소시(大火所燒時)

아차토안은(我此土安隱) 천인상충만(天人常充萬)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구원실성천백억화신석가모니불
실상 묘법연화경.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96

김 성 구

반야심경과 물리학 (33)

바른믿음과 말은 밝고 신비한 진언

의식과 무의식 벽 허문 '空' 체득한 경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털어 진리를 깨우친 모든 부처님은 반야에 의해 궁극적인 지혜를 얻었다고 설한 후 경전은 '…고지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무상주…' 라고 설한다.

시대신주

반야바라밀다는 크게 신비한 주문이요 밝은 주문이며 더 이상 비할 데 없는 높은 주문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주문은 마술사가 마술을 부릴 때 중얼거리는 소리를 뜻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이중성을 뛰어 넘는 지혜가 있음을 믿고 마음에 확신을 심으라는 뜻이다. 그리고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물론 이때의 믿음은 맹신이나 미신과는 다르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최고로 치고 말로써 따지는 알음알이를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여 '직지인심 견성성불 불립문자 언어도단'이라는 말을 쓰면서 문자를 모르고도 깨우친 육조 혜능선사의 예를 들면서도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을 하늘같이 떠 받든다. 이것은 단순논리와 일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분별지의 한계를 가리키고 분별지로써는 보리에 이를 수 없음을 가르치는 것이지 논리에 맞지도 않는 것을 주장하거나 터무니없는 것을 믿으라는 뜻이 아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이 올바른 믿음을 갖고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별지에 의한 판단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경전이 필요한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전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 것이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없이 달을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알음알이 지식을 경계하는 것은 손가락을 달인줄 알고 머무르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지 분별지에 의한 사리판단이 무조건 틀렸다는 뜻이 아니다. 분별지로 따지고 따져 분별지의 한계에 이르렀을 때 이것을 뛰어 넘어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경전이 말하는 것은 이때 바른 믿음을 갖고 마음속에 신념을 확고하게 심으라는 뜻이다. "…고지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가 뜻하는 것은 '이제 내가 분별지의 한계를 알았으니 이에 머물지 않고 이 한계를 넘어 반야의 세계가 있음을 믿고 이를 달성하리라' 하는 신념을 깊은 마음속에 심어두라는 뜻이다.

'말이 옥(玉)이라'는 속담이 있다. 이것은 말한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인데 깊은 뜻을 담고 있는 말이다. 우리가 믿고 생각한 것은 마음 속 깊은 곳에 기록되어 인격의 바탕을 이루고 다음의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 바르게 믿고 행할 때 믿음이 깊을수록 큰힘을 발휘하게 된다.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들이 가끔 사용하는 최면요법에서 나쁜 습관을 없애거나 무의식속에 감추어진 사실을 알아내는 것도 말로써 암시를 주므로써 이루어진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전은 반야바라밀다는 신비한 주문이라고 한 것이다.

인간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은 이 주문을 받아들이는 창과 같다. 사람에겐 수의근과 불수의근이 있어서 수의근은 의식으로 통제하고 내장의 운동은 무의식이 통제하게 되어 있지만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 있는 것이 호흡이다. 아무 생각없이도 호흡을 할 수 있지만 생각으로 조절할 수도 있다. 불교의 선승들은 일찌기 이것을 깨닫고 호흡을 조절하므로써 마음을 통제하는 법을 알아내었다. 그것이 좌선이요 참선이다. 가늘고 긴 호흡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안하게 한 가운데서 화두를 들거나 염불을 함으로써 의식과 무의식의 벽을 허문 것이다.

'악'하는 한소리로 얻은 것은 바로 의식과 무의식의 벽이 허물어진 한 마음을 얻는 것이다. 즉 마음의 주인이 된 것이다. 이제는 '아'가 무의식의 통제를 받는 허수아비가 아니라 '아'가 마음의 주인인 것이다. 이때의 '아'는 집착이 만든 허수아비가 아니라 이중성을 초월해 '공'을 체득한 마음인 것이다. 이것은 반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이기에 경전은 반야바라밀다를 신비한 주문이라고 한것이다. 그렇다! 바른 믿음과 말은 신비한 주문이다. 이중성을 초월하여 '공'에 이르게 하는 신비한 주문이다.

〈이화여대 교수 · 물리학과〉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대구한방 : (053)564-3355

대구여래한방

중국명문 한의대

침 · 기공 연수

1. 박사과정
대 상 : 한의사, 한약사, 침 · 기공에 관심이 있으신 분
기 간 : 8박9일
연수내용 : 당뇨병, 중풍, 비만, 좌골신경통, 기공등
연 수 후 : 국립남경중의학대학 고급과정 수료증 수여
인 원 : 10명이내 선착순

2. 국제 침구사 연수반
대 상 : 침구전과정에 관심이 있는 분
기 간 : 1개월
연수내용
⑴중의학 기초이론 - 음양오행, 기혈진액, 변증논치등
⑵침구학 기초이론 - 경락, 유혈등 침구기본조작가능, 임상적다발병 침구치료법등
연 수 후 : 국제침구사 연수 수료증 수여
인 원 : 10명이내 선착순
출 발 : 1996년 12월 22일
3. 중국남경중의학대학 남경 025-6612904
4. 문의처 : 한국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전 화 : (02)511-1080, 511-2026-8

문의처 : 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전 화 : 02)511-2026~8

춘천 옥산가 옥의 신비를 아십니까?

우아함과 품위를 살리는 동양의 보석

신경통, 고혈압, 당뇨, 잇몸질환 등의 난치병치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뇌내모르핀의 분비를 활성화 함으로써 노화방지는 물론 현대인의 잡다한 병(30~50대 여성의 火病, 불안, 신경질, 불면증, 피부병, 직장인 · 수험생건강 등)을 예방 치유합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잘 듣습니다.

* 세계 유일한 보석 옥산가 백옥



* 眞玉은 옥산가에서만 판매함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 96.9%, 심장질환자 92.9%, 비듬림병 91.3%, 어지러움증 91.3%, 두통 83.3%, 고혈압 77.8%, 관절염 60%의 놀라운 치유효과를 기록했다. (90.2.17)

「春川産 白玉 성인병에 卓效」

108염주(小) ₩320,000 옥걸이₩150,000
단주(大27알) ₩250,000 단주(고무줄)₩70,000
영상용옥(기) 방석₩120,000 반지 ₩45,000
▣ 계좌번호 : 중소기업은행 001-051259-02-015 예금주 조영옥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불교달력

아직 달력을 맞추지 않으셨다면
불교달력 전문 인쇄공장으로
직접 주문 하십시오.
마음에 와 닿는
달력을 만나실것입니다.

연락주시면 견품 및 카다로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울 중구 오장동 69-2
강진 정판사

전 화 : 02)269-9755
FAX : 02)268-2391

고은 불교대하소설





천상의 구름

합두와 불이는 도리천에서 천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 허공 속에서도 애욕은 여전히 인간의 그것으로…

누구의 목소리일까? 누구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어 들려주는 소리일까?

한 마리 어린 앵무새는 무르익은 사람의 목소리를 거의 빼다박은듯이 흉내내어 말하고 있었다.

그 앵무새는 사바세계의 새임에도 장시 세상을 바꾼듯이 이런 천상에서도 살 수 있는 것이 이상하였다.

이 천상도 욕계(欲界)에 속해있다. 비록 천상이지만 아직 욕계 중생의 욕락(欲樂)을 누리는 곳이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목소리 그대로 흉내내어 들려주는 그 소리도 정녕 욕계를 벗어난 것은 아닐 터이다.

문득 떠오르기로는 그 목소리는 뜻밖에도 저 중국 오지의 돈황 막고굴에 머물고 있을 합두의 목소리이기도 하고 마치 그 합두의 그림자인듯이 함께 다니는 불이의 목소리를 얼마쯤 닮은 것 같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그들 합두와 불이는 지금쯤 어느 세상에 태어나 어떤 몸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

"도무지 세계 또는 세간이란 무엇이던가… 있는 것이 무너지는 것을 세간이라 하겠지… 있는 것이 다른 것으로 대치되는 것을 세간이라 하겠지…."

이런 소리를 작은 앵무새 한 마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것을 지칠줄 모르고 흉내내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앵무새 한 마리도 그 무엇인가가, 그 누구인가가 앵무새로 화하여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합두와 불이가 한 마리 앵무새로 몸을 바꿔 그렇게 길고 긴 소리를 늘어놓는 것이라면 과연 이제부터 수미산의 아스라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우주 여기저기를 찾아가는 일이 시작된 것을 뜻한다 할 수 있다.

그 소리는 이따금 끊어질듯이 머뭇거리다가도 다시 이어지는 것이었다.

삼계는 세간 전체를 말함이라… 세간의 세(世)란 격별(隔別) 즉 시간이며 간(間)이란 간차(間差) 즉 공간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그 세간 만상이 제멋대로 있는 것 같으나 그 차별이 정연하여 결코 어지러운 노릇이 아니었다.

또한 세 즉 시간은 옮아가는 것이며 흘러가는 것이다. 또 무너진다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듯이 세계를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것을 밝히는 앵무새 소리는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기본인 하나의 소세계(小世界)를 그곳에 사는 중생들의 여러 단계를 갈무리한 세 단계로 나누어 욕계 색계 무색계를 뜻하는 것으로 그것이 바로 삼계(三界)이다.

이 세계와 삼계의 계(界)란 간(間)과 같은 뜻으로 공간을 말하거니와 가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이 계는 그 안을 채우는 중생들이 각각 그 스스로의 모양(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욕계란 어떤 곳인가. 욕계란 욕락을 추구하는 중생들이 사는 욕계 소속의 세계이다.

곧 애욕 재욕(물욕) 식욕 색욕 명욕 수욕(睡欲)들로 가득찬 세계이다. 이 욕계는 마땅히 욕계답게 음양의 중생이 서로 어울려 욕락에 물들어지는 것이다.

색계란 물질의 세계이며 여기에는 여성이 없고 물들어지는 욕락이 없어서 전혀 화생(化生)하는 곳이지만 아직 물질이 있으므로 색계인 것이다.

이 색계는 욕계의 더럽고 나쁜 색을 여의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미묘한 청정세계로서의 색은 그 아래의 욕계와 그 위의 무색계를 분명히 나누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바로 이 색계 위의 무색계가 색 아닌 법체(法體)의 세계인데 아무런 형질(形質)이 없는 허공 자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이 아직 계달음을 얻지 않은 미혹의 세계이므로 그런 허공조차도 중생의 세계인 것이다.

이런 천상의 중생계 각처에 이제부터 태어나거나 떠나거나 하는 일이 활발해질수록 그런 곳들은 사바세계 남쪽 섬부주의 한 군데인 조선 서해 연안의 섬 무욕도는 한갓 티끌로 돌아갈지 모른다.

아직 그곳에는 인당 우녀 그리고 우식 만우와 대해 효명 명오 상음들이 이따금 그 섬이 벅찰만한 일이 일어나는 것 말고는 그곳의 오랜 파도소리 만큼이나 의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어린 행자 우식 만우가 밤하늘 속의 별들을 바라보는 추운 밤이건만 정작 그 별들의 세계인 색계 무색계의 물질로서의 중생, 허공으로서의 중생세계는 그 우주 속의 혹한도 혹열도 느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무감각의 우주에 대한 지상에서의 꿈은 하염없었다.

바로 그 무욕도 수행자들이었던 합두와 불이는 그렇다치고 지옥으로 갔던 남각, 한 마리 고기 속의 벌레가 된 무전이나 행방불명의 파한, 아니 조선반도 여기저기를 그 당시의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떠돌던 수월이나 수원은 또 어느 세상에 태어나 어떤 중생노릇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궁극적으로는 중생계의 나고 죽기의 영속적인 되풀이로서의 윤회조차도 아주 커다란 세계 속의 수행이 아니던가.

어찌 석가모니 전생다생의 본생담(本生譚)만이 한 보살이 수많은 보살행을 함으로서 마침내 사바세계의 주세불(主世佛)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끝내는 석가모니 한 부처만이 아니라 수없는 중생계, 욕계 색계 무색계의 한 세계뿐 아니라 그밖의 맞천만 세계로서의 우주에 가득한 수없는 중생 하나하나가 그들의 너무나 오랜 윤회를 벗어나 문득 해탈의 세계로 되는 것이 한치도 틀림없는 사실이라면 무욕도의 공부나 무욕도신이 사는 천상인 것이다.

수미산 제4층의 네 면에 있는 동쪽의 지국천 남쪽의 증장천 서쪽의 광목천 북쪽의 다문천의 네 천신으로서의 왕과 그에 딸린 여러 신들의 곳이 있다.

이들 4천은 수미 4주(四洲)를 수호한다. 그래서 수미산 중턱 4층을 그들의 나라로 삼은 것이다.

그들은 그 위 도리천인 33천의 주재신인 제석천의 명을 받아 4천을 돌아다니며 인간계의 동정을 살펴 그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고하는 일을 맡고 있다.

매월 6재일(六齋日)에 7요(七曜)와 28수(二十八宿)에 따라 네곳의 사바세계에 내려가 인간과 중생들의 선악을 은밀히 살피 가는데 그 자취는 구름 한 자락에 가리워진 용의 승천과 비슷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전혀 자취가 없기도 한다.

그런데 이 사왕천에는 중생들이 태어나지 않는 경우이다. 왜냐하면 중생들을 살피는 천상이 있는 것이다.

수미산 제4층의 네 면에 있는 동쪽의 지국천 남쪽의 증장천 서쪽의 광목천 북쪽의 다문천의 네 천신으로서의 왕과 그에 딸린 여러 신들의 곳이 있다.

이들 4천은 수미 4주(四洲)를 수호한다. 그래서 수미산 중턱 4층을 그들의 나라로 삼은 것이다.

그들은 그 위 도리천인 33천의 주재신인 제석천의 명을 받아 4천을 돌아다니며 인간계의 동정을 살펴 그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고하는 일을 맡고 있다.

매월 6재일(六齋日)에 7요(七曜)와 28수(二十八宿)에 따라 네곳의 사바세계에 내려가 인간과 중생들의 선악을 은밀히 살피 가는데 그 자취는 구름 한 자락에 가리워진 용의 승천과 비슷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전혀 자취가 없기도 한다.

그런데 이 사왕천에는 중생들이 태어나지 않는 경우이다. 왜냐하면 중생들을 살피는 천상이 있는 것이다.

> "윤회조차도 수행이라면 우주가득한 중생 벌레까지도 수행자들이다"

이 33천은 수미산 꼭대기에 제석천의 천신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각각 8천개의 하늘나라로 되어 있다.

인간이 살고 있는 남섬부주에서 8만유순이 되는 높은 천상계인데 그 한복판의 선견성이 있다. 그 성은 4면이 각각 8만유순이나 되는 커다란 하늘 속의 도성(都城)이다.

바로 이곳에 제석천이 머물러 있으면서 중생계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낸다.

네 군데에 각각 8성이 있어 그곳에 많은 천신들이 살고 있는데 이 네 군데 동서남북의 8성을 합하면 32성이고 거기에 제석천의 성을 더해서 33천이 된다.

3재일마다 성 밖의 선법당이라는 하늘 속에 모여 진리에 대한 토론이 있을 때는 실로 장관이어서 그 토론이 하늘 속의 우렁찬 우레소리나 천둥소리들로 퍼져나가기도 한다.

벌써 이 33천의 도리천 남쪽 8성 가운데 하나인 성에 합두와 불이가 태어나 그곳 천신의 삶을 살며 인간의 음행과 다를 바 없는 애욕에 빠지다가도 진리에의 참회와 정진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어느 곳에 남겨둔 앵무새에게 전달한 세계 우주에의 소개도 그들 자신의 것이면서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이 도리천 33천의 세계도 그 세계의 주재신 제석천도 인간의 애욕 그대로인 것이고 그 아래의 4왕천도 인간의 애욕 그대로이다. 과연 욕계의 천상이라 아무리 허공 속이건만 그 허공 속에서도 애욕은 여전히 인간의 그것으로 나타난다.

이제 4왕천과 도리천의 세계를 더듬어 보았거니와 여기까지 와서 태어날 무욕도 아래의 사람들은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하는가.

아니 그들도 먼 과거의 숙세(宿世)를 통해서 진작 이곳에 태어나 천신으로 산 적이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 사실에 대한 기억은 그들의 아뢰야식 밖으로 튀어나와 그런 사실들을 쉽사리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합두의 아름다운 용모는 그대로 이곳 33천의 한 성 안에서도 아름다운 천녀로 이어졌고 불이도 지상에서의 시인 그대로 이곳에서 천상의 악기를 반주로 해서 시가를 읊고 있었다.

그림 · 조향숙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청보교회소식 •자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취지와 맞지 않은 내용은 게재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보리수
취급 품목 | 각종수입항,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주 大明堂 (삼표텍) 急賣
위치 : 충북 단양 적성면 [illegible] 최고표지(입수532평)
*매표C에서 5분 관광지정지, 버스킨입기(창구터 탕국)
■가격: 평당 6만원(터는 해결, 같은 공동묘지가격)
■기타: 동남향, 남한강,
도담삼봉이 아래 경치최상의 경치 최고높
연락처 : (0343)71-7242(산주)
*부동산 절대 사절

20년 전통의 모범업소
어의도
소망 결혼 상담소
(관허 14호)
한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해나갈 평생 반려자를 불자님께 맺어드리겠습니다.
담당 김춘미 합장
■초혼 : 의사, 박사, 약사, 판·검사, 행정고시 합격자
■재혼전문
■엘리트 결혼·중매
■책임성혼
문의 전화 | 주간 (02)783-1777 야간 (0343)47-1046

탈종공고
대한불교 본원종 총무원장 귀하
사찰명 : 수도사
소 지 : 충남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상기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이 맞지 아니하므로 탈종을 공고합니다.
1996년 12월 5일
수 도 사
주지 윤정수(인한)

탈종공고
대한불교 총화종 총무원장 귀하
사찰명 : 관음사
소 지 : 충남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상기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이 맞지 아니하므로 탈종을 공고합니다.
1996년 12월 5일
관 음 사
주지 박대도행(월남)

神秘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선녀궁합, 학생적성
☎738-2045,2046
현대불교신문사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척추교정·지압시술 및 개인지도
좌골신경통
TEL : 543-7306, 711-4370
전문시술원 張三洙

늙지않는 피부관리(남·여)
기미·여드름·검버섯·늘어진얼굴
불교방직불교회원모집
압구정점 3443-0996 강남전철역점 563-5791

암·간경화
정신질환·신병
병명없는병·불지병
6개월 이상 생존 할 수 있으며 자력으로 활동 할 수 있는 기력을 가진 환자로서
4개월간 정기 心요법을 받은 환자 10명중 9명이상 의학적 완치을 입증 임상 사례공개
신앙기도·천도제·구병시식 아님
연락처 : 0552)82-8118
0552)82-8128
H·P011-559-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허림리 보은암

특별 스님을 모십니다
1. 역학에 조예있고 상담만 전담할 스님
2. 침술 및 병고치료에 덕망있는 스님
숙식하고 같이 생활 할 수 있는 스님
자세한 사항은 직접 오셔서 협의 바랍니다.
부산 : 최고의 중심지역 포교원
☎051)465-5100
전화문의: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포교원 운영하실 분
주석하시던 스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후임자를 찾습니다.
위치 : 동대문구 장안4동
법당 : 50평 (시설 일체완비)
비용 : 보증금 3000만원
시설임대 180만원 · 월세 60만원
연락처 : (02)245-0904
* 운영 주식 법회 가능합니다.

탁자, 단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불사업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창사(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단집 문짝
• 사불(백화사) 법당 수미단 중각 복전함
• 충성(상보사) 대웅전 문짝
• 화전(법장사) 대웅전 법무전 문짝
• 충무(심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상(진관사) 대웅전 문짝 단집
• 포천(자인사) 대웅전 문짝 단집
• 단양(신진사) 대웅전수미단단집경탁경상
• 서울(학림사) 외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대표 이 합장

불교공예

본 불교공예에서는 20년 전통의 신용과 기술로써 각 사암의 법당을 장엄하여 천년을 기리 남을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겠습니다.
대표 임태북 합장
진도 쌍계사 : 사천전, 불단
속초 구복암 : 천불전, 단집, 산신각, 문짝
제주도 원각사 : 불단, 단집, 법상등외
설악산 오세암 : 천불전
칠각산 연화정사 : 천불전, 단집외 등
구로동 원등사 : 불단, 문짝
불교여래전 : 불단, 문각, 경탁외
합우리 보문정사 : 불단
한강 약수암 : 불단, 단집, 천불외 다수 사찰 불사
연락처 : (0346)553-6480



◇전통방식 그대로 제작되는 사찰 메주는 맛으로 정평이 나있다. 〈의정부 지장사=고영배 기자〉

전통사찰 무공해 메주 맛으로 소문…주문쇄도

조계사·지장사·봉은사·금강경독송회등서 판매

사찰신도회와 생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제작판매되고 있는 전통사찰메주가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사찰에서 제작판매되는 메주는 질좋은 햇콩으로 오염되지 않은 공기와 햇볕속에서 건조시키기 때문에 맛이 좋기로 소문나 공급량을 맞추지 못할 정도다.

경기도 지장사(주지 대운)의 메주는 정평이 나 있다. 1백여가마(1가마 70Kg)의 햇콩을 재료로 만든 메주를 가져가기 위한 주문 때문에 지장사는 매년 이맘때만 되면 전쟁을 치른다. 지장사 메주가 이처럼 인기가 좋은 것은 100% 국산 재래햇콩으로 쑤어서 장맛이 좋기 때문이다.(0351)63-1888

봉은사(주지 무상)는 강원도 정선에서 돈연스님이 직접 콩농사를 지어 만든 메주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다. 이 메주는 구역법회를 중심으로 판매돼 수익금 전액이 장학사업과 불사에 쓰여져 불자들은 장도 담그고 불사도 하는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02)516-5655

금강경독송회(회장 김재웅)는 12년전부터 메주를 판매하고 있다. 포항 금강정사에서 만드는 이 메주는 전통방법을 그대로 적용해 정성껏 만든 메주. 금강경독송회 박경애씨는 "해가 지날수록 사찰전통메주를 찾는 불자들이 늘어 수요를 못 맞출 정도"라고 설명한다.(02)742-0172

이밖에도 조계사(02-738-9466), 누천 석왕사(032-668-0072), 대구 영남불교대학(053-474-8228) 등을 비롯 각 사찰에서 전통메주를 제작 또는 주문판매하고 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대도시 지역에서 불량을 늘려달라는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는 것이 사찰측이 얘기다.

지역주민 생산 동참 농가소득·포교 '한몫'

대량으로 주문이 밀려들면서 일손이 부족해지자 메주 생산에 마을주민들까지도 참여하는등 농한기동안 농촌소득원 확보는 물론 포교에도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적문스님(한국전통사찰음식연구소)은 "대부분 주부들은 조상의 식생활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장을 선호하고 있다"며 "전통방식 그대로 쑤어지는 사찰전통메주는 앞으로 더욱 인기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이용해 재래식으로 생산하는 메주는 우리 고유의 맛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성인병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인기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김중근 기자

청소년 게시판

불교청소년의 해 회향

(사)파라미타 청소년협회(총재 성타스님)는 오는 18일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2540년 불교청소년의 해 회향식'을 봉행한다. 이날 파라미타는 서울지역 청소년 지도자 간담회 및 총회도 개최할 방침이다.(02)723-6165

부여청교련 노인봉사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스님) 부여지회는 오는 22일 금강노인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봉사활동은 청소, 목욕시켜드리기, 대화나누기 등이다. 한편 부여지회는 오는 26일~27일까지 1박2일간의 일정으로 백제레포츠센터에서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수련회'도 실시할 계획이다. (0463)836-8373

겨울방학 특강 개설

목동청소년회관(관장 명우스님)은 오는 23일부터 97년 1월 31일까지 청소년을 위한 겨울방학특강을 개설한다. 특강 프로그램은 단소, 연극, 포크기타, 미술, 글짓기 교실 등이다. (02)646-6815~7

"방학을 부처님 품에서"

겨울불교학교 준비 '한창'

구룡사·금강정사등 현장체험 역점

겨울방학을 앞두고 전국의 각 사찰과 포교당 어린이 법회는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겨울불교학교 준비가 한창이다.

이번 겨울불교학교는 수련대회를 통해 불심을 증장시켜오던 것과는 달리 체험중심으로 마련되고 있어 어린이들의 '입맛'을 당기고 있다.

각 사찰의 겨울불교학교 프로그램은 마당놀이, 전통놀이, 전통문화재 탐방, 생활체험(눈썰매)등을 대폭 확대 편성했다. 이번 겨울불교학교는 불교적 수행체험만을 강조하지 않고 현장체험을 바탕으로한 심성계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겨울불교학교는 2달이상 긴 겨울방학동안 어린이들이 부처님 품에서 보다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각 사찰 겨울불교학교 일정

사찰	일정	주요 내용	연락처
구룡사	22~24일	미정	02-575-7766
금강정사	22~25일	눈썰매, 자연농원탐방	02-893-2700
금하선원	24~97년 1월 31일	문화재탐방	02-445-3261
강남포교원	27~29일	찬불가배우기	02-539-2631
광주 관음사	26~30일	전통놀이, 사찰답사	062-223-1009
사천왕사	22~24일	시경 및 관음의집 위문	02-939-3900
강원 의선사	21~24일	참선, 사찰답사	0364-481-3694
불광사	24~27일	전통연꽃놀이	02-413-6060
울산 정토사	25~27일	사찰및 민속마을 탐방	0522-74-3800
부산 도림사	22~24일	성지순례	051-552-8909
화성 신흥사	23~25일	기도 및 참선수행	0339-57-2695
부산 삼광사	24~27일	전통놀이, 수련	051-808-7115
법련사	26~28일	부석사 무량수전답사	02-733-5322
대불어우리는선우	31~97년 1월 2일 97년 1월 3~5일	마당놀이, 우리가락배우기 디도, 놀잇감놀이	051-808-4569 02-278-8672

새싹 교사 연수 잇따라

어린이지도자연·진각종·파라미타등

새싹불자 포교를 위한 연수회가 잇따라 마련되고 있어 어린이 포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사)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철오스님)는 오는 31일부터 97년 1월2일까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제22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개최한다.

'단합된 지도자의 힘, 희망찬 어린이 불교'라는 주제로 마련되는 이번 연수회는 새로운 찬불가와 율동, 마당놀이 등을 비롯 어린이 포교를 위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된다. 한편 이번 연수회에서는 제1회 교재교구 전시회도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각종(통리원장 락혜)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종단 산하 자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자성학교 지도자 연수를 총인원에서 연다. '신행활동을 통한 자성동이 포교'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겨울불교학교를 위한 프로그램과 자성동이 포교를 위한 다양한 교육이 진행된다.

(사)파라미타 청소년협회(총재 성타스님)는 내년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충북괴산 다보수련원에서 제1차 분회장연수회를 개최한다.

'웅비하는 파라미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수회는 법회의 운영과 지도방법, 모범활동사례발표 등을 비롯 청소년 포교를 위한 특강과 토론이 진행된다.

한편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회장 법현스님)는 지난 11월 30일부터 양일간 서울 구룡사에서 '겨울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했다.

만화 法句經 법구경

* 바라문의 장 *
달처럼 깨끗하고
흐림 없이 맑고
쾌락이 일지 않게
다 없앤 사람

이 향 원



분별은 바치고 마음은 밝은 곳으로

김재웅 법사와 함께하는 **금강경독송회!** 이들의 현대적 수행담 **금강경독송회** 엮음

1부

금강경독송회 평신도님들의 신앙체험담
생활속에서 바치는 법을 실행하며
밝은 생활을 누리시는 따스한 이야기가
봄햇살처럼 가득합니다.

2부

오직 수행에만 전념하고 있는 수자님들의 이야기
지극한 부처님 시봉과
불같은 정진에 몰두하고 있는
수자님들의 이야기는 푸른 공기처럼
우리의 가슴을 적셔 줍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지혜를 가로막는 일이니 김재웅 법사의 세번째 책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버리라고 하면 아까울 것이니 그 마음을 바쳐라
바치는 마음을 연습해서 남을 위해 살고
부처님 시봉하는 삶을 산다면
그 마음이 우주에 가득차서 결국 부처님이 되지 않겠는가
거기 어디에 네가 있고 또 내가 있는가?
너, 나 없는 그냥 한마음 아닌가.

—백 선생님 법문에—

그 마음을 바쳐라

신국판 267쪽/값 7,500원

불기2541년 한국의 명찰 나한도 달력 보급안내



■ 달력크기/26cm×26.7cm ■ 보급특가 1부당 /1,300원

주문일부터 5일이내 납품가능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7 FAX.(02)738-8682

정토사상 첫 개론서 '정토불교의 세계' 펴낸 장휘옥씨

"자력수행과 타력신앙 한뿌리"



"불교의 자력(自力)수행과 타력(他力)신앙은 중생의 근기(根機)에 따라 설한 방법의 차이일 뿐, 이 둘은 같은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본격적인 정토사상 개론서인 〈정토불교의 세계〉(불교시대사 刊)를 펴낸 장휘옥박사(47·금강불교대 교수)는 "좌선을 통해 자신의 정토를 실현한다(唯心淨土)는 말과 나무아미타불을 염해 서방 극락정토에 태어난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한다.

불교는 기본적으로 자력수행을 중시하는 종교지만 힘든 일이 있으면 구원을 바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의문에서 출발한 장씨는 〈정토불교의 세계〉에서 궁극적으로 자력신앙과 타력신앙이 하나로 합일되는 것임을 설명해 준다.

정토신앙은 미타(彌陀)정토인 극락에 왕생하여 그 후에 성불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승불교의 한 갈래. 정토사상을 설한 고승으로는 인도의 세친(世親)과 용수(龍樹), 중국의 혜원(慧遠) 담란(曇鸞) 도작(道綽) 선도(善導), 신라의 원효(元曉) 법위(法位) 의적(義寂) 경흥(憬興), 일본의 법연(法然)스님 등이 유명하다.

〈정토불교의 세계〉는 제1부 '이상향을 찾아서'에서 정토교의 기본경전(淨土三部經)인 〈무량수경〉 〈아미타경〉 〈관무량수경〉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이 세 경전의 중요한 내용을 발췌해서 주제별로 설명했다. 이어 제2부 '정토사상의 역사와 전개'에서는 정토사상의 역사적인 발달과 전개를 인도 중국 한국 일본 등 각 나라별로 개관했으며, 제3부 '정토교학의 중심사상'에서는 정토사상이 성립된 이후 논란이 되어 온 몇 가지 문제를 사상전개의 순으로 정리했다.

이 책은 학술서로서의 의미도 크지만 한국불교 각 종단에 흡수되어 온 염불수행의 경전적인 근거를 확실하게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미타불의 본원력(本願力)에 의지한 일념(一念)수행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염불수행 자체도 하나의 자력수행의 방편이 됨을 설명한 것이다.

이 책은 또한 정토사상 전반을 다룬 국내 최초의 연구서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정토사상을 다룬 번역본이 몇권 나와 있지만 대부분 일본 정토종이나 정토진종 위주로 쓴 책이어서 인도 중국 한국의 정토사상을 체계적으로 알기는 어려웠었다. 국내에서는 〈신라정토사상사연구〉(안계현 저·현음사 刊) 〈신라 미타정토사상 연구〉(불교사학회 편·민족사 刊) 등이 나와 있지만 정토불교 전반을 다루지는 못했다.

일본 동경대 인도철학과에서 〈원효의 정토사상〉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20여년간 정토불교 연구와 수행, 강의를 계속해 온 장씨는 현재 '관음사상'을 다룬 원고를 집필하고 있다.

'염불수행은 방편' 경전토대 제시
나라별 정토사상 전개과정 요약

김재경 기자

명사추천 불서 100선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열살을 조금 넘긴 어린나이에 한 스님과 몇통의 편지를 주고 받은 적이 있다. 겨울 방학을 이용해 가족과 해인사에 다녀오게 되었는데, 절에서 돌아온 후 그곳서 처음 뵙게된 어떤 스님께 내가 보낸 철없는 편지에 그 스님께서 성의있는 답을 해주심으로써 소중한 몇번의 편지가 오가게 된 것이다.

스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가운데 내 평생의 지침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인생의 가르침이 담긴 책은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된다고 하신 것이다. 그 덕분인지 책은 내게 참 소중한 것으로 여겨졌다. 가끔 어떤 책에서는 그 책에 흐르는 기운과 교감이 이루어질 때도 있다. 마치 제목만 쳐다봐도 전류가 흘러 지나간 감동의 전등이 다시 켜지는 것처럼 말이다.

최근 읽은 책중에도 이러한 교감을 일으킬 만한 책이 있었다.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장경각).

'생활속의 유식 30송'이란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재가불자 몇명이 송광사 정화(正和)스님을 모시고 세친(世親)보살(Vasubandhu)의 〈유식삼십송(唯識三十頌)〉을 공부했었는데, 그 내용을 스님께서 다시 정리하신 것이라 한다.

상세한 본문 설명에 적절하고 수준있는 질문과 답이 어우러져, 지식의 앎으로 끝나기 쉬운, 어려운 용어들이 차츰 내면의 앎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깨달음은 억지로 얻는 것이 아니라 문득 주어지는 것임을 섬뜩하도록 느끼게하는 수행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유식30송〉을 풀어 쓴 것이지만, 스님은 유식성(唯識性)을 통한 깨달음의 완성을 더 강조했다. 마치 배를 타고 강을 흐르면서 수많은 나루터를 잠시 거치기만 할 뿐, 결코 멈춰 쉬는 법이 없는 착실한 사공처럼, 유식으로 비롯되는 많은 논제들을 거치면서도 깨달음이라는 흐름속에 회일시킴을 잊지않는 것이다.

이 책에는 염처수행(念處修行·위빠사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것 역시 수행방법의 하나로 이름붙여진 것일 뿐, 대승이다 소승이다 또 무엇이다 하는 분별에서 벗어나는 길은 분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깨어있음'임을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식은 철학적 논리로 해설되어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스님은 다분히 형이하학적인 분석을 통해 철학적 논리에 접근함으로써 난해하고 관념적인 기존의 틀을 가깝고도 따뜻하게 열어놓았다. 따라서, 학문으로서 불교를 알고자 하는 이에게는 모자람 없는 논리의 숲으로, 논리의 숲에서 언어의 유희에 잡혀있는 이에게는 참된 분별의 눈을, 그리고 분별의 저울에서 그만 내려오고 싶은 이에게는 한순간 깨어남으로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무심의 상태에서 만난 보석과 같은 가르침이나 책은, 마치 수행길을 가다 뜻밖에 얻은 지도책과 같아서 그 감동은 더욱 절절하기만 하다.



황 남 채
〈화가〉

평범한 문구로 풀어쓴 '유식30송'
분별서 해방되는 과정 쉽게 서술

"종교장벽 넘은 대화로 초대"

스님·수녀·학자 공동저서 '선불교와 그리스도교'



스님과 수녀, 종교학자가 불교·기독교간의 상호이해를 위한 책 〈불교와 그리스도교〉(바오로딸 刊)를 펴내 화제다. 공동저자는 중앙승가대 교수인 종범스님과 서강대 교수인 김승혜수녀와 길희성교수.

12차례의 강의형식으로 꾸며진 이 책은 김승혜수녀가 원장으로 있는 씨튼연구원이 94년 마련한 제1차 종교대화 강좌의 내용을 모은 것.

처음 네 강의에서 김승혜수녀는 대승불교가 동아시아에 정착하기 전 초기불교의 가르침 및 불교와 그리스도교가 지닌 우주관의 기본적 차이를 설명했다. 이어 종범스님은 대승불교의 기본사상과 한국에 뿌리내린 선불교의 다양한 특성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길희성교수는 불교의 空사상과 그리스도교의 신관(神觀)간의 대화가 가능함을 보여주면서 구원론의 시각에서 보살과 예수의 역할을 비교해 눈길을 끈다. "불자들은 이제 예수를 많은 보살들 가운데 한분 혹은 관세음보살과 같은 위대한 보살의 현현으로 간주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라는 설명이 흥미롭다.



"詩로 읽는 70년대 인물 초상화"

고은시집 '만인보' 10~12권 출간…30권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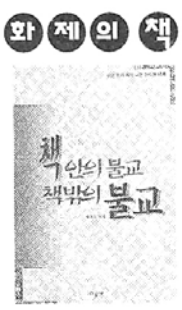
왕성한 창작력을 보이고 있는 시인 고은(본지 논설고문)씨가 연작시집 〈만인보(萬人譜)〉 10~12권을 창작과비평사에서 펴냈다. 신작 세권에 실린 시는 모두 344수. 시편마다 현대사의 기록적인 인물이나 추억의 현장을 하나씩 담아 '시로 쓴 사회사', '시로 쓴 인물지(人物誌)'가 되고 있다.

86년~89년에 쓴 9권까지는 주로 들꽃이나 잡초처럼 강산에 보성하고 스러져간 고향과 고향 부근의 사람들을 그렸지만 10권부터는 시인이 70년대의 삶을 통해 만나고 스쳐간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 관련된 사회적 명멸(明滅)을 노래하고 있다.

전 30권 3천5백명에 관한 방대한 시를 목표로 하는 〈만인보〉인 만큼, 이번 시집도 다양한 주인공들을 등장시키고 있다. 박정희 윤보선 유진오 이철승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 전현직 대통령이나 야당 당수들이 실명으로 등장하여 흥미를 자아내고 있다. 또한 선우휘 신경림 박목월 윤이상 등 문인·예인(藝人)은 물론이고 서경보·법정스님 김수환 함세웅 문익환 등 종교인, 이희승 강만길 한완상 등 학자들도 폄의 사정(査定)대상이다. 정·관계 인사나 '중앙시장 과부' 같은 시민들도 엇갈려 등장한다. 특히 거센 격랑의 70년대 동지들의 얘기가 기둥줄기를 이루면서 우리의 역사인식을 환기하기도 한다.

7년만에 10, 11, 12권이 나왔다는 사실은 개체로부터 민족의 생명성을 찾아나가는 이 작업이 얼마나 지난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살아있는 유명인들에 대한 중간평가가 되기도 한 이번 시집은 "인심은 후하면서도 촌철살인(寸鐵殺人)하는 인물평을 통해 시인의 기질을 잘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책안의 불교 책밖의 불교 — 김호성 지음



독서는 독자와 저자와의 밀어(蜜語)다. 그 진지한 대화를 통해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는 김호성씨(동국대 강사)의 서평집 〈책안의 불교 책밖의 불교〉는 불교책다. 여러 분야의 저자와 책안팎의 불교 이야기를 흥미롭게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그래서 쉽게 불교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불교 입문서'의 성격을 띤다. 또한 서

불서 40권 서평…좋은책 읽기 길잡이

40권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색다른 읽을거리다.

이 책에 실린 40권의 책들은 대중적 인지도와는 관계없이 저자의 안목에 따라 문학 역사 예술 과학 교리 禪 등 불교와 관련있는 다양한 분야가 총망라되어 있어 광이면서도 좋은 책 읽기의 방법을 일러주는 책 길잡이 역할도 하고 있다. 저자는 '책 이야기'를 통해 이상과 현실, 전통과 현재, 불교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보여준다. 〈시공사 6천5백원〉

출판의 제

민족사 '근·현대불교자료전집' 출간

전69권…1876~1960년대초 잡지·신문등 정리

도서출판 민족사(대표 윤창화)는 최근 한국 근·현대 불교사 연구에 획기적인 기초자료가 될 〈한국근현대불교자료전집〉(전 69권)을 출간했다.

(본지 89호 12면 참조)

각권 5백쪽 내외의 방대한 분량으로 구성된 이번 자료전집은 1876년부터 1950년대 말까지 국내에서 발간된 각종 불교잡지 26종과 신문·도서류, 문건류 등 기타 귀중한 불교자료를 망라하고 있어 중요한 1차 사료(史料)가 될 전망이다. 동국대도서관 이철교 사서과장이 수집한 자료와 각급 도서관 소장자료에 김광식 독립기념관 책임연구원의 해제와 별도 수집자료 등으로 편집된 이 자료집이 발간됨으로써 보다 활발한 불교사관련 자료의 공개와 발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값 198만원.

(02)732-2403.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삶은 苦가 아니다	혜 원	여시아문
2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3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4	불교입문	조계종포교원	조 계 종
5	49재 공덕과 의미	편 집 부	이 바 지
6	그 마음을 바쳐라	김 재 웅	용 화
7	법화사상	하카에 야타카	여 래
8	참선교육	현 담	수 선
9	경허선사	이 흥 우	민 족 사
10	불교심리학	루네 요한슨	시 공 사

구입문의:(02)737-0695

시·공·사·의·불·교·책·들

책 안의 불교 책 밖의 불교

마흔 권의 책과 나눈 진지한 대화



시 한 편을 외워 봅니다.
소설 한 권을 읽었습니다.
밑줄 그으며 학술서를 공부합니다.
어디에서나 불교가 느껴집니다.
책을 덮고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 봅니다.
불교는 그곳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책 안에도 책 밖에도 있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책 안의 불교 책 밖의 불교」는 숨어 있는 좋은 책 마흔 권에 대한 서평입니다

지은이 김호성

시공사 전화 588-0833 팩스 588-0835

불교 길라잡이
곽철환 지음 / 값 18,000원
미라레빠의 十萬頌
가르마 첸치창이 옮긴 영역본을 이정섭 풀어 옮김 / 값 18,000원
부처님의 아흔아홉 가지 말씀
이형기 지음 / 값 5,000원
알게 모르고 모르게 알고
원의범 지음 / 값 6,000원
禪으로의 초대
스즈키 순류 지음 / 최세만 옮김 / 값 5,000원

시공 불교 총서
1 고타마 붓다의 생애
E H 브루스터 편저 / 곽태섭 옮김
2 붓다의 옛길
피아딧시 지음 / 한경수 옮김
3 경전의 성립과 전개
미즈노 고겐 지음 / 이미령 옮김
4 불교 철학사
D J 칼루파하나 지음 / 김종욱 옮김
5 불교 심리학
루네 E A 요한슨 지음 / 박태섭 옮김
6 유식입문
디카사키 지키도 지음 / 이지수 옮김(근간)

시공 불교 총서는 지혜의 길을 열어주는 등경 소리입니다

제1회 만해상 수상자 발표

평화상—조영식씨
실천상—가톨릭농민회
학술상—故이기영박사
예술상—이반씨
포교상—숭산스님


◇숭산행원스님


◇故 이기영박사


◇조영식씨


◇이반씨

만해 한용운스님(1879-1944)의 나라사랑 겨레사랑 평화사랑의 높은 정신과 자유평등 진보 통일사상을 기리고 오늘에 되살리기 위한 취지로 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월주 조계종총무원장)가 제정한 제1회 만해상 수상자가 선정 발표됐다. 만해상심사위원회는 지난 3일 △만해평화상 조영식씨(75,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장) △만해실천상 가톨릭농민회(회장 양만규) △만해학술상 故 이기영박사(74, 한국불교연구원장)△만해예술상 이반씨(56, 서양화가) △만해포교상 숭산 행원스님(39, 화계사 조실) 등 5개부문 수상자를 발표했다. 시상식은 내년 1월 17일 오후 6시 세종문화회관에서 거행되며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장과 상패 그리고 상금 1천만원이 주어진다.

조영식씨는 유엔에서의 평화활동과 이산가족 고향방문 단교환사업을 실현시키는 등 이산가족 재회운동으로, 가톨릭농민회는 농민들의 권익실천 및 농촌민주화, 사회민주화에 앞장서고 우리밀살리기운동, 농촌살리기운동, 대통령직선투쟁 등 한국민주화와 생명공동체운동에 크게 기여해 온 공로로, 이기영박사는 원효학을 집대성하는 등 새로운 학문방법론을 수립하여 신불교학의 지평을 연 점과 한국불교연구원을 개원, 불교학 연구 및 불교인양성에 크게 이바지한 점으로 상을 받게 됐다.

이반씨는 DMZ 문화예술운동협의회를 창설 주도하면서 지난 10년간 비무장지대철폐와 자연및 생태계보존운동을 전개해오며 민족예술발전에 기여한 점으로, 숭산 행원스님은 세계 각국에 41개의 선원을 개설하고 1만여명이 넘는 현지인들에게 한국의 선을 지도하는등 국제포교활동에 큰 성과를 거둔 점이 인정됐다. 〈숙〉

"어머니·선생님도 함께 불러요"

찬불동요 한마당 불교음악연구회 16일 연강홀서

'가릉빈가 3중주단' 창단 기념무대
어린이가 작사한 3곡등 30곡 발표

패기있는 20·30대의 젊은 불자 작곡가들이 누구나 부르기 쉽고 재미있는 동요형식으로 만든 새 찬불동요 30곡이 다양하게 소개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음악대학교수 및 강사들을 중심으로 한 불자작곡가들의 모임 한국불교음악연구회(회장 정부기 중앙대 교수)는 오는 16일 저녁 7시 종로5가 연강홀에서 '96 찬불동요를 위한 사육제' 공연을 개최한다. 정부기 박이제 교수를 비롯 민선희 이진구 최은숙 김수미 정연근 최현주 김명희씨 등 젊은 작곡가들이 작곡한 최근 찬불동요들이 선보이게 될 이번 행사는 더욱이 교계최초로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으로 이루어진 '가릉빈가 3중주단'의 창단을 기념하는 무대도 겸해 관심을 모은다.

첼로스님으로 잘 알려진 법현스님(대보사) 피아노에 이정은씨(상보사합창단 반주자) 바이올린에 강현진씨 등 독실한 불심을 지닌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릉빈가 3중주단은 창단과 더불어 불교음악을 서양현악기로 감상할 수 있는 법열의 기회를 자주 제공해 본격 음악포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육제 행사에서도 대부분의 곡의 반주를 맡게되는 가릉빈가 3중주단은 이날 특히 불자들에게 널리 불리는 '사흥서원' 변주곡을 연주하며 독특한 실내악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찬불동요사육제 행사는 어린이들이 직접 응모해 당선한 작사에 곡을 붙인 '모래부처님' '엄마바람 아기바람' '꿈' 등 3곡으로 막을 연다.

'연꽃 한송이' '생일축하의 노래' '해당화' 등 5곡이 성악과 고소화 김희진씨의 중창으로 불려지며, '마음속의 부처님' '아름다운 마음' 등 독창,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의 어린이 합창 '절가는 길' '내마음의 연꽃' 등의 연주로 1부가 장식된다.

2부는 이신자 한경진 이보람 어린이들과 성악가 연정숙 강진구씨 등이 각각 '물비니 봄' '고운 마음' '스님생각' '사월과일 오색등' '석가세존' '향과 꽃으로 맞이하옵니다(새 법우 환영가)' 등을, 법안정사 통해사 삼보사 어머니합창단들이 '귀의' '혼자있을 때' '이방을 어디서 쉬나' 등을 부른다. 특히 어머니합창단과 어린이 합창단들이 서로 주고받듯 대화식으로 부르는 '화합의 노래'가 이날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예정.

특히 이번 음악회에는 독일유학을 다녀온 타악기연주자 유재현씨가 10여개가 넘는 타악기를 동원해 찬불가를 타악기로 연주하는 이색연주도 눈길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기교수는 "3중주단을 기반으로 불교교향악단 구성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내년 가을에는 불자음악가들을 대거 동참시켜 대규모 찬불가공연의 밤 행사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다.

이경숙 기자

화제의 공연

이웃위한 음성공양
광주불교합창제 열려
17일 남도예술회관서

전남 광주지역 5개 사찰 합창단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음성공양을 올린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영조)는 현대불교신문 광주 전남지사의 협찬으로 오는 17일 저녁 7시 광주시 남도예술회관에서 '연말 불우이웃돕기 '96 광주불교합창예술제'를 개최한다.

이번 예술제에는 향림사(풍물놀이) 선덕사(범종 등 3곡) 증심사(우리도 부처님같이 등 3곡) 화엄사(아미타불송 등 3곡) 한마음선원(누가 하는가요 등 4곡) 등 5개 사찰 합창단이 통참하고 3부는 전 합창단이 무대에서 '찬미의 나라' '사박걸음으로 가오리라'와 가요 '만남'을 함께 부른다. (062) 375-9986

자은스님
민속춤 '사모곡' 발표



미국 하와이 불은사 주지 자은스님은 지난 7일 하와이 마미야극장에서 개최된 한국민속무용단 공연에서 민속춤 '사모곡'〈사진〉을 발표했다.

호노룰루 KBFD-TV 개국 1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공연에서 자은스님은 어머니를 잃어 비통에 빠진 아들이 관세음보살의 제도로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춤으로 표현했다.

불심시심 〈71〉

무릎 끓은 적 없다

涉獵詩家已十年 (섭렵시가이십년) 시인들과 오가기 이미 십년
不曾玆膝屈人前 (부증자슬굴인전) 남앞에서 무릎 끓은 적 없소만
月下推敲方決字 (월하추고방결자) 달 앞에 문 두드리는 한자의 결정에는
騷壇果見尹生員 (소단과견윤생원) 문단에서 과연 윤생원 만났구료

위 시는 무경(無竟)대사(1664~1737)의 시이다. 대사의 휘는 자수(子秀)이다. 대사는 당시의 시대흐름에 잘 적응하여 유·불·선 삼교를 잘 조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사의 삼교설(三敎說)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가르침은 세 갈래이나 이치는 하나이니 삼교가 세상을 착하게 하고 세속을 교정하는 것은 솥의 발 세개에서 하나도 없을 수 없는 것과 같다(敎雖三理則一也 三敎之善世勸俗 猶鼎足之不可缺一)"이라 하였으니 세상의 교정을 위하여는 유 불 선의 어느 하나도 버릴 수가 없다 함이다.

이러한 대사의 신념이기에 대사는 승속간에 자연인으로서의 정이 남달리 도타웠다. 제자 금화를 화장하며 쓴 제문은 남다른 감회에 젖게 한다.

"오! 금화야 너는 지금 어디로 가느냐. 사람살이에 죽음이 있는 것은 밤과 낮 같은 필연으로 굳이 있어야할 이치이니,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없겠느냐마는 너에게서와 같은 슬픔은 끝내 드문 일이다. 오! 네 나이 2·8에 처음 나에게 왔고 내 나이 6·7에 또 너를 만나, 너와 내가 함께 살아온 지 지금 10에 또 네해가 되었으니 네 나이 이제 겨우 스물 여덟이요, 내 나이 벌써 쉰다섯이구나. 내 하루 아침에 이슬이 되어 너의 소망을 외로이 버릴까 염려하였지, 네가 나를 버리고 먼저 갈 것을 누가 알았겠느냐."

젊은 제자의 죽음을 이렇듯 슬퍼하고 있음도 대사의 인간적 한 단면이다. 문집에 그에 대한 애도시 한 수가 남아있다.

"네 살고 내 죽었다면 죽음 무엇 슬프랴만, 네 죽고 내 살아 삶 또한 슬프다. 서풍에 뿌리는 눈물 원망만 이득하여, 늙으막 지는 해에 끝없는 슬픔."

이렇듯 다정다감한 스님이었기에 승속간에 주고 받은 시에는 인간적 교감이 넘쳐 흐르고 있으면서도 스님으로서의 꼿꼿한 자세가 결코 속인에게 굴하지 아니하는 신념이었던 것이다. 위의 시는 그러한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시인들과 사귀기 십여 년이 되었지만 아직 무릎을 꿇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시의 저작에 있어서 신중히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고심하고 고심한 끝에 한 자라도 결정한다는 추고의 정신이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그러한 내가 오늘은 윤생원을 만났다 하니, 윤생원은 무릎을 맞댈 상대였던 듯하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문화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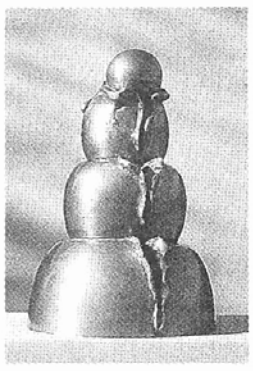
'96 종교인미술전
불교작가 14명 동참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천도교 등 5개 종교 미술인들이 참여하는 '96 종교인미술전이 오는 19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미술전에는 오경환 이왈종 전영화 송영방 손연칠 김대열 류종민 조승환씨 등 불교계에서 14명의 작가를 포함 67명의 종교미술인들이 회화 조각 사진 등 부문에서 1백여점을 출품했다.

또한 월하 조계종 종정, 석주·법정스님, 한경직목사 등 종교계 지도자 13인의 작품 17점도 함께 전시되고 있다.

한편 미술전 개막식이 열린 지난 10일 예술의 전당 서예관에서는 '종교의례의 전환을 위한 모색'이란 주제의 종교문화 토론의 장이 열렸다.



나상국씨 조각전
17일까지 갤러리 동주

생명성을 이미지화하여 형상화시키고 있는 불자조각가 나상국씨가 오는 17일까지 관훈동 갤러리 동주(730-1740)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작품전에는 '생명' '기원' '無' '空' '해탈'〈사진〉 '환생' 등 30여 작품이 선보인다. 나씨는 "자연속에서 꿈틀거니는 생명력과 원초적인 순수성에서 나타나는 힘과 따스함을 조형적으로 나타내고 싶었다"고 말한다.

강행복씨 판화전
11~17일 단성갤러리

자연을 소재로 한 강행복씨의 목판화전이 11~17일 서울 단성갤러리(735-5588)와 천안 이채관화(0417-61-3269)에서 동시에 열린다.

나무 꽃 새 산 등 자연의 여러 모습을 통해 선적 경지의 세계를 표현하고자 한 강씨의 '붉은해' '나무와 새' '날마다 좋은날' 등 50여 작품이 선보인다.


◇김학인씨


◇이채란씨


◇안덕상씨

불자시인 김학인·이채란·안덕상씨
자연주제 시집 동시 출간

세 불자시인이 자연을 소재로 해 깊은 불심을 표출한 시집을 거의 동시에 펴내 화제다. 김학인씨가 〈야들아! 달 끄슬겠다 외등꺼라〉(불일출판사刊), 시조시인 이채란씨가 시조집 〈강촌일기〉, KBS 라디오기술국에 근무하는 안덕상씨의 첫 시집〈나는 너의 그림자조차 그립다〉(아세아미디어 刊)가 그것.

김학인씨의 시는 어떤 가식도 없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담담히 표현하면서 출렁이는 생명력과 경이로움의 되새김질을 시도하고 있다. 처처에서 불성(佛性)을 발견하는 그의 시에서 우리의 영혼까지 정화하는 향기로운 선향까지 느낄수 있다.

이채란시인의 〈강촌일기〉는 전체가 5부로 되어있다. 자연이나 삶의 세사에서 느낌을 따오면서 내적으로 영근 치열한 자기성찰이 돋보인다.

'등촉으로 길을 열며/부처님을 따릅니다/반야경 외운 만큼/은혜를 입고보면/오늘은 정정을 다져/뉘우침이 많습니다 (사월초파일)' 일상화된 신앙생활의 깊은 사유에서 울려퍼진 이같은 발성이 삶의 미학과 어우러져 자연스런 화음이 되어 준다.

안덕상씨는 세상을 들여다보는 시선이 짚을할 만큼 정직하다. 무엇보다 역사속에서 가혹하게 짓밟히고 고통받는 자들의 삶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정신으로 충만하다. 특히 '도피안사' 시리즈는 철불 부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인간에 대한 따스한 자비정신을 구현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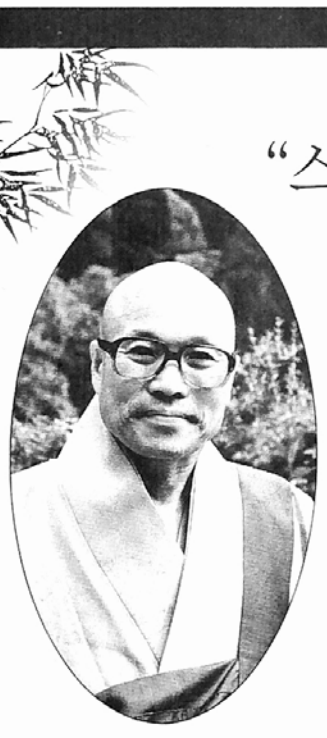
"2백여명 렌즈에 비친 경주"

사진집 '경주에…' 훼손현장 고발등 다채

2백여명의 사진가들이 어느 하루 날을 잡아 경주를 렌즈에 담았다. 석굴암 불국사 황룡사터 등 문화재뿐 아니라 서라벌 축제, 관광객들, 분황사앞 석수(石獸)등 큰 문화재에 가려 놓치기 쉬운 작은 볼 것들, 한가한 모습의 경주시민들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경주의 다양한 모습을 사진집 〈경주에 가보았어요〉에서 찾아볼 수 있다.(눈빛 刊)

지난 5월 18일 하루동안 전국에서 모인 사진학과 교수, 전문사진가, 사진학과 학생 등 2백여명의 작품이 담긴 이 사진집은 관광도시로의 개발과 역사도시로서의 경주가 훼손돼 가고 있는 현장을 고발하기도 했고 갖가지 모습의 남산석불들과 천진한 웃음을 웃고있는 장승, 뿌리만 남기고 송두리채 베어져버린 솔숲너머로 보이는 아파트숲, 화재의 상흔이 그대로 남아있는 김유신장군묘 등, 개개인이 다양한 시각에서 들여다본 고도 경주의 다큐멘터리이다.

한국다큐멘터리사진학회 엮음.



"기도는 실천이지 이론이 아니다.
하지만 법에 맞지 않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 따라서 기도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성취 만큼이나
중요한 일인 것이다."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인 ≪기도≫의 발간 이후, 독자들로부터 기도 방법을 묻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저는 현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옳은지요?"…. 계속되는 독자들의 기도법에 관한 문의에 저자로서의 책임을 느낀 스님께서는 다시 집필을 시작, ≪생활 속의 기도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책 ≪생활 속의 기도법≫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 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세세한 일타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B6 / 160면 / 값 3,500원
제1장 〈기도 성취의 지름길〉 제2장 〈생활 속의 기도법〉 제3장 〈특별 기도 성취법〉 제4장 〈영가 천도 기도법〉

생활 속의 기도법

祈禱 기도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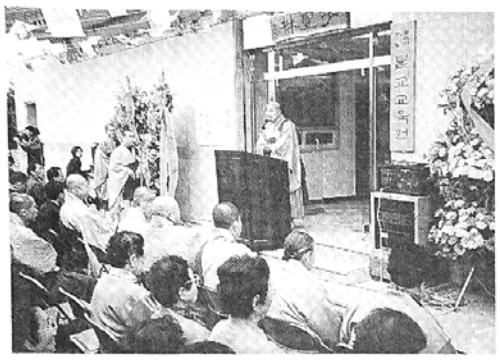
불교 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큰스님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의 체험담을 엮은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가 실린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Ⅰ. 나와 가족·제자의 기도 이야기 / Ⅱ. 기도는 깨달음의 지름길
Ⅲ. 업병도 불치병도 기도를 통하여 / Ⅳ. 목숨을 구한 일념의 기도
Ⅴ. 생활 속의 기도와 득력(得力) / Ⅵ. 기도인을 바른 길로

일타큰스님의 알기 쉬운 불교책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일타큰스님의 윤회와 인연 이야기 모음집 신국판 / 값 4,500원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스님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야운비구의 ≪자경문≫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 신국판 / 값 5,000원
법공양문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신국판 / 값 5,000원
범망경보살계1~5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스님의 무애변(無碍辯)을 기록·편집한 책 신국판 / 1~5권 각권 값 6,000원
감로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샘솟는 일타큰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테이프 5개 1세트 / 값 10,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팩스 : (02) 586~9078



◇불국사 불교교육원이 지난 11월 29일 새건물로 확장 이전했다.

불국사 '불교교육원' 확장 개원

건강강좌·컴퓨터실 등 갖춰…상담활동도

불국사부설 불교교육원(경주시 황남동, 원장 서형)이 지난달 29일 새건물로 확장이전, 경주지역불자들을 위한 새교육도량으로 자리매김하게됐다. 지하 1층 지상 1층 연건평 2백40평 규모의 새교육원은 법당을 비롯 회의실과 6개의 대소강의실을 구비하고 있으며 미니무대를 갖춘 합창단연습실과 1백석규모의 식당도 갖추고 있다.

특히 20여명이 동시참여할 수 있는 도자기실습실과 10여대의 컴퓨터가 비치된 컴퓨터실습실도 있어 취미활동에서 부터 첨단교육에 이르기까지 불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

同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으로는 △교리강좌를 중심으로 한 불교교양대학 △사군자 민화및 불화 다도 서예교실등의 문화교양강좌 △수지침 요가 한방의학을 가르치는 건강교육강좌 △어학강좌 등이 개설됐다.

또 실천사업으로 무의탁노인 무료공양, 심장병어린이 돕기, 소년소녀가장돕기 등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내년 1월에는 자비의 전화(0561-745-3737)도 개설한다. 〈경주=이윤호 기자〉

'기아도움기구' '한국JTS' '이웃을 돕는…' '우리는 선우'

"한국불교 동남아 문맹퇴치 앞장"

인도·네팔 등지에 학교설립·무료급식·장학금 지원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회장 김재일)가 내년 3월 네팔 카투만두에 현지법인을 설립, 초등학교를 짓기로 하는 등 동남아 불교국가의 문맹퇴치 및 결식어린이 구호사업이 불교계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 네팔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재일 회장은 "문맹퇴치와 결식어린이 점심제공을 위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기아도움기구가 초등학교를 설립하려는 곳은 네팔 망갈루 교외.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으나 10Km 이상을 걸어 등교해야 한다. 망갈루초등학교는 3백여명의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으나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점심을 굶고 있다.

김재일회장은 내년 3월 재방문해 현지의 학교부지를 구입하고 UNHCR(유엔국제난민대책기구) 네팔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현지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한국JTS(대표 법륜스님)는 인도의 최하층 빈민들이 살고 있는 둥게스리에 수자타아카데미를 설립, 4백여명의 어린이들에게 초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기아·질병·아동구제 불교단체인 '이웃을 돕는 사람들'(회장 송산스님.진중앙승가대학장)은 수자타 아카데미에 무료급식소를 설치, 지난 11월부터 매일 4백여명의 어린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이웃을 돕는 사람들'은 또 네팔 카투만두에 기술교육과 불교포교를 위한 불교센터 건립을 추진중이다. 내년 5월 기공을 목표로 1억5천만원의 기금마련을 위한 바자회도 준비중이다.

이에앞서 우리는선우(이사장 박광서)는 산하단체인 국제승보공경선우회(회장 남지심)를 중심으로 지난 94년부터 캄보디아와 미얀마 승단에 승려교육을 위한 후원금을 매월 1천달러씩 후원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불교기아난민돕기기구 김재일 회장이 네팔의 티벳난민촌 초등학교 롬상 탐캐교장에게 1천불의 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우리돈 2천5백원이면 어린이 1명에게 한달치의 점심을 제공할 수 있다.

"홍보·채널전문화 부족하다"

보리방송모니터회 'BBS 개선방안' 설문

신행프로 '인기'…어린이·청소년 청취율 저조

다가오는 뉴미디어시대에 대비해 라디오매체인 불교방송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청취대상을 분명하게 하는 채널의 전문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최근 보리방송모니터회가 불자 3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불교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와 개선방안등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많은수의 불자들이 불교방송의 경전공부와 교리공부프로그램, 그리고 큰·스님 초청법문 등 불교방송만이 할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의 심화 확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일반불자층이 자비의 전화, 교리강좌 등을 신행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꼽았고, 청년불자들의 경우는 살며생각하며, 참선교리 경전공부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는 아직도 많은 수가 불교방송에 대해 잘모르고 있거나 청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와 청소년불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홍보와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 11월 17일 부터 25일까지 조계사, 봉은사, 석왕사, 흥원사등에서 실시돼 일반불자 308명과 청년불자 81명이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불교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전문화를 통한 질적향상과 기술의 향상, 또 이를 통한 적극적인 경영으로 양질의 음질과 새로운 서비스 제공 등 청취자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참 방송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여론이다.

더불어 불교방송의 전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작진, 진행자의 전문화, 지역프로그램의 강화, 청취자의 참여확대, 편성 홍보전략 강화 등이 선행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은〉

방송을 통한 불교문화의 계승보전과 불교사회의 발전을 위해 시행되는 제 4회 보리방송 문화상 수상작이 결정됐다.

먼저 일반TV부문 최우수상에 대구KBS의 '대륙으로 간 신라왕자'(연출 김덕재)가 우수상에는 대구MBC가 제작한 '팔공산 백흥암'(연출 공재성)이 선정됐다.

불교방송부문에서는 '자비의 전화'(연출 전승환)가 최우수상에 선정됐으며, 우수상에는 부산불교방송의 로컬프로그램 '물같이 바람같이'(연출 진영조)가 선정됐다.

일반 '대륙으로 간…'

불교 '자비의 전화'

보리방송문화상 최우수상

불교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선정은 보리방송모니터회가 지난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서울지역 주요 5개 사찰과 신행단체 등을 대상으로 무작위 설문조사한 것을 토대로 수상작을 결정했다.

사단법인 불국토가 주최하고 보리방송모니터회와 보리방송문화상 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4회 보리방송문화상 시상식은 오는 23일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 대연회장에서 개최된다.

천태불교문화원 12일 개원

경전번역·학술연구·유적발굴등 사업전개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타워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천태불교문화원개원식및 '천태사상과 현대사회'를 주제로 기념강연회를 개최한다.

천태교학의 연구와 천태사상에 입각한 현대의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키위해 설립하는 천태불교문화원은 △천태불교원전및 불교경전의 수집및 한글번역 △천태학술연구 △국내및 중국등 해외 천태유적지 발굴조사 △천태불교의 응용과 사회화작업추진 △천태문화연구등의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개원식에 이어 '천태사상과 현대사회'를 주제로한 기념강연회에서는 중국불교문화연구소 부소장 왕신박사, 일본천태학회장 오쿠보 료순박사, 동국대 이영자 천태학교수의 강연이 발표될 예정이다.



◇지성스님 ◇우담스님 ◇백운스님 ◇혜공스님

총무-지성스님 교무-우담스님
사회-백운스님 재무-혜공스님

태고종 신임 4부장 임명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지난 6일 총무부장을 비롯한 신임 4부장을 임명했다.

이날 임명된 신임부장은 총무부장 지성스님(승가사주지 현 총무원 규정부장) 교무부장 우담스님(선봉암주지 전 교무사회부장) 사회부장 백운스님(석왕사주지 강원불교대학장) 재무부장 혜공스님(대구 관암사주지 전 재무부장) 이다.

종단소식

진언종 5대종정에 이육자 주교 추대

진언종은 지난 11월 22일 중앙종회를 개최하고 제 5대 종정에 이육자 주교를 추대했다.

또 진언종은 지난 2일 종리원장 직무대리 손금광주교 종회의장 이법륜주교 감사원장 현해공주교 호법원장 변국복주교 재무부장 손종밀주교등 종단간부를 선임했다.

백진결사회 위령재

28일 경찰종합학교서

태고종 백진결사회(회장 일로)는 오는 28일 경찰종합학교에서 순직경찰관과 교내사격장 건물공사중 사망한 인부들의 넋을 위로하고 고혼을 천도하는 위령재를 봉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백진결사회는 학교 근무자들과 학생들에게 불교예술공연도 펼친다. 이번 공연에는 법고 범패 찬불가 영산재 등이 시현될 예정이다.

진각종 12일 종의회

종헌종법 개정논의

진각종(통리원장 락헤)은 창종 50주년을 맞아 종헌종법의 대대적인 개정작업에 돌입한다. 종단의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진각종은 오는 12일 종의회를 개최하고 △현시대에 맞는 종단부서개편 △교역자 대우 △각종 장학금제도 개선등이 걸려있는 종헌종법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불교TV 고승대덕 초청 선서화전

16일 부산서 개막…1월 23일부터 서울서

불교TV는 발전기금마련을 위한 불자주식공모 기간에 발맞춰 고승대덕 초청 선서화전을 개최한다.

서울과 부산 두 도시에서 개막될 이번 전시회는 우선 오는 16일 오후 2시 부산국제신문사 전시실에서 개막을 시작으로 22일까지 1주일간에 걸쳐 전시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월 23일부터 30일까지 1주일간 서울 세종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된다.

고승대덕스님들의 선서화는 물론 한국현대미술을 대표할 작가들의 작품이 대거 선보일 이번 전시회는 한국불교 사상의 진수를 선보일 격조 높은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월하종정스님의 서화를 비롯해 석주스님, 일타스님, 운제스님 등 원로스님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하고 소장할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불교TV 발전기금마련을 위한 선서화전에는 불교TV전무 정우스님이 사진과 서화등 3백여점의 개인소장품을 기증하기도 했다.

목탄소리

발묶인 불교영상 세계화

이 은 자 〈취재2부 기자〉

이젠 불교TV도 프로그램 기획단계부터 해외수출을 고려하는 한 차원 높은 안목으로 제작에 임해야 한다.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지난 5일~7일 홍콩에서 열린 국제 방송프로그램 견본시장인 'MIP(International Film & Program Market for TV,Video, Cable & Satellite) 아시아 96'에는 우리나라 케이블TV 방송의 프로그램 공급업체들이 개국 2년만에 처음으로 아시아 프로그램 시장 공략을 위한 공동전선에 나섰다. 큐채널, 현대방송, 등을 비롯 10개사가 '케이블 TV 코리아'라는 공동부스를 설치하고 그 동안 제작해 온 프로그램을 전시, 판매할 계획으로 이 대회에 참가했다.

당초 불교TV도 이 대회 참가를 위해 '고려대장경' 2편, '한국의 명찰' 5편, '영상포엠 내원사' 1편, '통도사예불' 1편, '출가 새로운 탄생' 1편등 총 10편의 출품작을 결정했었으나 영문자막, 영문브로셔, 더빙 등에 필요한 재정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참가를 취소했다고 한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MIP 아시아 참가는 프로그램 판매와 수출면에서도 필요하지만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고 정보를 교환하는 면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

지난 국감자료에 의하면 불교TV는 자체제작비율이 81.8%로 타종교방송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같은 자체제작비율이 수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채 지금껏 미주지역에 몇몇 프로만이 저단가에 수출된 바 있다.

제4차 주식공모에 돌입해있는 불교TV의 현 사정이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불교TV가 보다 탄탄하고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 제작과 수출로 세계속에 한국불교의 영상탑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위해 주식공모에 동참, 함께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만이 불교TV가 불교영상포교사로 그 생명력을 발하게 될것이기 때문이다.

삼화불교대학 학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 교 학 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5매	•조계종 승려 포교사(타종 승려·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 40명		
유아교육과(유아 포교과)	2년	•주간 60명 •통신 40명		
중 국 어 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불 교 미 술 과	2년	•주간 20명		
신문방송과(불교보도과)	2년	•주간 40명 •통신 20명		

2. 학교연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심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야간 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 취득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93. 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 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4.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 8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분교체결
95. 11 본교학생 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6.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0명 취득
96. 2 제5회 졸업생 배출
96. 11 본교학생36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7. 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0명 취득예정(위탁교육 수료후)
97. 2 제6회 졸업생 배출 예정

3. 특전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법사 자격증·불교유아포교사 자격증 수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6년 12월 30일까지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본교: 511-1080, 511-2026~8, 광주 삼복서점 : 222-0258
조계사 앞 삼보원 : 732-9904, 부산 영광도서 : 816-9500
대구제일서림: 424-0801, 대전문경서적: 252-8558
마산학문당 : 46-2925, 인천 대한서림 : 762-7337
김해 오복당 : 36-2105, 전주 홍지서림 : 88-5311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 511-2026~8, 511-1080)

삼 화 불 교 대 학
우편번호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팩스:511-1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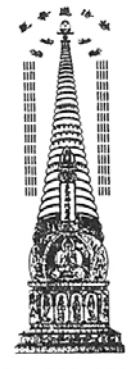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발휘되어 현세에 사는 불자들의 만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고 있는"

"신비의 佛탑다라니에 대한 영험록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神秘의 佛塔다라니"



〈금강경 신탑다라니〉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고급 백색공단 천 위에 100% 순수 양질의 경면주사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 (가로)63㎝×(세로)160㎝

■부산, 경상남북도 대한불교 상담문의 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각광)
부설: 불교바라밀 건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전화: (051)864-3740

■기타지역상담문의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0335)34-9490, 39-1906,
야간(0342)706-3060

◉佛탑다라니의 신비스러운 영험력!
①본회의 불탑다라니에서만, 자체에서 약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 주는 강력한 氣(기)가 계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②이 氣(기)는 심신깊은 불자에게는 더욱 강하게 작용하여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위신력을 발휘하며,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변화시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불탑다라니를 몸에 대면, 몸속에 氣(기)의 흐름이 감자기 강해짐을 직접 느낍니다. 이 기(氣)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3개월 정도 몸에 계속적으로 발게되면, 약했던 운기가 강해지고 그로인해 운세가 최상으로 바뀌면서 모든 일이 저절로 막힘이 없이 풀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③그리고 금강경 신탑다라니를 이용하여 인체와 영계에 파장되는 氣(기)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고 그 강·약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인간의 길흉화복까지 판단할 수 있으며 조상령의 천도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판단이 그대로 적중된다는 사실입니다.
• 현재 자기가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인지? •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 조상님의 영가가 천도되었는지? • 하고자하는 일이 성사될 것인지? • 무슨 일을 하면 될 것인지? • 대학입시에 합격할 것인지? • 어느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는지?
• 현재 앓고 있는 병환은 낳은 것인지? • 언제까지 아플 것인지? 등 어떠한 일이든 금강경 신탑다라니안에 적어 넣고 기(氣)테스트를 해보면 이루어질 것은 氣(기)가 나오고,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기 어려운 것은 氣(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기(氣)가 나오면 심중팔구(80~90%)는 거의 그대로 적중된다는 점입니다. 氣(기)가 나오지 않을때는 2개월이상 佛탑다라니 氣(기)를 받으면 운세가 바뀌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허다합니다.
④또한 우주공간에는 수없이 많은 온갖 영(靈)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이승에서 조금이라도 인연을 맺는 인간의 몸에 빙의되고, 관념과장을 일으켜 집안에 우환이 돌끊고 되는 일이 없고, 집안에 풍파를 일으킵니다. 이때 불탑다라니를 집안에 소장하거나, 몸에 지니고 생활하거나 조상의 묘에 안장시켜드리면, 이런 영들이 하나 둘 씩 천도되기 시작하면서, 100일 정도 지나면 모든 영들이 천도되어 떠나가며 그때부터 집안이 조용해지고 하고자 하는 일이 저절로 풀려 나갑니다.
⑤불탑다라니를 부처님에 대한 진실된 기도와 방행치 않고 단순히 부적으로만 생각하고 사용하는 분이나, 타종교인에게는 영험력이 일어나지 않고 氣(기)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님들께 佛탑다라니를 이용한 기(氣)테스트 방법과 처방전이 수록된 스님용 책자와 영험록 책자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포교차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어 불심을 깊게 하는데 일조하고, 재앙과 재난을 예견하여 그것을 피해가고 소멸시켜 주는 방편으로 신도들께 사용해 주심으로써, 다소나마 불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불자님들께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탑다라니 조성경위와 사용방법 등이 같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책만 보셔도 충분히 참고가 되며 스님용 책자요청은 가능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불뉴스

공동대표 5인 추대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박광서)는 지난 3일 다원 녹수청산에서 회의를 열고 공동대표에 지하(중앙승가대학장) 법장(수덕사주지) 광우스님(진국비구니회장)과 민병천 서경대총장, 고준환 교수불자연합회 명예회장을 추대했다.

동학사 승가대 인가

조계종 교육원(원장 원산)은 지난 3일 제24차 교육원회의를 갖고 동학사 승가대학을 기본교육기관으로 인가했다.

또한 내년부터 해외유학 장학승으로 산스크리트어와 빨리어 전공 2명을 특별지원키로 했다. 특별장학승은 증단기본교육기관(동국대불교학과, 중앙승가대, 강원) 졸업자가운데 선출한다.

불국사 신도회 창립

조계종 제11교구(불국사) 신도회는 지난 11월 30일 불국사 심검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신도회장에 권영락씨(경주중 교장)를 선출하는 등 임원진을 구성했다. 이날 총회에는 불국사주지 설조스님을 비롯 23개 말사 신도회장단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실천승가회 세미나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청화 지선)는 오는 12일 오후 2시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제2차 종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중앙종회의 진단과 발전방안'에 대한 종회의장 설정스님의 기조발제로 진행된다.

"대법원판결따라 처리"

정부합동민원실은 지난 11월 25일 해인총림대책위원회(위원장 동운)에 해인골프장 건설반대와 관련한 회신을 보내 "현재 해인골프장 사업승인 취소처분 행정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이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부산 8개합창단 합창제

부산찬불음악합창제가 지난 11월30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찬불음악만다라회 주최로 열렸다. 이번 합창제에는 통도사 서운암합창단, 동명불원 룸비니합창단 등 부산시내 사찰소속 8개 합창단이 참석했다.

고속철 경주역사 '내남면' 확정적

건교부, 18일 공청회 거쳐 최종 결정…문화재훼손 예상

경부고속철도 경주노선이 경주시내에서 8㎞ 떨어져 건천읍 외곽을 지나는 경산시 압량면~단석산 근접통과~건천읍 화천~내남면 안심리~울산을 잇는 노선으로 결정됐다. 역사는 내남면 안심리에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건교부는 "당초 덕천리와 방내리를 놓고 막판 조율을 했으나 △덕천리의 경우 남산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문화계)이 있으며 △방내리는 문화재 훼손과 주민 이주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 안심리를 제3의 대안으로 선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고속철도과의 다른 관계자는 지난 5일 "18일 열리는 공청회 이후에 최종 결정될 것이다"며 부인했다.

불교계와 고고학회를 비롯한 문화계는 내남면에 역사가 설치될 경우 경주의 역사성과 문화성의 파괴를 가져올 것이라며 건천면에 역사가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고고학회는 지난 5일 긴급회의를 열어 내남면 역사가 결정될 경우 고속철도와 관련된 문화재발굴조사에 일체 불참키로 하는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

교통개발연구원은 18일 오후 3시 경주보문단지 육부촌에서 경주노선 선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공청회에서 건교부는 내남면 안심리 역사 및 건천노선을 제시하고 빠르면 연내에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정성운 기자〉

인천 첫 불교복지회관 건립

사암연 계획발표…월주스님 기금 1억 전달

인천지역 최초로 대규모 불교복지회관이 건립될 전망이다. 조계종 인천사암연합회(회장 선일)는 지난 5일 송도비치호텔 무궁화홀에서 봉행된 '인천불교 중흥 및 시민복지를 위한 기원대법회'에서 불교복지회관 건립 계획안을 발표했다.

인천사암연합회가 추진하고 있는 불교복지관은 △불교교양대학 △불교노인대학 △자원봉사센터 △비행청소년 순화를 위한 수강센터등의 시설을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인천지역 불교중흥과 복지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할 것"이라고 밝히고 복지회관 건립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인천사암연합회는 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2억여원의 자금을 확보하는등 이번 법회를 계기로 회관건립기금 마련과 대외적인 홍보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외국근로자 위한 특별바자회 연말을 앞두고 불교TV 자원봉사단과 육법공양회가 주최한 '외국인 근로자돕기 특별바자회'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현대불교신문사 사옥 지하 다원 녹수청신에서 열렸다. 재가불자 신도복을 판매한 이번 특별바자회 수익금 전액은 추운 이국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해 쓰인다.

불교통신대학 내년 3월 개학

군불교진흥회, 군인·가족대상 포교사 양성

군포교사양성을 목표로 하는 불교통신대학이 내년 3월 문을 연다.

군불교진흥회(회장 박상길)는 지난 11월29일 국방부 국방회관에서 사단법인 설립기념법회를 개최하고 97년도 중점사업으로 불교통신대학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내년3월 문을여는 불교통신대학은 2년학제이며 각 군법당의 장교 하사관을 비롯한 직업군인 군인가족 신도를 대상으로 1백여명 정원의 통신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또 체계적인 학습과정을 통한 유능한 군포교사 양성을 위해 불교학개론 교리발달사 불교사 종교학 경전강의 선사상 불전개설 불교윤리 포교학개론 법회슫의등의 과목이 개설된다. 불교통신대학은 제1기 신입생을 오는 1월부터 3월까지 모집한다.

(02)749-5135, 748-1728

동국대·위덕대 신입생모집

18일부터 원서접수…농어촌학생등 입학 확대

동대 아시아 지역학부 **위덕대** 전기공학과 신설

불교종립 동국대(총장 송석구)와 위덕대(총장 손제석)는 오는 18일부터 9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서울캠퍼스 2천9백68명 경주캠퍼스 2천64명등 총 5천27명을 모집하는 동국대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원서를 접수한다.

서울캠퍼스에 아시아지역학부와 경주캠퍼스에 간호학과를 신설하는 동국대는 특별전형을 확대하여 올해 입시에서 입학정원의 3%에 해당하는 1백49명을 농·어촌학생으로 선발한다.

특히 인문·자연·예체능계열에서 학생정원의 10명의 특수교육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또 동국대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수도권지역 27개 대학과 연계해 전국 6개지역에서 대입원서 공동접수창구를 마련한다. 공동접수장소는 △부산사직체육관 △대구시민운동장체육관 △광주염주체육관 △대전충무체육관 △원주고교체육관 △제주학생회관 등이다.

경주에 위치하고 있는 진각종립 위덕대는 총 4백94명의 학생을 모집한다.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실시되는 이번 전형에서 위덕대는 불교학과에 진각종 교직자 과정학생 6명을 특차 모집하며 3%를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으로 실시한다. 위덕대는 대학원서접수처와 대구 심인고에서 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가족중심 수행레저타운 세운다

백암사 '불교수련관' 내년 초파일 완공

가족끼리 수행과 레져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신도전용 수행레져타운이 건립된다.

조계종 백암사(주지 덕실)는 경북 울진군 온정면 2만여평의 부지에 불자들의 수행·수련은 물론 문화생활 향유에 대한 현대인들의 욕구에 따른 전천후 수행레져타운인 대한불교수련관을 건립한다.

백암사는 내년 부처님오신날 수련관 개원을 목표로 공사에 한창이다.

백암사 부설로 운영될 대한불교수련관은 수행중심적 수련관에서 탈피, 온가족이 함께 문화시설로써 즐길 수 있는 수련관으로 조성된다. 수련관은 부지 5천여평에 지상 2층 규모로 법당, 대강당, 소강당, 한방의료원, 상담실, 매점, 사우나, 강사실, 귀빈실, 숙식소 등을 갖추게 된다. 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산림욕장, 산책로 등 레져스포츠시설도 건립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98년까지 연차적으로 1만 5천여평에 걸쳐 심신요양지구, 관광농장지구, 신도전용 콘도미니엄 등을 유치, 명실상부한 신도전용 수행레져타운의 모양을 갖춘다.

또한 대한불교수련관은 청소년들에게 대자연 속에서 호연지기를 기르도록 돕고, 효행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한몫을 할 계획이어서 교계 안팎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덕심스님은 "온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현대식수련관 개원이 불교문화 홍포에 한 획을 긋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복궁 불교문화재 반환불가"

국립중앙박물관, 교계요구에 입장표명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정양모)은 최근 조계종의 경복궁안 불교문화재 반환을 요구한 것과 관련, 보존 관리상의 문제를 들어 '반환 곤란' 입장을 통보해 왔다.

박물관측은 지난 2일 조계종 총무원에 보낸 회신에서 "현재 소장중인 불교 석조문화재 32점은 거의 모두가 폐사지에 위치했던 비탑들로서 일제시대 주민들이 골동품상에게 밀매했거나 몰래 반출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서 당시 이의 보호차원에서 총독부박물관으로 옮겨온 것들"이라며 "대부분이 보존상태가 심각한 상태여서 박물관 보존과학실의 지속적인 점검을 받아야 하며, 훼손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전임 감시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환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불교문화재인 탑과 부도는 불자들의 신앙의 대상이라는 점과 현재 박물관의 조경물로 전락되어 있는 불교문화재는 그 문화재가 있어야 할 문화유적 공간에 존재토록 조치해야 마땅하다는 원칙하에 적절한 논거를 들어 추후 다시 불교계로의 반환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불황·추위「공공」…자비로 녹인다

교계의 각 종단, 사암, 신행단체들이 계속되는 불황에도 불구하고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돕기 성금모금 및 무료급식 등 다양한 불우이웃돕기행사를 펼치고 있어 세밑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지난 1일부터 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와 손잡고 전국 각 금융기관 '사랑의 계좌'를 통한 불우이웃돕기 모금활동과 '사랑의열매' 배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도 지난 5일부터 전국 본말사단위로 불우이웃돕기성금모금을 시작한 것은 물론 일선장병위문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국 사암·신행단체 성금모금 등 줄이어

또 태고종은 오는 22일 의류 신발 등을 양로원에 전달하며, 천태종은 오는 18, 19일 육군사관학교 17전투비행단을 비롯 충북지역 군부대를 방문한다.

이밖에도 심불정사(주지 지홍)는 오는 15일 무의탁노인초청잔치, 17일 환경미화원 초청 무료점심공양, 24일 화성양로원 방문 등 불우이웃을 위한 보시행에 눈코뜰새가 없을 지경이다. 석왕사도 오는 21일 동지팥죽을 노인정 고아원 경찰서 군부대에 공양보시할 예정이다. 또 혜원정사(주지 승원), 대성사도 오는 13일, 22일 무의탁노인과 소년소녀가장에게 성금을 전달한다.

(사)우리는 선우(이사장 박광서)도 1월 중순 소년소녀가장 가족을 위한 제2회 용기백배캠프 준비를 설악산 겨울캠프장에서 개최키로 하고 행사준비에 여념이 없다. 〈필〉

청하스님 법왕추대

조계종 반대등 파문예상

스리랑카 찬다난다 승왕(세계불교법왕청 본부 공동법왕)은 최근 조계종 전계대화상 청하스님(통도사 부방장)을 세계불교법왕청 본부 공동대표인 제2대 공동법왕에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찬다난다 승왕은 서경보스님의 열반으로 공석중인 공동법왕 자리에 청하스님을 확정하고 내년 3월 총회에서 인준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은 현재 세계법왕칭이나 법왕을 인정치않고 있어 전계대화상의 법왕 확정에 파문이 예상된다.

'범종단 복지기금 조성"

불교사회복지재단 밝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은 지난 11월28, 29일 양일간 교계 최초로 속리산관광호텔에서 전국불교사회복지 시설(단체) 종사자 연수회를 개최했다.

1백여명의 종사자들이 참가한 이번 연수회에서는 '문화복지시대의 민간복지기관 역할'이라는 신중섭교수(부산대 사회복지학과)의 주제강연과 박종 한국불성개발 교육원장의 '인생을 멋지게 사는 법'에 대한 특강이 마련됐다.

마음 되놓아야 무너진다

길을 가다가 엎어졌으면 엎어진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나야지 누가 일으켜주는게 아니다. 전생에 선업·악업을 지었다면 그 지은 자리에도 되놓아야 무너진다. (한마음운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민족사판 〈불교경전총서〉는

불교경전

우리시대의 새로운 대장경입니다.

01	화엄경	김지견 역	값12,000원
02	유마경	박용길 역	값6,500원
03	묘법연화경	이재호 역	값13,000원
04	금강경	정호영 역	값4,500원
05	능엄경	김두재 역	값9,500원
06	원각경·승만경	전해주·김호성 역	값8,500원
07	정토삼부경	法頂 역	값6,500원
08	법망경·지장경	一指 역	값5,500원
09	과거현재인과경	혜원 역	값8,500원
10	백유경	현각 역	값6,500원
11	부모은중경(만음경·우란분경)	一指 역	값5,500원
12	대반열반경	강기희 역	값5,500원
13·14	아함경①②	돈연 역	값 1권 7,500원 2권 7,000원
15	법구경	석지현 역	값6,500원
16	숫타니파타	석지현 역	값7,000원
17·18	밀린다왕문경①②	동봉 역	(97년3월간행)
19·20	본생경①②	이미령 역	값 1권 8,500원 2권 9,500원
21	미륵경전	이종익·무관 역	값6,000원
22	해심밀경	묘주 역(근간)	값8,000원

* 법보시는 부처님 말씀이 담긴 경전으로 합시다!

석지현 스님 에세이

바람의 길

시인이자 〈선시감성사전〉을 준비하고 있는 석지현 스님의 에세이!



석지현 스님의 에세이는 이 책 한 권뿐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에세이는 더 이상 쓰지 않을 작정이다.
그 이유는 이런저런 세속사들이
모두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기보다는
마음을 들뜨게 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면
마음을 가라앉히게 하는 것이
중생으로서는 지고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신국판 270쪽/값 5,500원

한국의 전설적 선승 경허선사 이야기!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경허선사
鏡虛禪師

이홍우 지음

탁월한 선지, 막행 막식 그리고 질풍 같은 선승의 삶을 산 경허선사!

64세, 그의 만년은 뜻밖에도 유형지인 갑산 웅이방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훗날 스승의 입적 소식을 들은
제자 만공과 혜월이 그의 무덤을 파고 다시 다비를 했다.



어느 여름날 경허스님은 제자 만공과 함께 탁발을 나갔다.
하루종일 걷다보니 다리가 아픈 만공이 쉬어가자고 졸랐다.
그 말을 들은 경허스님은 꾀를 하나 생각해냈다.
그리고는 갑자기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네의 볼에다 "쭉" 하고 입을 맞추었다.
순간 동네 청년들이 "저 중놈 잡아라" 고함치며 달려왔다.
스승과 제자는 결음아 나 살려라 하며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갔다.
단숨에 커다란 고개를 넘어 능선에 다다르자 스승 경허가 만공에게 물었다.
"아직도 다리가 아프냐."

신국판 288쪽/값 6,800원

경허선사의 생애를 은은한 필치로 사실 그대로 서술하고 있는
필자 이홍우 씨는 오랫동안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와 논설위원을 지냈다.

건강백세 ㉝



십이지장

십이지장은 위의 끝부분인 유문부(幽門部)와 연결되는 부분으로 소장(小腸)의 시작부분이 되는 곳이며 그 길이가 자기 손가락 굵기의 12배쯤 된다고 해서 명명(命名)된 곳이다. 이곳은 췌장의 처음 부분이며 간(肝)과 수담관(輸膽管)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 간에서 생성된 담즙(膽汁)이 담낭(膽囊=쓸개)에 저장 되어 있다가 필요할때에 십이지장 안으로 배설되어 위에서 내려 보내진 음식물에 골고루 섞이게 된다. 그러므로 백색(白色)의 음식을 먹을지라도 대변색이 황색으로 착색되게 된다. 이것은 지방질의 소화에 관여하며 비장(脾臟), 췌장(膵臟)등에서 분비되는 각종 효소들과 더불어 음식물의 화학적 소화에 깊이 관여한다. 동시에 담즙은 섭취된 음식물의 부패를 방지하고 또한 상당한 해독(解毒)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충(蛔蟲)은 주로 소장에서 살지만 때로는 이곳까지 상승하여 구역질을 일으키기도 하고 수담관을 막아 황달(黃疸)에 이르게 하거나 소화불량 또는 격렬한 충성복통(蟲性腹痛)을 일으키기도 하며 결석(結石)으로 일어나는 통증과 더불어 '가슴앓이'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금은 인분(人糞)을 비료로 사용하는 농가가 거의 없어졌지만 10여년전까지만 해도 채소농사에 많이 사용하여 소위 '채독(菜毒)'이라고 불리우는 십이지장충(十二指腸蟲)의 감염이 많았었다. 영양분만을 섭취하는 회충과는 달리 혈액을 직접 흡입하는 기생충이어서 급만성빈혈(急慢性貧血)을 일으키거나 여러가지 심각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촌충(寸蟲)과도 달라서 구충(驅蟲)을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우므로 위생에 유의하여 감염을 막아야 한다.

인분을 주지않고 수경재배나 유기농법을 써 키웠다해도 지나친 채식은 엽록소의 과량섭취를 일으켜 G-II(헥사글로로린)의 과잉흡수로 인한 부작용과 질산염의 과잉으로 인한 충성이 아닌 채독증세를 일으켜 인체에 해롭다.

음식물 화학적 소화에 깊이 관여
지나친 채식 섭취 채독증세 유발

십이지장은 지방질의 소화에 관여하며 비장(脾臟), 췌장(膵臟)등에서 분비되는 각종 효소들과 더불어 음식물의 화학적 소화에 깊이 관여한다. 동시에 담즙은 섭취된 음식물의 부패를 방지하고 또한 상당한 해독(解毒)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충(蛔蟲)은 주로 소장에서 살지만 때로는 이곳까지 상승하여 구역질을 일으키기도 하고 수담관을 막아 황달(黃疸)에 이르게 하거나 소화불량 또는 격렬한 충성복통(蟲性腹痛)을 일으키기도 하며 결석(結石)으로 일어나는 통증과 더불어 '가슴앓이'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십이지장은 위의 유문부와 더불어 강한 산성을 띤 효소들과의 접촉이 많은 부분이다. 상피조직이 손상되어 궤양을 잘 일으키는 부분이다. 심신을 편안하게 하여 식사를 해야하며 자극성 있는 음식물이나 밤늦은 시간에 식사하는것을 삼가야 하고 날로 먹는것을 피해서 원인이 되는 세균감염을 막는 길만이 예방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

한의학에서는 채독 치료에 초과란 약재를 이용하여 탁월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윤 을 상 〈한의학 박사〉

아들 부처님 ③

주부신행담



그림 · 이준석

"절에 가면 뭐하는데?"

승호는 오히려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뭐하긴. 법회를 보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도 하고 친구들을 사귀기도하고 스님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막상 절에가서 뭘한다는 이야기는 술술 나오지 않았다. 사실 학생법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필요가 없었던 나였기에 그렇게 더듬을 수 밖에 없었다. 순간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거기 나오는 아이들을 보니까 다들 좋아 보이더라. 그러니 너도 나가서 어울려 봐."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거군요."

"그래 그렇게 생각해도 된단다. 교회서는 예수님을 이야기 하고 절에서는 부처님을 얘기하는 차이가 있겠지만 같아야. 그리고 지난번에 같이 있던 그 친구들도 함께 다니더무나. 그애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려 했는데 절에가서 학생법회 담당하시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지 않기로 했다. 그 친구들과 사귀면서 앞으로는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되는 것 아니겠니."

내아들 포교하는 일에 가슴 벅찼다
훌륭한 엄마가 되고자 불서를 읽었다
그러다 법당에 도서관 설치를 발원…

일단 친구들의 얘기에서 승호는 마음을 굳히는 눈치였다. 너석이 어느새 그렇게 눈치 빠르게 사는 법을 익히고 있었던가. 승호는 절에 다니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친구들을 만나러 뛰어 나갔다. 나는 멈시 흐뭇했다. 내가 나의 아들을 포교하는 일이지만 가슴이 벅차오르기까지 했다. 포교를 했다는 보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들녀석이 비뚤어진 길을 가지 않도록 내가 보살핀다는 것이 얼마난 어려운가를 절감한 직후에 그 아들을 부처님께로 귀의 시킨 보람이었기에 가슴 가득 기쁨이 생솟았던 것이리라.

그렇게해서 승호는 학생법회를 다니게 되었다. 함께 파출소에 잡혀갔던 두 친구도 승호와 함께 법회를 열심히 다녔다. 녀석들이 법회에 흥미를 갖고 잘 다닌다는 얘기를 지도법사 스님을 통해 들으며 나는 '나 스스로 더 훌륭한 불자가 되고 더 훌륭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다시 먹었다.

그래서 나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스님들이 펴낸 법문집이나 예세이류를 읽기 시작했다. 쉽게 풀어쓴 경전 해설서도 읽었고 소설이나 여행담도 읽었다. 그저 절에 다니며 스님 법문을 듣고 기도에 동참하고 방생법회에 따라가는 것이 신행의 전부라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책을 읽으며 느끼게 되었다. 어느날 스님을 찾아가 '책을 읽는 재미가 적지 않다'는 얘기를 했더니 스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불교는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에 여러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이 뭡니까. 집안 청소하듯 닦는 것이 마음입니까. 그렇게 닦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가 무엇인지 부처님이 누구인지 마음이 무엇인지 닦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읽고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법당에서 책을 빌려다 보기도 하고 서점에 나가 책을 사다 읽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나 스스로 갑갑해 했던 의문들도 나름대로 정리되었고 늘 마음이 충만해와 자는 것을 즐길 수 있었다. 서점에 가면 승호를 위해서도 한 두권씩 책을 샀고 녀석은 잘 읽어 주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이 읽을 만한 불교책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다. 불교의 용어들이 어려워 책을 잘못 고르면 읽을 수 없고 읽어도 이해를 못한다는 사실을 나는 터득하고 있었다. 때문에 책을 매우 까다롭게 고르는 편이어서 승호가 읽을 만한 책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은 금방 알 수 있었고 약간은 실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아무튼 승호는 안정이 되었다. 학교 생활도 잘하고 절에도 잘 다녔다. 친구들과도 잘 지냈다. 그런 아들을 보며 나의 독서하는 생활은 기쁨 그 자체였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어떤 소망이 생겼다. 법당에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말이 도서관이지 그저 책꽂이 몇개를 청소년문고로 채워주는 정도)을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이 났던 것이다. 스님께 나의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스님은 만면에 미소를 지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라고했다.

이 법 성 화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제 2 회 신행수기 찾습니다

마감 12월 15일

본지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신행수기를 공모합니다. 신행수기 공모는 자신의 신행을 돌아 보는 계기가 될 뿐아니라 삼보에 귀의하여 불자의 길을 걸으며 겪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이웃과 나누며 불심을 더욱 돈독히 다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가슴에 묻어 두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신행의 이야기들을 통해 이웃과 함께 피안의 길을 넓혀 갈 이 기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푸짐한 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며 입선작은 본지에 연재됩니다.

△원고분량:2백자 원고지 30매 내외

당선작 97년 본지 신년호에 발표

△공모대상:불자면 누구나
△원고마감:1996년 12월 15일(마감날짜 소인 유효)
△당선작 발표:1997년 본지 신년호
△시상내용
◇대상(유마상 · 1명)
상패 상품(부처님조각 순금 메달 5돈)
◇우수상(본사 사장상 · 2명):상패 상품(〃 3돈)
◇특별상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상(1명):상패 상품(〃 3돈)
· 천태종 총무원장상(1명):상패 상품(〃 3돈)
·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1명):상패 상품(도서)
◇응모자 전원:도서출판 여시아문 도서 증정
△접 수: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공모 담당자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현대불교신문사

1996 문학의 해 | 해외불교문학 **다이제스트**

금각사 ④ <끝>

미시마 유키오 作

금각사는 평온했다. 노사는 방탕한 대학생활을 확연히 알고 있었지만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와 같은 노사의 모습을 보는 나는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해 점점 초조해졌다. 그러나 '나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한 덕분에 모든 것이 역전됐다. 금각사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는 생각이 이때부터 들기시작했다.

2일 오전 1시. 목탁 소리도 끊기고 절은 조용해졌다. 비는 아직도 소리없이 내리고 있었다. 나는 밭에서 뱃짚 석 단을 안고 다이쇼 뒤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지닌 모든 것을 다 태우고 싶었다. 다이쇼 뒷문 쪽에 쌓아 두었던 짐을 내번에 걸쳐서 금각사 요시미쯔 상 앞으로 날랐다. 이제 불을 질러 버리는 일만 남았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식욕이 동했다. 나는 배신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엿못으로 달려갔다. 저녁 노을에 물든 연못 위에서 금각사가 뚜렷이 보였다. 나는 최후의 이별을 고할 셈으로 금각사 쪽을 바라보았다.

나는 증얼거렸다.

"나는 행위의 일보 직전까지 준비했었다."

'행위' 그 자체는 완전히 꿈꾸어지고, 내가 그 꿈속에서 완전히 살아 본 이상, 그러고도 행위를 감행할 필요가 있단 말인가.

〈임제록〉 시중장에 있는 유명한 한 구절이 머리 속에 맴돌았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척을 만나면 친척을 죽이고, 이때야 비로서 해탈을 얻을 것이로다.'



그림 · 심민섭

이 말은 나를 무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다. 갑자기 온 몸에 힘이 솟구쳐 올랐다. 마음의 일부는 지금부터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의미하다고 집요하게 알리고 있었으나, 이미 나의 힘은 헛된 일에 겁내지 않고 있었다. 금각사 쪽을 바라보았다.

"금각사에 불을 질렀다
나를 다 태우고 싶어서…"

나의 머리는 또렷이 맑아졌다. 성냥개비의 수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에는 다른 한구석으로 달려가 또 한 개비의 성냥을 소중하게 다루면서 다른 다발의 볏짚에 불을 붙였다. 타오르는 불길은 나를 위로 했다. 시주함에 불이 옮겨붙었다. 삽시간에 불길이 내 주위로 퍼졌다. 기침을 하면서 구교초의 문을 열려고 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곳은 확실히 나의 죽음의 장소였다. 발밑에 불 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연기에 숨이 막혀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기침을 하면서 계속 문을 두드렸다. 번개같이 몸을 돌려서 계단을 뛰어내렸다. 나는 불속을 헤집고 간신히 서쪽 문으로 뛰쳐나오며 정신을 잃었다.

여기서는 금각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소용돌이치고 있는 연기와 하늘을 찌르고 있는 불길만이 보일 뿐이었다. 나무 사이를 엄청난 불티가 날아다니고, 금각사 쪽의 하늘은 금모래를 뿌린 것 같이 보였다. 나는 담배를 피웠다. 한바탕 일을 끝마치고 한 대 피우는 사람이 흔히 그렇듯이 살아야겠다고 나는 생각했다.

생활 속의 불교 ⑩①

누구나 알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

부처님의 십대제자에겐 한가지씩 별명이 붙어 있다. 두타제일, 지혜제일, 신통제일, 다문제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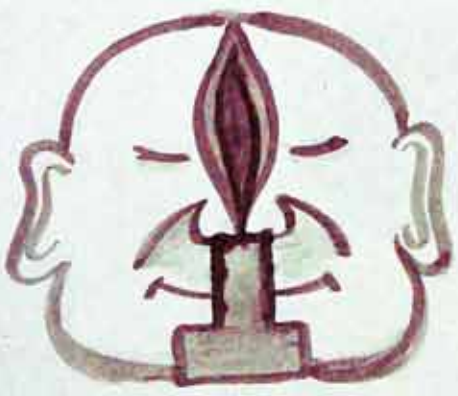
수행방편이 그렇듯 다양함을 보여준다. 가섭존자는 의 · 식 · 주에 집착하지 않는 두타의 행으로, 사리불은 지혜로, 목건련은 불가사의한 능력으로, 아난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귀의로써…

그렇다고 십대제자들이 한가지 방편만을 취한 것은 아니다. 또 방편의 덕으로 십대제자의 반열에 오른것도 아니다. 각자 인연도리에 따라 좀 더 익숙한 방편을 택하긴 했어도 그들의 수행은 오로지 삼법인(三法印)-제행무상, 제법 무아, 열반적정-의 처절한 실천 그것이었다.

불법은 실천으로 일관한다. 부처님 말씀이나 역대 선지식의 가르침 어느 것을 보아도 실천을 떠난 것은 없다. 팔만사천 법문도 한결같이 실천을 역설한다. 경전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무엇을 터득하게 된다'는 형식을 취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교외별전(敎外別傳), 언어도단을 강조하는 것은 실천만이 진리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불법에서 실천을 뺀다면 가르침은 다만 철학이나 사상으로 남게된다. 고로 불자로서 실천을 등한시하는 것은 부처님을 人天의 스승으로 모시는게 아니라 그저 한 시대를 살다간 위대한 사상가나 철학자로 격하시키는 결과가 된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리'의 자리에서 '사상'의 자리로 낮추어 평가하는 꼴이 되고 만다.

경 · 율 · 론 삼장은 다 행을 위한 것이다. 바로 도(道)인 것이다. 가라고 있는 것이다. 가지 않는다면 도는 이미 도가 아니다. 저 식단표가 음식을 골라 먹으라고 짜여진 것처럼 행하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음식을 주문해서 먹으려 하지 않고 식단표만 들여다 보면서 배부르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그렇기에 팔만사천 경전을 가로 세로로 꿰고 귀절귀절을 달달 왼다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결코 국맛, 밥맛을 모를 것이라고 했다.



실천없는 수행은 사막의 신기루와 같다. 사막에서 물 한모금 구하기가 어려운데 신기루엔 그나마 물 한방울인들 있겠는가.

가르침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저 강물에 대해 소상히 아는 것만으로 내 갈증이 적셔지지는 않는다. 그것은 내 앞에 놓인 한 잔의 물보다도 못하다. 따라서 가르침에 대해 먼저 충분히 공부하고 나서 실천에 옮기겠다는 생각은 어리석음일 뿐이다.

건너편 언덕에 다달으려하면 그냥 다리를 건너가는 게 중요하지 다리의 구조나 재료, 공법 따위를 아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질 않는다. 다리는 건너가라고 놓여진 것이지 감상하라고 놓인 것이 아니다. 도피안(到彼岸)은 실천이다.

불법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 해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불법을 실천 할 수 있다. 누구나 알고 누구나 소중히 여기는 생명 사랑, 나눔 같은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불법의 실천과 딱 맞아 떨어진다.

생활 속의 불법이라는 게 꼭 좌선이나 명상, 기도 · 염불 정진, 화두참선등 뭔가 좀 색다른 방법이라야 어울리는 게 아니다. 그런것을 선호한다면 오히려 거기엔 미쳐 감지하지 못한 이기심, 자의식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좀 나는 무엇이 바른 실천인지를 알고있다. 그리고 거기엔 작은일, 큰일 또는 일상적인 것 특별한 것의 분별이 불필 않는다. 가르침 한가지라도 몸소 지성으로 실천하는 거기에서 불법은 살아 숨 쉬게 된다.

협찬 : 지일상 · 양희전 · 지수연 · 자승호

불법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